

| SRI-전략-2024-02 |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Single-person households survey and policy agenda in Suwon

박민진 · 한연주 · 정재진 · 김재이 · 정보라 · 신예지



#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원시 1인가구 증가는 특수하고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

  -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OECD 주요국의 1인가구 비율은 이미 40% 넘어섬
  - 한국은 2015년 이후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음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현재 인근 지자체(화성, 용인, 성남시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원시는 학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허브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어 1인가구 비율 높게 나타남
- 수원시 민선8기 ‘1인가구 종합대책’ 추진과 ‘1인가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한 통계 및 욕구 파악 필요

  - 1인가구의 이질성 분석을 통해 세대별, 지역별 정책 수요에 맞춤 대응 필요
  - 1인가구 취약성 분석을 통해 ‘취약 1인가구’ 발굴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본 연구는 수원시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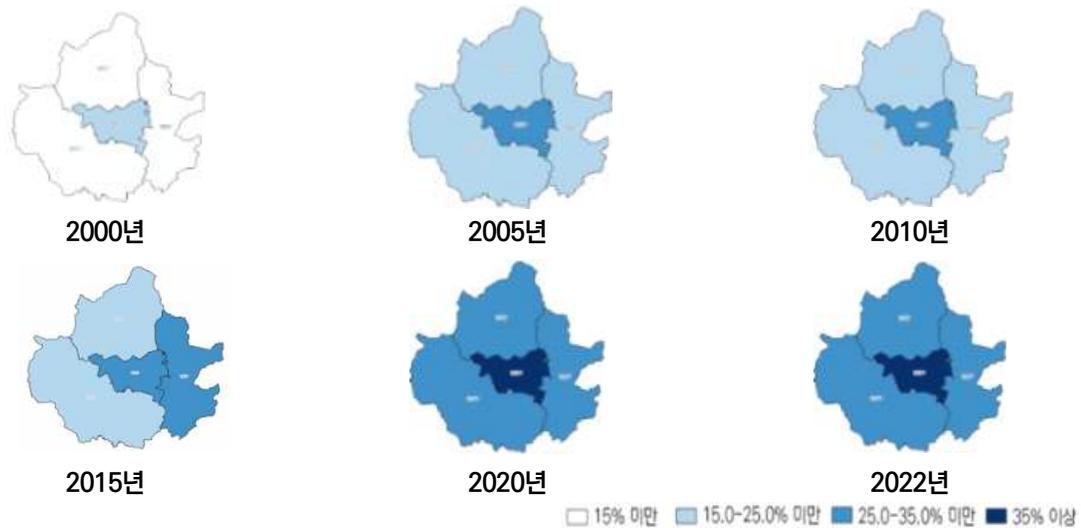
그림 | 연구 목적



## 주요 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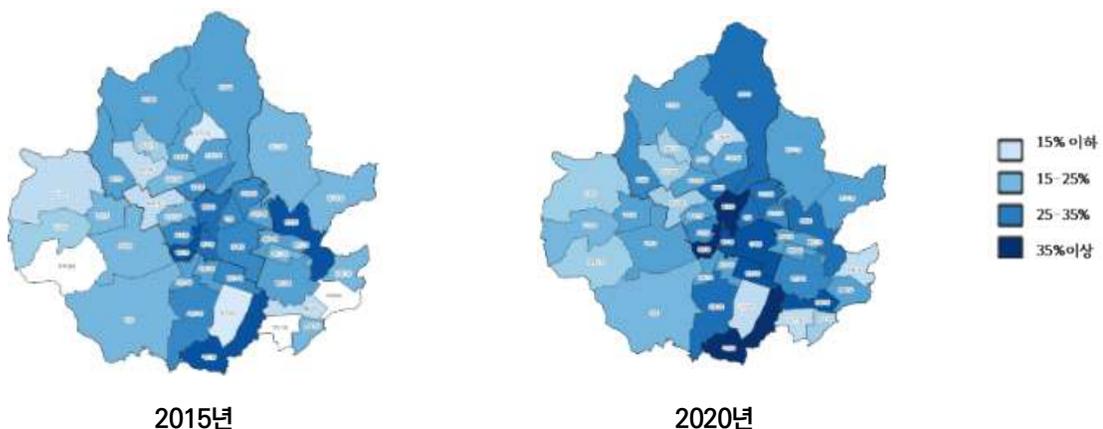
- 수원시 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팔달구, 행궁동, 곡선동, 매산동에 집중
  - 수원시 1인가구 200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지역별 차이 존재
    - 수원시 구별 1인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팔달구 1인가구가 가장 많음

그림 | 수원시 구별 1인가구 변화



- 수원시 1인가구 밀집지역 더 뚜렷한 격차 발생할 가능성 높음
  - 행정동은 행궁동, 곡선동, 매산동의 1인가구 비율이 50% 이상이며, 행정동별 1인가구 비율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높아진 동시에, 비율이 높은 동과 낮은 동의 격차가 더 커짐.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수원시에서는 1인가구 밀집지역이 더 뚜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 수원시 행정동별 1인가구



□ 수원시 1인가구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모집단: 수원시 거주 1인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1,075명
- 표본할당: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층화 추출 방식으로 할당
- 조사방법: 혼합조사(40대 이하 웹조사, 50대 이상 웹조사 + 대면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24년 3월 28일 - 2024년 4월 24일
- 조사내용: 1인가구 실태(1인가구의 삶과 인식,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과 건강행동, 여가 및 사회적 관계), 정책 수요(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수원시 1인가구 사업 인지 여부 등)

□ 실태조사에 근거해 수원시 1인가구의 삶을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 분석

- 수원시 1인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10년, 여성 1인가구는 평생 1인가구로 살겠다는 비율 높음
  - 수원시 1인가구의 지속기간은 평균 10년으로 서울시(5년 8개월)와 경기도 1인가구(7년 7개월)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를 10년 이상 지속한 비율이 중장년은 56.4%, 노년은 64.4%로 서울(중장년 23.3%, 노년 19.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일반적으로 중고령 1인가구는 혼인으로 다인가구를 형성한 뒤에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수원시의 중고령 1인가구는 청년 시절부터 1인가구를 지속하고 있거나, 원가족과 분리된 지 오래된 경우가 훨씬 많은, 이른바 1인가구의 장기화 혹은 영속화 경향이 두드러짐. 은퇴, 신체 노화 등으로 청년에 비해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중고령 1인가구가 이미 오랜 기간 단독생활을 했다면 다양한 노후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 있음
  - 평생 1인가구로 살겠다는 비율은 33.9%로 서울시 1인가구(23.6%)에 비해 10.3%p 높게 나타남
- 수원시 1인가구의 92.3%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며 주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서울시 1인가구의 95.4%는 1인가구라서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
  - 수원시 1인가구는 서울시 1인가구에 비해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족 부양 부담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경제적 여유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 수원시 1인가구의 91.8%는 1인가구라서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이유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기 때문으로 응답
  - 서울시, 경기도 1인가구는 수원시와 동일하게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이 힘들다고 응답
  - 수원시 1인가구로 혼자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사해결의 어려움, 여성 1인가구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 1인가구의 40.8%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함
  - 수원시 1인가구는 서울시(35.8%), 경기도 1인가구(30.7%)에 비해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비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미혼 1인가구는 향후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 1인가구,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사별 경험이 있는 1인가구는 지금처럼 혼자 생활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음주예방 프로그램, 먹거리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지원 필요하며, 여성 1인가구는 노후준비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필요

- 남성 1인가구는 경제역량 높으나 사회적 관계망(소통, 고립/은둔, 단체활동 참여) 부족
- 여성 1인가구는 근로역량, 노후 준비 부족하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잘되어 있음

그림 | 남성 1인가구(위)와 여성 1인가구(아래)의 특성 비교

삶과 인식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과 식생활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
삶의 만족도	취업자(75.3%)	돌봄서비스 받고 있음 (3.7%)	주거안전성 (자기+전세비율 50.1%)	범죄 위험장소 인지율(79.2%) 귀갓길, 방치된 공간	만성질환 유병율(30.7%)	하루에 한번 대면 소통(12.3%)
1인가구 힘든점(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식사해결 어려움)	비경제활동인구(15.5%)	가족돌봄(5.6%)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62.7%)	범죄 노출위험(57.1%) -사기죄, 폭행죄	음주율(85.2%), 고위험 음주율(9.0%)	사회적 고립(22.3%)
심리적 어려움(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근로가능(74.9%)	생활비 부족 경험(44.7%)	세입자 어려움 경험(58.3%)	범죄 대처(55.5%)	자살생각 (18.9%)	은둔경험(7.0%)
차별이나 무시경험(지속적인 결혼 강요)	월평균소득(291.2만원)	생활비 보조(19.1%) -주거비, 생활비	주거선택 어려움 경험(87.6%)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10.3%)	모임단체활동 참여(43.9%)
	노후 준비율(24.6%)	다차원 결핍(1.7%)	주거불안 경험(39.1%) -임대보증금 부족, 보증금 반환 위법		먹거리 안정성(82.2%)	
			거주불안정(9.2%) -주택관리인 부재, 비상시 대처 어려움			
			주거환경 불편임(29.6%)			

■ 양호 ■ 보통 ■ 취약

삶과 인식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과 식생활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
삶의 만족도	취업자(65.1%)	돌봄서비스 받고 있음(8.0%)	주거안전성 (자기+전세 비율 59.5%)	범죄 위험장소 인지율(84.5%) - 귀갓길 방치된 공간	만성질환 유병율(41.5%)	하루에 한번 대면 소통(25.7%)
1인가구 힘든점(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경제적 어려움)	비경제활동인구(29.9%)	가족돌봄(6.3%)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76.2%)	범죄 노출 위험(71.1%) - 성희롱, 성폭행, 폭행	음주율(69.2%), 고위험음주율(2.9%)	사회적 고립(18.3%)
심리적 어려움(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근로가능(53.6%)	생활비 부족 경험(38.7%)	세입자 어려움 경험(64.1%)	범죄 대처(76.4%)	자살 생각(23.9%)	은둔경험(5.3%)
차별이나 무시경험(지속적인 결혼 강요)	월평균소득(221.1만원)	생활비 보조(28.5%) - 주거비 생활비	주거선택 어려움 경험(77.1%)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18.8%)	모임 단체활동 참여(49.8%)
	노후 준비율(19.5%)	다차원 결핍(0.2%)	주거불안 경험(33.8%) - 임대보증금 부족, 안전건강문제		먹거리 안정성(89.7%)	
			거주지 불안전(15.3%) - 주변 안전시설미비, 주거지 위치			
			주거환경 불편함(25.7%)			

□ 청년은 주거와 정서적 회복, 중장년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노년은 사회적 고립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정책 설계 필요

- 청년 1인가구: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혼 또는 만혼이 증가하고 있음. 수원시 청년 1인가구는 직장이나 학교로 1인가구가 된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높고 (89.3%), 삶의 만족도, 신체·정신건강, 먹거리 안정성 등이 높음.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비와 외식비 부담 비율이 높으며 고위험 음주율, 자살 생각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 큼. 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문제로 제기됨. 수원시 중장년 1인가구는 자발적 1인가구 64.3%, 비자발적 1인가구(이혼/별거/사별) 34.5%이며 교통비와 사적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사회활동과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지만 무연고사 두려움, 고위험 음주율이 높음
- 노년 1인가구: 일반적으로 사별로 인한 비자발 1인가구 비율 높고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열악함. 수원시 노년 1인가구 또한 비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80.1%로 높고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은 10.3%임. 자발적 1인가구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로 나타남. 노년 1인가구는 주거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자살생각은 낮지만 외로움/고립 비율 높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낮게 나타남

표 | 세대별 특성과 정책방향

구분	주요 내용	정책방향
청년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질과 근로역량 높으나 주거 안전성 낮음</li> <li>- 청년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생활비 보조 받아</li> <li>-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 주거 불편함 모두 높음</li> <li>- 음주율과 자살생각 비율 높음</li> </ul>	주거 안전망 구축, 정서적 회복 지원(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회복) 필요
중장년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이질성이 높으며, 정신건강이 취약</li> <li>- 음주와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음</li> <li>- 차별이나 무시, 은둔경험이 많음</li> <li>- 중장년 1인가구 10명중 1명은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li> </ul>	경제적 지원(중장년 재취업), 지역자원과 연계, 돌봄 네트워크 구축 필요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노쇠로 인한 어려움, 가족과 사회의 돌봄을 받는 비율 높음</li> </ul>	사회적 고립 방지(돌봄 망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책방향
1인 가구	-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 안정성 높지만,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 높음 - 범죄 대처에 미흡, 외로울 때 아무것도 못하는 비율, 사회적 고립 비율 높음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관리(홈 헬스케어, 운동 등)

□ 수원시 1인가구의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수원시 1인가구 유형화 1)

- 1인가구 생애주기, 삶의 모습, 경제적 수준 및 형성원인 등에 따라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다양, 1인가구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유형화 분석 실시
  - 1인가구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은 군집분석으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유형화 시도
  - 서울시는 2008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1인가구를 유형화 하였으며, 2022년에는 1인가구의 형성 원인(자발, 비자발), 고용-주거 안정성에 기반하여 4가지로 유형화
  - 인천시는 2022년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군집분석을 진행하였고 화이트 싱글, 블루싱글, 실버싱글로 유형화

표 | 1인가구 유형화

저자(연도)	분석대상	분석방법	유형
변미리 외(2008)	서울시	군집분석	골드족,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변미리 외(2015)	서울시	군집분석	화이트 싱글, 골드 싱글, 노마딕 싱글, 불안한 독신자, 실버싱글
안현찬 외(2022)	서울시	-	독립형, 유목형, 고립형, 위기형
정혜은(2022)	인천시	군집분석	화이트 싱글, 블루 싱글, 실버 싱글
김성아 · 박민진(2022)	서울시	-	외로움군, 고립군, 고립우울군, 외로움 우울군

□ 1인가구 4개 집단별 특성과 정책방향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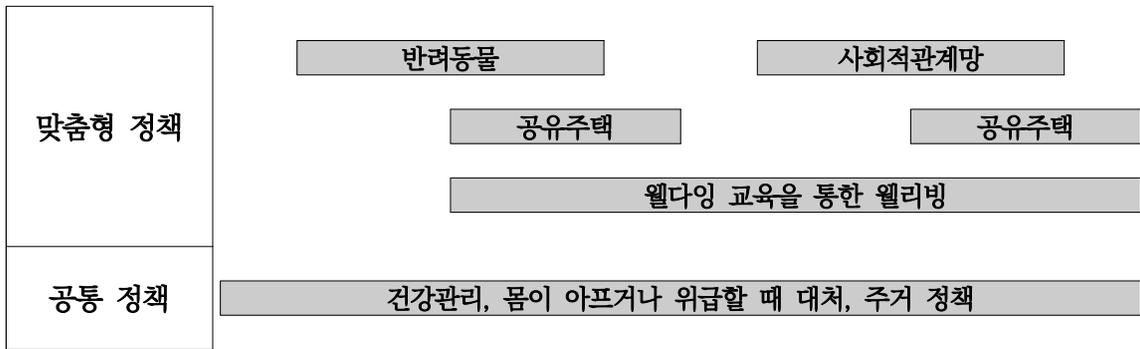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4개의 잠재집단 도출
  - 집단1: 생활안정형 - 주거 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2: 능동행복형 -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3: 잠재위기형 -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집단
  - 집단4: 다중결핍형 -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모두가 불안하며 비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1)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활용한 삶의질 변수(13개): 나의 생활수준 / 나의 건강 /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관계/ 나의 개인적인 관계/ 나의 안전 /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미래 안정성/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지역사회 환경의 질 /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 내가 하는 일/ 나의 경제적 수준

표 | 1인가구 유형별 주요 특징과 정책방향

구분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연령	42.3세	35.0세	50.7세	53.7세
소득	287.9만원	317.7만원	226.8만원	165.8만원
삶의질	65.7점	83.0점	48.0점	27.8점
주거	주거 안정성 높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낮음	주거 안전성 보통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낮음	주거 안정성 낮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높음	주거 안정성 낮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높음
건강	신체, 정신 건강 좋음	신체, 정신 건강 좋음	신체, 정신 건강 나쁨	신체, 정신 건강 나쁨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평균 이하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평균 이하	사회적 고립 높으나 은둔, 자살생각 보통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높음
1인가구 원인	자발 70.5%	자발 81.8%	자발 51.0%	비자발 56.8%

주거 안정성, 소득 안정성      높은 삶의질 자발적 1인가구      일자리, 주거 불안, 높은 사회적 고립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불안, 비자발적 1인가구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은 주거, 안전, 건강 및 관계망을 포괄하나 특정 세대에 편중
  - 주거 관련 사업은 청년 1인가구에 집중 되어 있음.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의 비율 높고 1인가구 지속기간이 길며,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수원시 1인가구 8개 사업 중 5건이 청년만 지원하고, 나머지 3건 중 <주택 물색, 계약 지원>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주이용자일 가능성이 높음
    - 주거분야 정책 사업은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서비스로 구분됨. 주거 지원 혜택이 큰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는 모두 청년 대상 사업으로 구성
  - 안전 관련 사업은 여성 1인가구, 안전 장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 안전 분야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의 여성을 주로 지원하고, 경제 및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음. 성별은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여성이 주이용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안심택배보관함>까지 포함해서 5개 사업 중 4건이 여성을 대상으로 함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 수원시 기존 사업 5건 중 4건은 장비, 1건은 교육으로 정책 수단의 편중 있음.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안전상의 문제에 기반할 때, 장비와 교육 위주의 지원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발굴 필요
- 건강 및 관계망 사업은 노년 정책 다수, 서비스 접근성,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한계 보임
  - 건강 및 관계망 분야 사업은 성별을 특정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 세대별로는 노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건강안전재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
  -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건강관리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접근성,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보임

표 | 수원시 1인가구 사업 분석

영역	사업명	지원 대상			정책수단
		성별	세대	취약	
주거	청년 월세 지원	전체	청년	-	주거비 보조
	새빛 청년존	전체	청년	무주택자	주택 공급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전체	청년	시설 퇴소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전체	청년	-	주거비 보조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전체	청년	-	주거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클린 서비스	전체	전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주거 서비스
	주택 물색, 계약 지원	전체	전체	주거취약 계층	주거 서비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전체	전체	-	주거 서비스
안전	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여성	전체	-	물리적 장치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전체	전체	-	물리적 장치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여성	청년, 중장년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물리적 장치
	가족여성회관 안전 프로그램*	여성	전체	-	서비스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전체	전체	화재안전취약층	물리적 장치
건강/관계망	청년 고민상담소	전체	청년	-	서비스
	초거대 시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체	전체	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수원새빛돌봄 운영	전체	전체	중위소득 75%이하	경제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체	노년	돌봄 필요자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노년	안전취약층	물리적 장치
	방문건강관리	전체	노년	건강취약층	서비스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전체	전체	-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	전체	노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홀몸어르신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온가족돌봄사업	전체	전체	취약위기가구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전체	중장년	-	서비스
	둘레사람모임	남성	노년	독거노인	서비스
	'온동네돌봄' 서로돌봄마을 조성	전체	전체	-	서비스
	뜨개뜨개	여성	노년	독거노인	서비스

## 정책제언

- 수원시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 상이, 세대별 특성에 맞는 추가 정책 발굴 필요
  - 주거 안전성 낮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주거 안정망 구축, 정서적 회복 지원 필요
    - 수원시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빛 청년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
    - 2024년 7월부터는 학업과 취업으로 수원으로 진입하는 자발적 1인가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유스호스텔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 거처를 제공
    - 주거 취약 1인가구에게 이사차량 지원,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주거 정책,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예: 제주도의 슬기로운 1인 생활) 추가 발굴 필요
  - 세대 내 이질성(소득, 주거 격차)이 높으며, 정신건강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필요
    - 중장년 1인가구는 재취업 기회가 낮고 좋은 일자리로 이직이 어려움. 2024년부터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 강화 필요
    - 이직과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 마주봄매니저(서울) 도입 고려
  - 다중노쇠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을 받는 비율 높은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 방지 및 건강관리 사업 필요
    - 노년 1인가구는 범죄 대처에 미흡하고 외로울 때 아무것도 못하는 비율 높음. 또한 사회적 고립 비율 또한 높음. 노년 1인가구의 고립 예방을 위해 수원시는 홀몸어르신 안부 건강음료지원 사업,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추가로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우리동네 이웃사촌 사업 등의 도입 고려

표 | 1인가구 세대별 특성과 정책

구분	청년1인가구	중장년1인가구	노년1인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불안전성, 주거비 부담, 주거 불편함 높음</li> <li>• 우울 비율 높으며, 자살 생각의 이유는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며 음주와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음</li> <li>• 차별이나 무시, 은둔경험이 많으며, 10명중 1명은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 안정성 높지만,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 높음</li> <li>• 범죄 대처에 미흡, 외로울 때 아무것도 못하는 비율, 사회적 고립 비율 높음</li> </ul>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구분	청년1인가구	중장년1인가구	노년1인가구
정책방향	• 주거 안전망 구축, 정서적 회복 지원 필요	• 경제적 지원(중장년 재취업), 지역자원과 연계, 돌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사회적 고립 방지(돌봄 망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관리(홈헬스케어, 운동 등)
기존 정책 (-2023)	• [주거] 새빛 청년존, 청년 월세지원, 수원전월세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쉼어하우스 • [정서적 회복] 청년고민상담소	• [지역자원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 [사회적 고립]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 사 예방, AI 활용 위기 가구 발굴지원 •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신규 정책 (2024-)	• 새빛호스텔	• 중년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가 고려 정책	• [주거] 싱글 익스프레스(서울), 싱글 홈클리닝(서울) • [정서] 슬기로운 1인생활(제주)	• [일자리] 마주봄매니저 운영(서울)	• [고립] 우리동네 이웃사촌 사업(부산)

###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은 건강, 주거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되, 유형별 맞춤 정책 필요

- 수원시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건강관리,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주거 정책을 필요로 함
  - 4개 집단 모두 현재 관심사 1순위는 건강관리이며, 시급한 정책은 주거정책으로 인식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모두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을 꼽아

### ○ 수원시 1인가구 유형별 맞춤 정책 필요

-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 중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가구는 9.7%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는 26.8-28.3%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보고서(2018)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전후를 비교했을 때,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운동량은 증가함. 즉 반려동물 양육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인식을 증진시키고 신체활동 또한 증가시킴. 따라서 1인가구가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은 일상생활 불편을 주로 혼자서 해결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집단임.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 정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 구축이 중요. 현재 수원시는 수원 ON 청년(우만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수다살롱(건강가정지원센터), '뜨개뜨개(여성 독거노인 뜨개질 나눔 동아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능동행복형과 다중결핍형은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공유주택 거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낮은 주거비이며, 능동행복형은 개인 사생활 보장, 다중결핍형은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편리한 교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은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높은 집단임. 3개 집단은 웰다잉 교육을 통한 웰리빙 정책을 통해 1인가구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수원시는 1인가구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7대 정책 방향, 10개 신규 정책 제안

- 1인가구 실태조사 분석 및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1인가구 정책 방향은 크게 7가지로 설정 가능하며, 해당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수원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필요

-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예방적 조치 필요
-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통합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정기적인 사업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
- 1인가구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필요

- 앞서 기술한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신규 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 수원시 1인가구 신규 정책 제안

영역	사업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회적 관계망 / 건강	몸, 마음 건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li> <li>• 심리전문가와와의 1:1 상담, 주 1회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혼자서 건강한 음식을 해먹는 방법 교육, 금연 및 금주 교육 및 상담</li> <li>• 디지털 헬스케어디바이스를 활용한 청년의 건강데이터 수집, 상담 및 피드백</li> </ul>
사회적 관계망 / 건강	숲에서 나와 우리를 찾다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체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숲체험 워크숍: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자연 산책, 명상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연계, 자기 탐색 등</li> <li>• 정책대상지: 광고 삼림욕장, 영흥숲공원</li> </ul>
사회적 관계망 / 건강	건강한 한끼, 건강한 하루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뷰에서 필요 프로그램으로 '요리 프로그램' 제안</li> <li>• 영양가가 보장되어 있는 간편식 요리 수업(전문가 교육), 질병 예방,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흡연 및 음주 등 개인 맞춤형 건강행동 교육 제공 등</li> </ul>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영역	사업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회적 관계망 / 건강	디지털 건강관리 교육	중장년/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li> <li>• 디지털 기초 교육, 스마트폰 및 태블릿 활용법 교육, 건강관리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적 건강관리 실습 등</li> </ul>
건강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의 인지저하 및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중장년/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AI 로봇 등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인지기능 평가 및 인지개선 프로그램 제공 필요</li> <li>•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한 인지 기능 자가 진단 앱 사용 교육 및 검진 실시</li> <li>•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 퍼즐, 퀴즈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li> </ul>
주거	커뮤니티 일자리 결합형 매입임대 주택 공급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는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에 속한 취약 남성 대상</li> <li>• 사업 대상지 발굴은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에 속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파악해 사업 수요·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li> <li>• 시범사업은 수원시가 직접 또는 경기도나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해 실시</li> </ul>
주거	1인가구 주택 개조 지원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보장하려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 입소가 아닌 “원래 살던 곳에서 늙어”(ageing in place)갈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지원이 필요</li> <li>• 중소득층 노인 1인가구를 위한 고령친화 주택 개조 지원은 수원시 1인가구 중 잠재위기형에 특화된 사업</li> <li>• 주택 내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와 가드레일 설치, 고령자용 변기 및 싱크대 교체 등 고령친화 시설 설치로 단열, 위생, 방수, 도배 등 일반적인 주택성능 개조와 구분</li> </ul>
주거 /사회적 관계망	민간협력형 공유 주택 공급	중고령/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택이나 민간 셰어하우스는 대부분 청년 세대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유형에 속한 장년 남성, 노년 남성 및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부족</li> <li>• 임대료는 사회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공간은 중고령자의 주거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주택 내 입주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 부엌, 식당, 거실, 운동시설, 작업장 등을 설치하고 공동 식사와 운동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li> </ul>
안전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원	주거 및 방법 취약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갖는 안전 우려는 귀갓길, 방치된 공간 등에서 폭력 범죄에 노출된 경우임</li> <li>• 아파트에 비해 공동현관 출입카드, 경비원, 옥외 감시카메라 등이 부족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건물 입구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필요</li> <li>• 신청한 주택에는 완공 이후에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연접한 골목길 안전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담장 사각지대 해소, 1층 주차장 조명 및 CCTV 설치 등을 지원</li> </ul>

영역	사업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안전	배달라이더와 연계한 안심살피미 운영	주거 및 방법 취약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시간에 골목길 곳곳을 자주 방문하는 민간 서비스와 협력하여 방법 범위와 빈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 가장 적합한 대상 중 하나는 배달 라이더임</li> <li>• 지자체 또는 경찰과 협약을 맺은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를 대상으로 안심돌보미 활동 신청 받음. 행정당국은 배달 라이더가 안심돌보미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시간대와 지역을 설정하고, 이 시간과 장소에 배달을 하는 라이더는 골목길, 방치된 공간, 공사장, 주차장 등 범죄 발생 두려움이 큰 장소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 신고를 받은 행정당국은 상황에 따라 안심보안관, 경찰 등 적절한 인력에게 연계해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함. 행정당국은 배달 라이더가 서행을 하면서 안심 돌보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배달비 일부 보조</li> </ul>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에 기반하여 다음의 연구 필요

**[과제1] 수원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자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내용 보완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1인가구를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함. 그중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이 높은 잠재위기형임. 정책 우선순위인 잠재위기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반영할 필요 있음

**[과제2] 수원시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 중요
  - 현재 수원시 1인가구팀이 다루는 정책 범위 넓음. 전달체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 연구 필요

**[과제3] 1인가구의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에 관한 연구**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에 취약, 1인가구의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비만, 면역 체계 악화, 불안, 우울증, 인지 저하 및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한 위험이 높음. 1인가구는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측면에서 취약 집단에 해당함. 따라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주제어: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유형화, 잠재프로파일



# 차례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제1절 국내외 현황 .....	13
제2절 국내외 정책과 제도 .....	31

## 제3장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61
제2절 기초분석 .....	66
제3절 유형화 분석 .....	134
제4절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53

## 제4장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및 수요 분석

제1절 1인가구 정책 분석 .....	183
제2절 1인가구 정책수요 분석 .....	188

## 제5장 결론

제1절 수원시 1인가구 정책방향과 제언 .....	199
제2절 향후 연구 제언 .....	214

# 표차례

표 1-1   1인가구 비율(2000-2023)	5
표 1-2   설문지 검토 개요	9
표 1-3   실무자 FGI 개요	10
표 1-4   취약 1인가구 FGI 개요	10
표 2-1   일본의 지역별 1인가구 비율	20
표 2-2   일반가구 및 1인가구 증가 추이 (1990-2022)	21
표 2-3   시도별 1인가구 비율 추이 (1995-2022)	22
표 2-4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변화(2000-2022)	23
표 2-5   성별 1인가구 변화(2000-2022)	25
표 2-6   만20세 미만 1인가구 변화(2000-2022)	27
표 2-7   청년(만21세-34세) 1인가구 변화(2000-2022)	27
표 2-8   중장년(만35세-64세) 1인가구 변화(2000-2022)	28
표 2-9   노년(만65세 이상) 1인가구 변화(2000-2022)	29
표 2-10   지역포괄센터 설치 기준	42
표 2-11   지역포괄센터 주요 사업	43
표 2-12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정책	52
표 2-13   1인가구 조례 제정 현황	53
표 2-14   서울시 1인가구 정책	54
표 2-15   1인가구 프로그램	55
표 2-16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2024년 기준)	56
표 2-17   경기도 1인가구 사업 현황	57
표 2-18   수원시 1인가구 사업 현황	58
표 3-1   조사개요	61
표 3-2   조사문항	62
표 3-3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	63
표 3-4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비율	63
표 3-5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목표 표본 수	64

표 3-6   층화변수(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가중치 .....	64
표 3-7   수원시 1인가구 조사방법별 실제 조사 완료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	65
표 3-8   수원시 1인가구 조사방법별 조사완료 사례 수(가중치 적용 후) .....	65
표 3-9   성별·연령별·세대별 분포 .....	66
표 3-10   성별·연령별·세대별 교육수준 .....	67
표 3-11   성별·연령별·세대별 혼인상태 .....	67
표 3-12   1인가구 지속기간 .....	68
표 3-13   1인가구 이유(1순위) .....	69
표 3-14   1인가구 만족도 .....	70
표 3-15   삶의 요소별 만족도 .....	70
표 3-16   1인가구 좋은 점(1순위) .....	71
표 3-17   1인가구 힘든 점(1순위) .....	72
표 3-18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1순위) .....	73
표 3-19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해결 방안 .....	74
표 3-20   차별이나 무시 경험 .....	75
표 3-21   차별이나 무시를 한 사람(중복응답) .....	76
표 3-22   향후 1인가구 지속기간 .....	76
표 3-23   1인가구 형태 유지 시 예상하는 지속 연도 .....	77
표 3-24   향후 원하는 가구, 거주 형태 .....	78
표 3-25   1인가구 관심사(1순위) .....	79
표 3-26   반려동물 유무, 분양받은 시기, 반려동물 종류 .....	79
표 3-27   반려동물 키울 의향 .....	80
표 3-28   근로능력 정도와 구직활동 .....	81
표 3-29   구직활동 어려운 점 .....	82
표 3-30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83
표 3-31   일을 하지 않아 어려운 점 .....	83
표 3-32   경제활동 참여상태 .....	84
표 3-33   주된 일자리와 월평균 소득 .....	85
표 3-34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 .....	85
표 3-35   퇴직 계획 .....	86

표 3-36   노후 준비	87
표 3-37   노후준비 방법(1+2순위)	87
표 3-38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1+2순위)	88
표 3-39   소득과 소비(생활비)	89
표 3-40   소득분포	89
표 3-41   생활비 지출 비중	90
표 3-42   돌봄서비스	91
표 3-43   일상생활 돌봄 제공자(주된 돌봄 제공자)	92
표 3-44   돌봄 충분성	93
표 3-45   가족 돌봄	93
표 3-46   비동거 가족 돌봄 이유	94
표 3-47   생활비 부족 경험과 해결방법(1+2순위)	95
표 3-48   생활비 지원 수급 여부 및 생활비 지원받는 목적(1+2순위)	95
표 3-49   결핍 경험	96
표 3-50   주택유형	97
표 3-51   거주지 점유형태	98
표 3-52   주거비 부담 정도	98
표 3-53   세입자 경험(중복응답)	99
표 3-54   주거 선택 요인(1+2순위)	100
표 3-55   주택 선택 어려움(1+2순위)	101
표 3-56   주거 불안 요인(1+2순위)	101
표 3-57   거주지 안전성	102
표 3-58   거주지 불안 원인(1+2순위)	103
표 3-59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중복응답)	104
표 3-60   공유주택 인지도	104
표 3-61   공유주택 거주 의향	105
표 3-62   공유주택 거주 파트너	105
표 3-63   공유주택 거주 시 필요한 점(1+2순위)	106
표 3-64   범죄 안전 시설(있다 비율)	107
표 3-65   범죄 위험 장소(1+2순위)	108

표 3-66   노출된 범죄 유형 .....	109
표 3-67   범죄 대처 조치와 행동(중복응답) .....	110
표 3-68   주관적 신체건강 .....	111
표 3-69   신체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 .....	112
표 3-70   신체활동 동반자 .....	113
표 3-71   신체활동 하지 않는 이유 .....	114
표 3-72   만성질환 유병율 .....	114
표 3-73   진단받은 만성질환 .....	115
표 3-74   음주 빈도 .....	116
표 3-75   고위험 음주율 .....	116
표 3-76   주관적 정신건강 .....	117
표 3-77   우울증 .....	117
표 3-78   자살 생각 .....	118
표 3-79   자살 극복 방법 .....	119
표 3-80   외로움 .....	119
표 3-81   외로움 대처 방법(1+2순위) .....	120
표 3-82   먹거리 안정성 .....	121
표 3-83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1+2순위) .....	122
표 3-84   먹거리 불안정 이유(1+2순위) .....	123
표 3-85   식사 해결방법(1+2순위) .....	124
표 3-86   결식 이유 .....	125
표 3-87   소통 빈도(대면) .....	126
표 3-88   소통 빈도(비대면) .....	127
표 3-89   소통 장점 .....	127
표 3-90   사회적 고립 .....	128
표 3-91   은둔 경험 .....	128
표 3-92   은둔 원인(중복응답) .....	129
표 3-93   모임 및 단체 활동 경험(1+2순위) .....	130
표 3-94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1+2순위) .....	131
표 3-95   여가활동 .....	132

표 3-96   여가활동 동반자 .....	133
표 3-97   여가시간 충분성 .....	133
표 3-98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	135
표 3-99   집단 간의 삶의 질 차이 검증 .....	137
표 3-100   인구사회학적 특성 .....	138
표 3-101   1인가구의 삶과 인식 .....	140
표 3-102   경제활동 .....	142
표 3-103   복지 .....	144
표 3-104   주거 .....	145
표 3-105   안전 .....	147
표 3-106   건강과 건강행동 .....	148
표 3-107   여가 .....	149
표 3-108   사회적 관계망 .....	150
표 3-109   정책수요 .....	152
표 3-110   수원시 취약 1인가구 FGI 개요 .....	153
표 3-111   수원시 1인가구 FGI 주요 질문 내용 .....	154
표 3-112   심층인터뷰 개요 .....	170
표 3-113   기관인터뷰 주요 질문 .....	171
표 3-114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현황 .....	172
표 4-1   수원시 1인가구 사업 현황 .....	183
표 4-2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사업 .....	185
표 4-3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안전 분야 사업 .....	186
표 4-4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건강 및 관계망 분야 사업 .....	187
표 4-5   시급한 지원 정책 .....	188
표 4-6   정책적 지원 우선 순위 .....	189
표 4-7   정책적 지원 우선 순위(세부사항별) .....	189
표 4-8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생활안심) .....	190
표 4-9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주거안심) .....	191
표 4-10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돌봄) .....	192
표 4-11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맞춤형 사업) .....	193

표 4-12 | 1인가구 포털 이용 경험과 이용의향 ..... 195

표 4-13 | 1인가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196

# 그림차례

그림 1-1   OECD 주요국 1인가구	3
그림 1-2   전국 가구원수 변화(1인가구, 4인가구)	4
그림 1-3   수원시 가구원수 변화(1인가구, 4인가구)	4
그림 1-4   연구 단계별 구성	7
그림 1-5   설문 설계 과정	9
그림 2-1   전세계 1인가구 증가 현황	13
그림 2-2   전세계 1인가구 비율	14
그림 2-3   유럽의 1인가구 비율	15
그림 2-4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12, 2022)	15
그림 2-5   미국의 1인가구 비율	16
그림 2-6   지역별 미국의 1인가구 비율	17
그림 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	18
그림 2-8   일본의 1인가구 비율(1985-2020)	18
그림 2-9   일본의 1인가구 유형 변화(2005-2020)	19
그림 2-10   일본의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20)	19
그림 2-11   일본의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05-2020)	20
그림 2-12   시도별 1인가구 밀집도(2000-2022)	22
그림 2-13   전국, 경기도 1인가구(2010-2022)	24
그림 2-14   시도별 1인가구(2010-2022)	26
그림 2-15   수원시 구별 1인가구 변화	29
그림 2-16   수원시 행정동별 1인가구	30
그림 2-17   지역청년서포터센터	32
그림 2-18   Men's Shed Program의 주요 내용	33
그림 2-19   소피에룬드 코하우징	36
그림 2-20   캉캉모리	37
그림 2-21   Common 공간	38
그림 2-22   Common 앱	38

그림 2-23   뉴욕의 싱글 룸 .....	39
그림 2-2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42
그림 2-25   Connect2Affect 사회적 관계망 플랫폼 .....	46
그림 2-26   PNA의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 .....	47
그림 2-27   성남시 1인가구 정책 .....	58
그림 3-1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	135
그림 3-2   잠재집단별 삶의질 점수 분포 .....	136
그림 3-3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 분포 .....	171
그림 3-4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 전달체계 개편 .....	172
그림 4-1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	194
그림 4-2   IPA를 활용한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	195
그림 5-1   수원시 1인가구 정책 키워드 .....	206

## 부록

부록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	221
------------------------------	-----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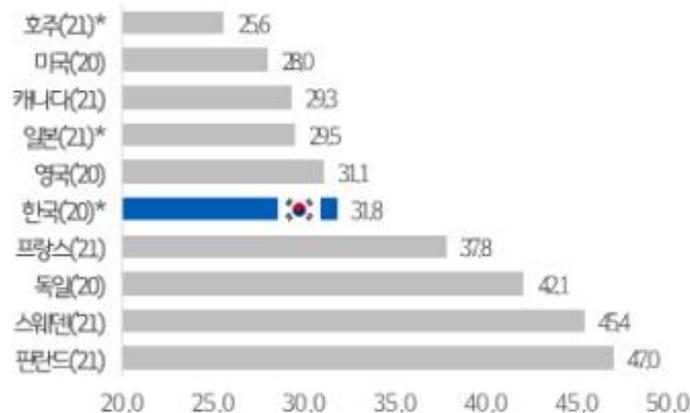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수원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 대응 필요
  - 1인가구 증가는 특수하고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
    - OECD 주요국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은 이미 40%를 넘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31.8%로 이미 30%를 넘어섬

그림 1-1 | OECD 주요국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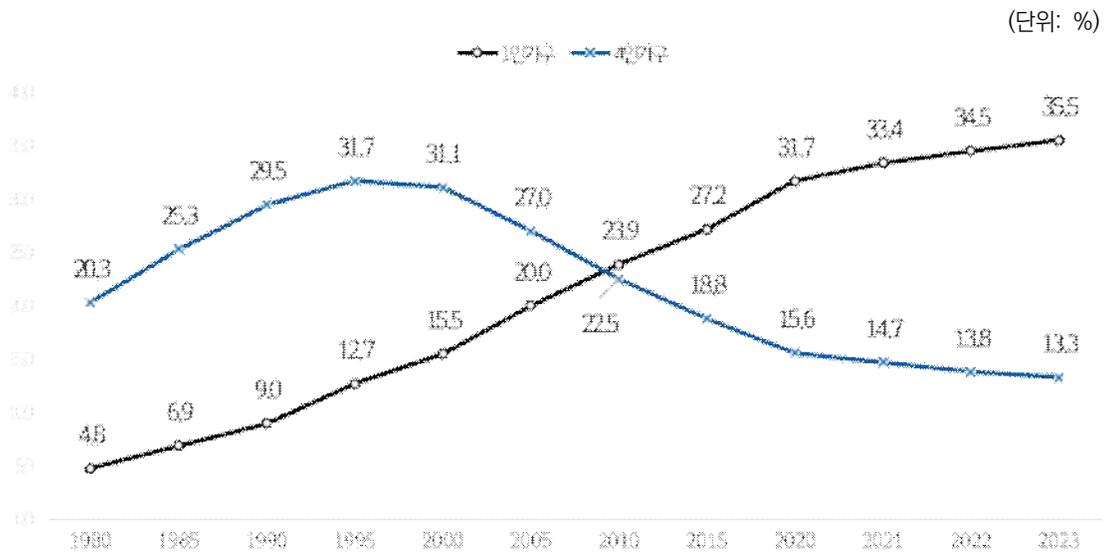
주: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

자료: 통계청(202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oe.cd/fdb-asia>)

- 한국의 일반화된 가구형태는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되고 있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4.8%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23년 기준 35.5%로 나타남. 반면에 4인가구 비율은 1995년 31.7%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여 2023년 기준 13.3%임. 즉,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더 이상 4인가구 중심이 아님

4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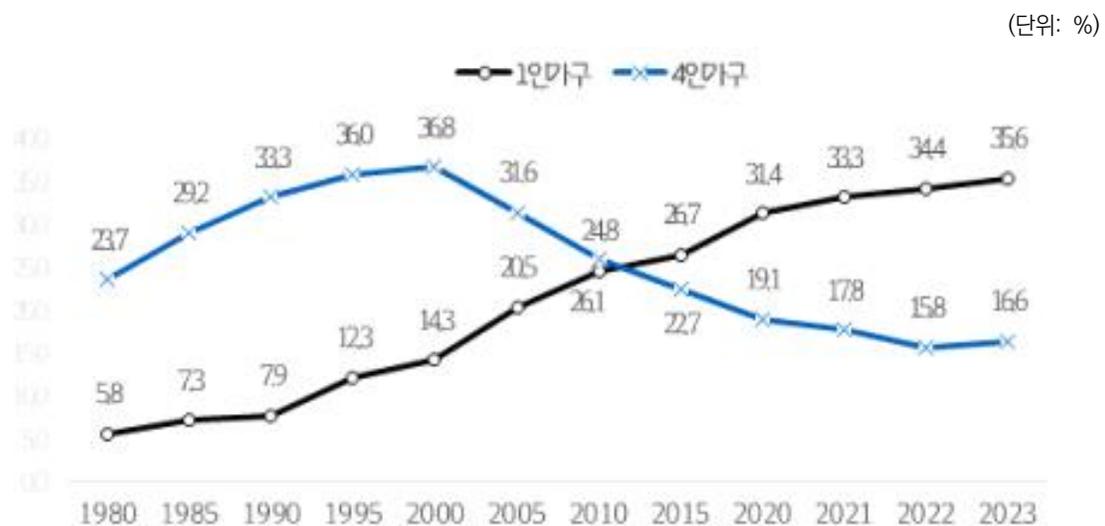
그림 1-2 | 전국 가구원수 변화(1인가구, 4인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수원시의 인구 분포 및 가구 특성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5.8%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35.6%로 나타남. 반면 4인가구 비율은 2000년 36.8%로 가장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15.8%로 가장 낮음. 그러나 2023년 4인가구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증가하여 16.6%로 나타남.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 역시 다양하게 발생

그림 1-3 | 수원시 가구원수 변화(1인가구, 4인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sup>1)</sup> 2023년 기준 35.6%로 전국 (35.5%)과 유사한 수준

- 수원시는 서울시 보다 1인가구 비율이 낮으나 수원시 인근의 용인, 화성, 성남시에 비해서도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수원에 학교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수원시의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1인가구 비율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표 1-1 | 1인가구 비율(2000-2023)

(단위: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15.5	20.0	23.9	27.2	31.7	33.4	34.5	35.5
서울	16.3	20.4	24.4	29.5	34.9	36.8	38.2	39.3
경기	12.6	16.9	20.3	23.4	27.6	29.2	30.2	31.2
<b>수원</b>	<b>14.3</b>	<b>20.5</b>	<b>24.8</b>	<b>26.7</b>	<b>31.4</b>	<b>33.3</b>	<b>34.4</b>	<b>35.6</b>
용인	11.9	12.7	15.1	19.3	23.3	24.6	25.5	26.2
고양	10.0	16.0	19.2	21.3	25.2	26.8	28.3	29.8
성남	13.0	18.2	23.0	27.1	31.2	32.6	33.4	34.5
화성	15.4	17.0	18.8	23.3	28.3	30.2	31.3	32.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 1인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세대별, 지역별 정책수요에 대응 필요

- 1인가구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1인가구 생애주기, 삶의 모습, 경제적 수준, 형성 원인 등에 따라 생활실태와 정책수요가 다양함. 수원시 1인가구도 형성원인, 삶의 형태가 다양하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범주와 정책수준을 결정하기 쉽지 않음
  - 1인가구의 이질성에 대한 접근은 주로 연령과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옴. 변미리 외(2008)에서는 연령별 특성을 기준으로 골드족,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로 구분한바 있고, 김현미(2017)에서는 노인 1인가구를 안전자립 노인, 관심필요 노인, 위기노인, 취약노인으로 구분함
  - 최근에는 연령과 세대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1인가구를 유형화하는 시도가 있음. 대표적으로 안현찬 외(2022)는 1인가구의 주요 원인(자발, 비자발)과 독립적인 삶을 살

1)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2018년 28.8%에서 2019년 30.0%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처음으로 30% 진입

수 있는 안정성 여부(경제적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를 기준으로 독립형, 유목형, 고립형, 위기형으로 구분

□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성을 보이는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취약 1인가구'를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 주거, 사회적 관계, 건강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임

- 경제측면에서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비취업자, 저소득층이 많고, 소득 불평등 수준 높게 나타나며(신미나, 2019; 윤승비·장건, 2018), 주거측면에서 1인가구는 전체가구 보다 단독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 높게 나타남(통계청, 2022). 이외에도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통계청, 2022). 따라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통해 1인가구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취약 1인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 있음

□ 수원시 1인가구 현황 및 욕구파악을 통해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 제공

○ 수원시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명확한 통계 및 욕구 파악이 필요

- 수원시는 민선8기 1인가구 종합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설정하고 1인가구 전담 팀(여성정책과 내 1인가구 지원팀)을 구성하고 1인가구 맞춤형 포털 '쏘옥'을 개설하는 등 정책 노력을 기울임. 또한 1인가구 지원조례(2023년 12월 29일)를 제정하여 1인가구 정책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함. 이에, 1인가구의 현황 및 욕구파악을 통해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질문과 내용

- 본 연구는 수원시 1인가구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며, 1인가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임
  - 본 연구 질문은 크게 3가지임
    - 수원시 1인가구 증가 현황, 원인, 분포는 어떠한가?
    - 수원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는 어떠한가?
    - 수원시 1인가구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수원시 1인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단계를 정리하면 [그림 1-4]와 같음

그림 1-4 | 연구 단계별 구성

단계	1인가구 현황 및 사례연구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수원시 1인가구 정책방향 설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현황 분석</li> <li>•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에 근거한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1인가구 정책방향 검토 및 분석</li> </ul>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전문가 자문</li> <li>• 사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li> <li>• 전문가 자문</li> <li>• 당사자 및 실무자 FG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li> <li>• 당사자 및 실무자 FGI</li> </ul>

### 2) 연구방법

#### □ 문헌 및 사례연구

- 문헌연구는 1인가구 국내외 현황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1인가구 설문 설계를 위함
  - 1인가구 설문 설계 시 서울시, 성남시, 구리시 등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설문구성을 살펴보았으며, 1인가구 정책은 경제(빈곤, 일자리), 주거, 복지(건강,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검토함

## 8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 국내 사례연구는 1인가구지원센터 및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례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간 구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봄
  - 국내 사례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립 운영중인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비롯해 송파구,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전국 최초로 조성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함
- 해외 사례연구는 수원시와 1인가구 특성이 유사하면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현장(일본 도쿄)을 방문하여 수원시의 적용방안을 모색
  - 일본 도쿄는 1인가구 중에서도 히키코모리, 독거노인 등을 향후 개입이 필요한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또한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 지역포괄지원센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며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에, 도쿄의 분쿄구 히키코모리지원센터, 에도가와구 복지부 생활원조제1과 히키코모리상담창구, 타치카와시 후치미지역포괄센터, 캄모리를 방문하여 1인가구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과 수원시 적용방안 모색

### □ 2차 자료 분석

- 1인가구의 증가 현황과 공간적 분포는 통계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
  -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원시 및 인근 지자체 1인가구 현황을 분석하고 수원시 1인가구 분포 특성을 확인함

### □ 설문조사

-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는 수원시민 1,075명을 대상으로 혼합조사 실시
  - 설문조사는 40대 이하는 웹조사, 50대 이상은 웹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웹조사는 SKT 가입자와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을 활용하였으며, SKT 가입자 중 수원시 1인가구로 추정되는 가입자 대상 문자를 발송(조사 안내문, 웹조사 링크)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이 부족한 쿼터는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을 통해 보완
- 설문지 구성을 위해 [그림 1-5]와 같은 단계를 거쳤으며, 설문지 검토는 전문가 검토(서면검토, 대면검토), 실국검토를 통해 확정됨

그림 1-5 | 설문 설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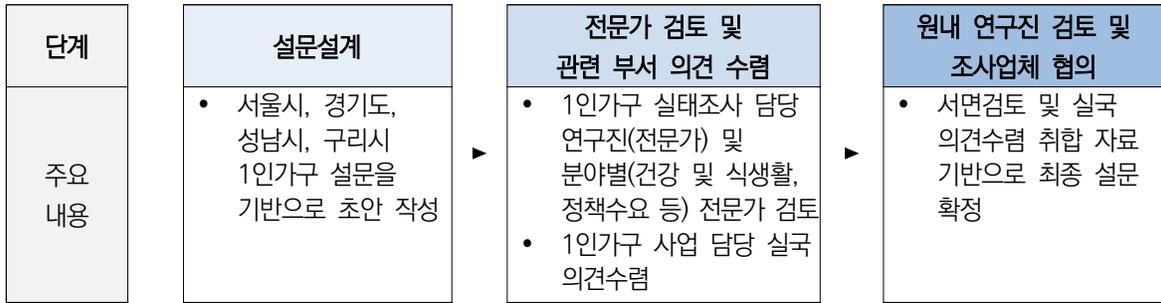


표 1-2 | 설문지 검토 개요

구분		일시	검토자	내용
전문가 검토	서면 검토	2024.02.29. -2024.03.07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창우(인제대학교 교수), 양소남(경기대학교 교수), 이정용(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구성과 조사 내용의 타당성</li> <li>신규, 수정/보완, 삭제 문항 제안</li> </ul>
	대면 검토	2024.03.05	김성아(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변미리(서울연구원 본부장),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실국검토		2024.02.28	쏘옥 토크 참여 실국 및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수정/보완, 삭제 문항 제안</li> </ul>

- 설문지 확정 후 웹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2024년 3월 28부터 4월 2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1인가구의 경제주거·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특징을 비교 분석함

#### □ 1인가구 실무자 심층인터뷰

- 1인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1인가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 실무자 심층인터뷰는 1인가구지원센터 실무자(센터장, 팀장)를 대상으로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결과는 연구에 활용됨을 동의 받고 진행함
  - 1인가구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센터 운영현황(인력과 예산, 공간활용 등)과 주 이용자 특징 및 만족도,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 1인가구 사업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함
  - 1인가구 실무자 심층인터뷰 이후에는 1인가구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 내부를 견학하고 수원시 적용방안을 모색함

표 1-3 | 실무자 FGI 개요

구분	일시	참석자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3.29.	인터뷰이: 엄준(서초1인가구지원센터장), 김지훈(복지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24.04.19. 2024.06.24.	인터뷰이: 곽은정(교육문화팀장), 이혜민(1인가구담당팀원),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송파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5.10.	인터뷰이: 김하정(1인가구지원센터 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5.17.	인터뷰이: 고선(1인가구지원센터 총괄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 취약 1인가구 FGI

○ 수원시 거주 취약 1인가구 대상으로 FGI 진행

- 노년 1인가구는 능실복지관의 협조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수원시 건강가정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적 관계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청년 1인가구는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의 협조를 받아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방에서 수원으로 와서 1인가구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함
- 취약 1인가구 FGI는 총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결과는 연구에만 활용됨을 동의 받고 진행함
- 1인가구 FGI 질문은 1인가구의 삶, 생계와 일, 건강과 식생활,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망, 고립, 주거, 정책수요 순으로 진행함

표 1-4 | 취약 1인가구 FGI 개요

구분	일시	참석자
노년	2024.06.18.	인터뷰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년 4명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정보라
중장년	2024.06.24.	인터뷰이: 사회적 관계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불안정한 중장년 2명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청년	2024.07.03.	인터뷰이: 수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지방에서 수원으로 와서 1인가구가 된 청년 4명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 제2장

#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제1절 국내외 현황

제2절 국내외 정책과 제도



#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 제1절 국내외 현황

### 1. 해외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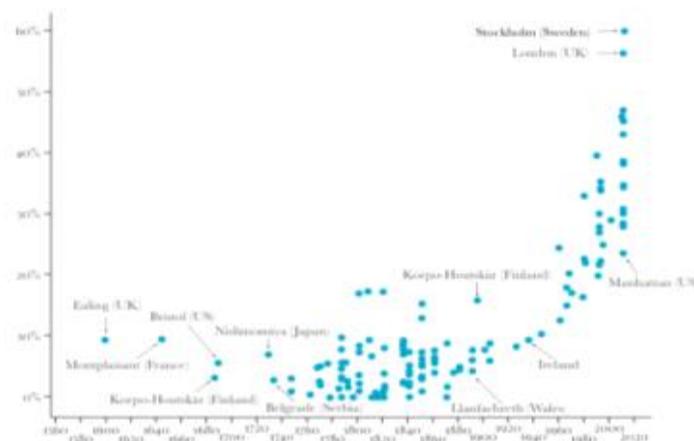
#### 1) 전 세계 1인가구

##### □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

- 1인가구 증가 원인은 소득의 증가,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과거보다 혼자 생활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외에도 낮은 결혼율과 이혼의 증가 등이 1인가구 증가로 이어짐
- 역사학자 키스 스넬(Keith Snell)은 2017년 연구에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역사적 맥락과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
  - 1인가구 비율은 근대 초기부터 19세기까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주로 10% 미만이었으나 20세기에 1인가구 증가가 시작되어 1960년대에 가속화됨. 현재 1인가구 비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2012년 스톡홀름의 1인가구 비율은 약 60%로 나타남

그림 2-1 | 전세계 1인가구 증가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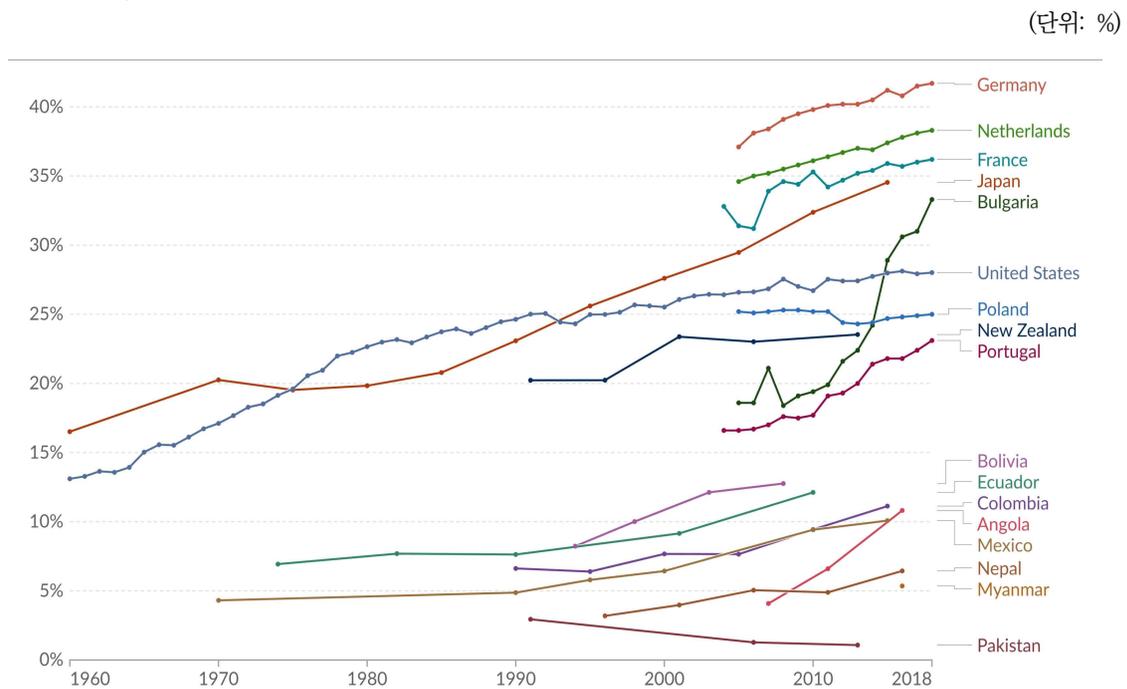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grapher/one-person-households>)

□ World Economic Forum(2020), 1인가구 증가 현상 주목하고 국가별 추이 비교(World Economic Forum, 2020).

- 1인가구의 증가는 100여 년 전 초기 산업화된 국가에서 시작되어 1950년경 가속화
  - 2018년 기준 독일의 1인가구는 40%를 넘어섰고,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35%를 넘어섬
  - 반대로 일부 국가(팔레스타인, 미얀마)는 1인가구 비율이 여전히 10% 미만임

그림 2-2 | 전세계 1인가구 비율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grapher/one-person-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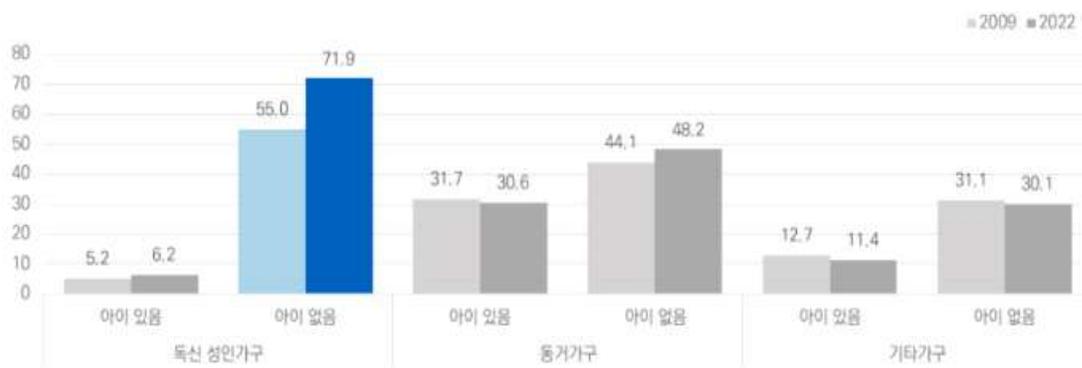
## 2) 유럽 및 미국의 1인가구

□ EU, 혼자 사는 성인가구 증가

- EU 노동력 조사(EU-LFS)에 따르면, 독신 성인가구는 2009년 55.0%에서 2022년 71.9%로 증가(유럽통계청 홈페이지).
  - 2022년 기준 EU의 총 가구 수는 1억 9,800만 명, 이중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 가구(7,190만 명), 그 뒤는 자녀가 없는 부부(4,820만 명), 자녀가 있는 부부(3,060만 명)순임
  - 2009년 5,500만 명이던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가구는 2022년 7,190만 명으로 증가

그림 2-3 | 유럽의 1인가구 비율

(단위: 백만 명)

출처: 유럽 통계청(<https://ec.europa.eu>)

□ 영국의 1인가구, 2012년 29.0%에서 2022년 29.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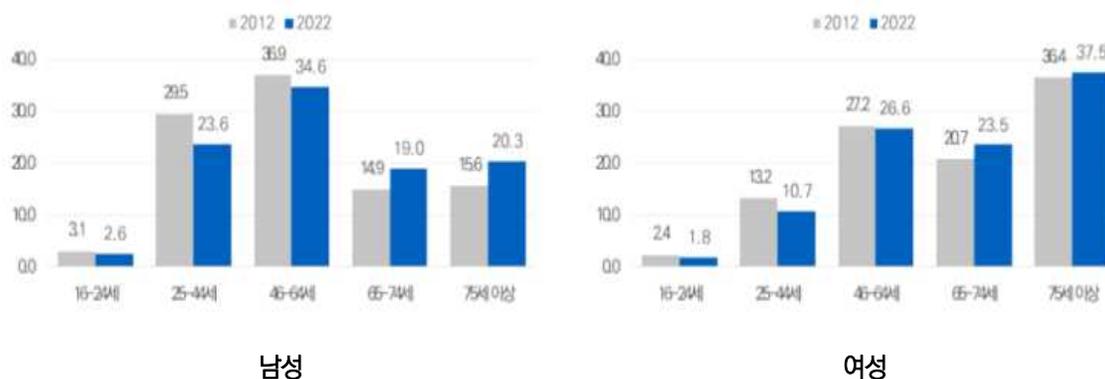
- 영국 통계청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1인가구는 2012년 29.0%에서 2022년 29.6%로 증가함. 즉 영국의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임

- 2022년 기준 영국의 1인가구는 830만 명이며, 여성이 440만 명(53%), 남성이 390만 명(47%)임

- 1인가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22년 남성 1인가구는 46-64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22년 기준 75세 이상 남성 1인가구 비율은 20.3%, 여성 1인가구 비율은 37.5%임. 즉, 남성 5명 중의 1명, 여성 3명 중 1명은 75세 이상임. 65세 이상 여성 독거노인 비율이 다수 차지

그림 2-4 |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12, 2022)

(단위: %)



원자료: 영국 노동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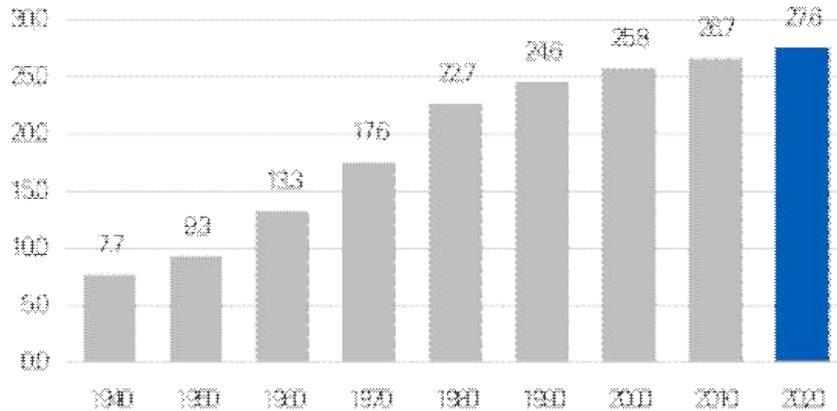
출처: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ons.gov.uk>)

□ 미국 1인가구, 1940년 7.7%에서 2020년 27.6%로 증가

-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1인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함. 1940년 7.7%이던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20%를 넘었고, 2020년 27.6%를 차지함. 즉,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임

그림 2-5 | 미국의 1인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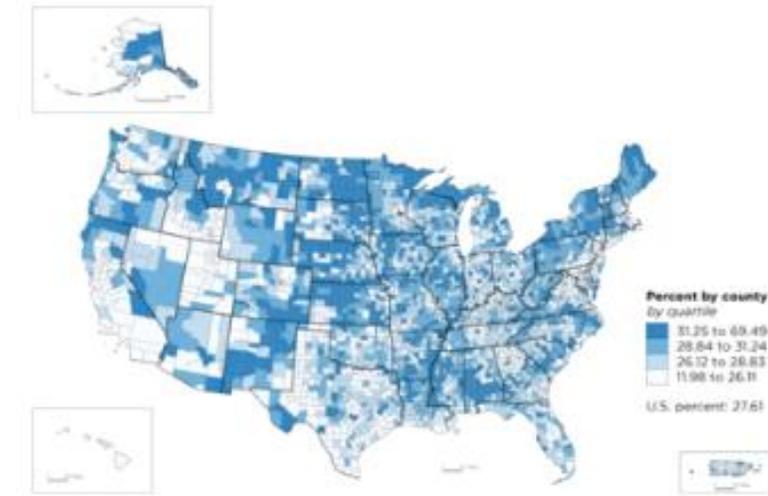


주: 1940, 1950년 데이터는 알래스카와 하와이 1인가구 비율이 제외된 수치임  
 원자료: U.S. Census Bureau, 1940-1990 Censuses; 2000 Census Summary File 2; 2010 Census Summary File 1; 2020 Decennial Census Demographic and Housing Characteristics File  
 출처: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census.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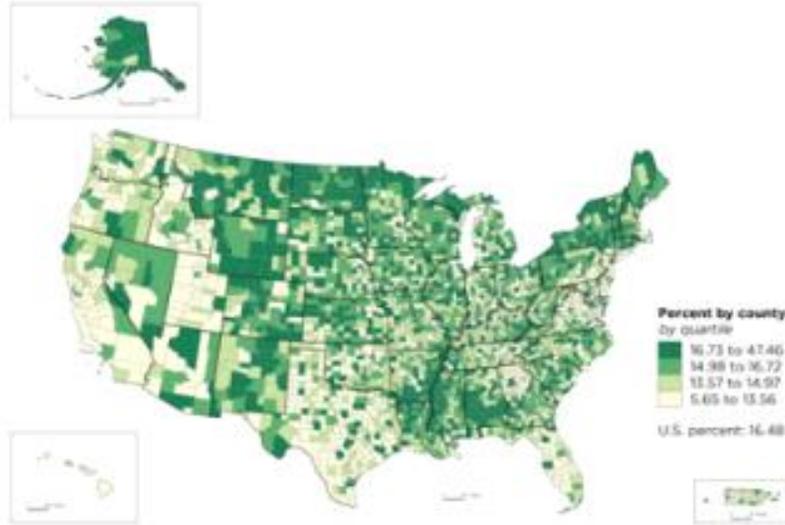
- 1인가구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서부(예: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등)와 앨라배마, 미시시피에 집중되고 있으며, 15-64세 1인가구 비율 또한 미시시피 강 삼각주 인근에서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서부 지역이며 특히 플로리다, 오레곤은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 노인 1인가구는 시골지역에서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래스카와 유타 지역은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림 2-6 | 지역별 미국의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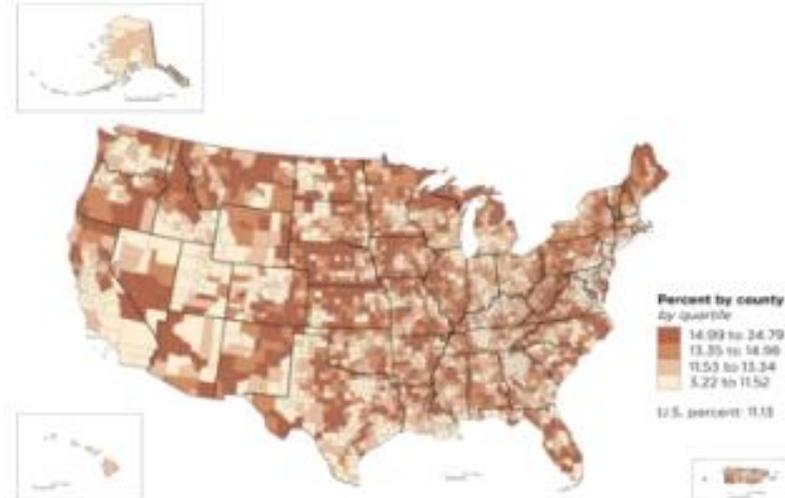
전연령  
1인가구



15-64세  
1인가구



65세 이상  
1인가구



원자료: U.S. Census Bureau, 2020 Census Demographic and Housing Characteristics File  
출처: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census.gov>)

### 3) 아시아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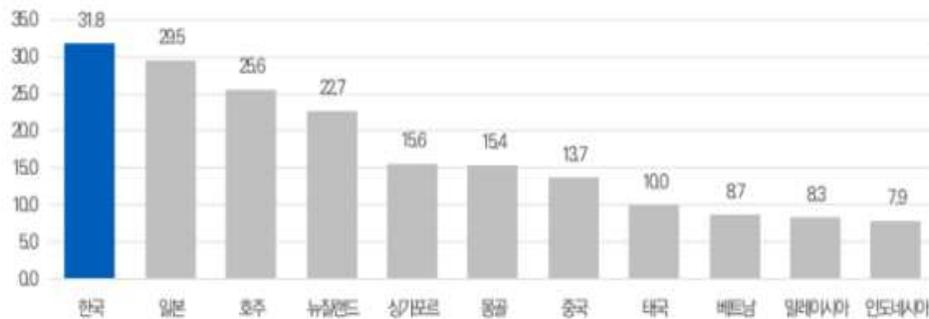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한국의 1인가구 비율 가장 높음

○ OECD 아시아-태평양 지역<sup>1)</sup>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일본(29.5%), 호주(25.6%) 순임

- 한국, 일본, 호주의 1인가구 비율이 25%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은 1인가구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남

그림 2-7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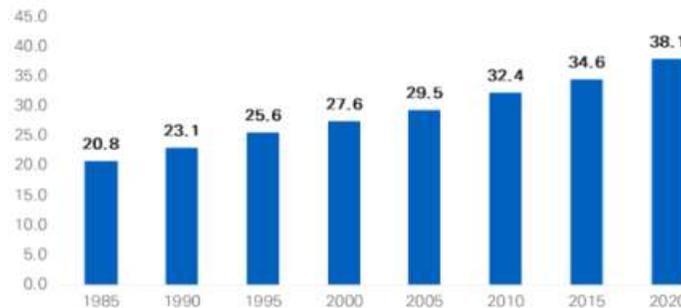
출처: OECD,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족 데이터베이스(<https://oecd-korea.org>)

□ 일본의 1인가구 비율은 38.1%, 소형 가구 증가 현상 확인

○ 일본의 1인가구는 1985년 20.8%에서 2010년 30%를 돌파하였으며, 2020년 기준 38.1%로 나타남

그림 2-8 | 일본의 1인가구 비율(1985-2020)

(단위: %)



주: 1985-2015년 자료는 통계연감 2018, 2020년 자료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확보

출처: 일본 통계청, 통계연감 2018, 2020년 인구 센서스

1)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1인가구 비율은 2005년 29.5%에서 2020년 38.1%로 증가하였고 소형가구(2-3인가구)는 2005년 57.7%에서 2020년 54.2%로 소폭 감소

그림 2-9 | 일본의 1인가구 유형 변화(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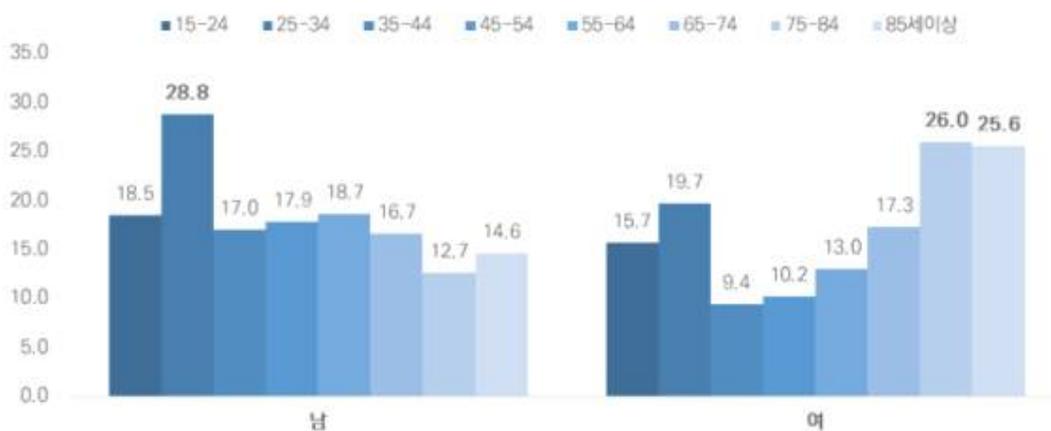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통계청, 국세조사([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 연령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5-34세의 1인가구 비율이 28.8%로 가장 높고, 여성은 75-84세의 1인가구 비율이 26.0%로 가장 높음. 여성의 경우 15세-64세까지의 각 연령 계급에서 남성보다 1인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남성보다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0 | 일본의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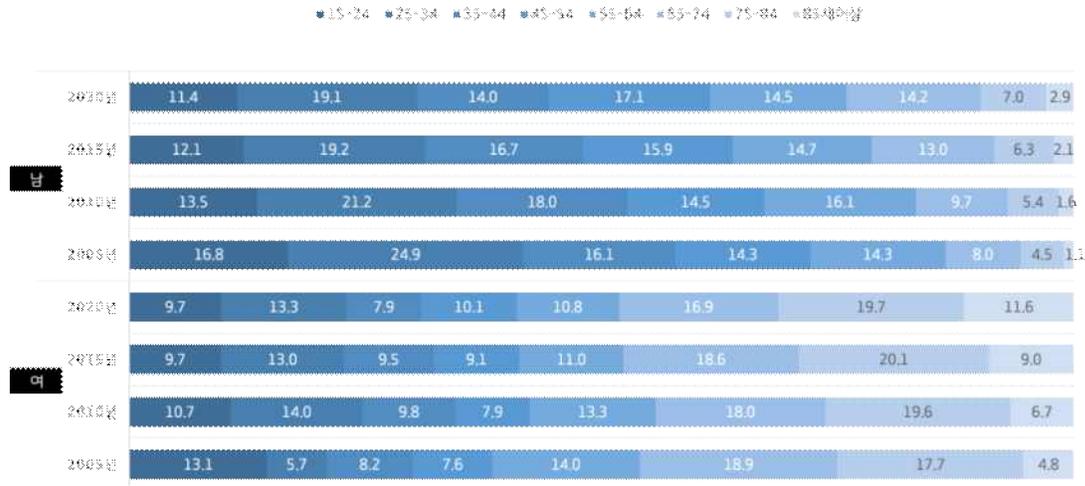
출처: 일본 통계청, 국세조사([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 고령화 되고 있는 일본의 1인가구

- 1인가구 비율을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05년 이후를 보면 65세 이상은 남녀 모두 일관되게 상승함. 남성은 44세 이하 집단에서는 꾸준히 1인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연령집단에서의 1인가구 비율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짐

그림 2-11 | 일본의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05-2020)

(단위: %)



출처: 일본 통계청, 국세조사([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 일본의 지역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도쿄의 1인가구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사카(41.8%), 교토(41.2%) 순임

표 2-1 | 일본의 지역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순위	지역명	비율	순위	지역명	비율	순위	지역명	비율
1	도쿄	50.2	11	히로시마현	37.3	21	이시카와현	34.7
2	오사카	41.8	12	미야기현	36.9	22	카가와현	34.4
3	교토	41.2	13	야마구치현	36.5	23	나가사키현	34.4
4	후쿠오카현	40.7	14	에이치현	36.3	24	사이타마현	34.0
5	홋카이도	40.5	15	치바현	36.3	25	쿠마모토현	33.9
6	카나가와현	39.2	16	오이타현	36.0	26	이와테현	33.3
7	고치현	39.1	17	효고현	35.9	27	시마네현	33.2
8	카고시마현	38.9	18	미야자키현	35.8	28	후쿠시마현	33.1
9	에히메현	37.5	19	도쿠시마현	35.6	29	아오모리현	33.1
10	오кина와현	37.4	20	오카야마현	35.6	30	미에현	33.0

출처: 2020년 국세조사

## 2. 국내 1인가구 현황

### 1) 1인가구 현황

□ 한국의 가구구조, 4인가구 중심에서 1-2인가구로 소형화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4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였으나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음

- 1990년 9.0%이던 1인가구는 2005년 20%대, 2019년 30%대로 진입하였으며 2022년 기준 34.5%로 나타남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감소

표 2-2 | 일반가구 및 1인가구 증가 추이 (1990-2022)

(단위: 명, %, 명)

구분	일반가구 수	1인가구 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1990	11,354,540	1,021,481	9.0	13.8	19.1	58.1	3.7
1995	12,958,181	1,642,406	12.7	16.9	20.3	50.1	-
2000	14,311,807	2,224,433	15.5	19.1	20.9	44.5	3.1
2005	15,887,128	3,170,675	20.0	22.2	20.9	37.0	2.9
2010	17,339,422	4,142,165	23.9	24.3	21.3	30.5	2.7
2015	19,111,030	5,203,440	27.2	26.1	21.5	25.2	2.5
2016	19,367,696	5,397,615	27.9	26.2	21.4	24.5	2.5
2017	19,673,875	5,618,677	28.6	26.7	21.2	23.5	2.5
2018	19,979,188	5,848,594	29.3	27.3	21.0	22.5	2.4
2019	20,343,188	6,147,516	30.2	27.8	20.7	21.1	2.4
2020	20,926,710	6,643,354	31.7	28.0	20.1	20.1	2.3
2021	21,448,463	7,165,788	33.4	28.3	19.4	18.8	2.3
2022	21,773,507	7,502,350	34.5	28.8	19.2	17.6	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3.9%였던 1인가구는 2022년 34.5%로 증가

- 시도별 1인가구 비율(2022년 기준)을 살펴보면, 대전이 38.5%로 가장 높고 서울(38.2%), 강원(37.2%), 충북과 경북(각각 37.0%) 순

-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30.2%, 다음으로 인천(31.0%) 순

표 2-3 | 시도별 1인가구 비율 추이 (1995-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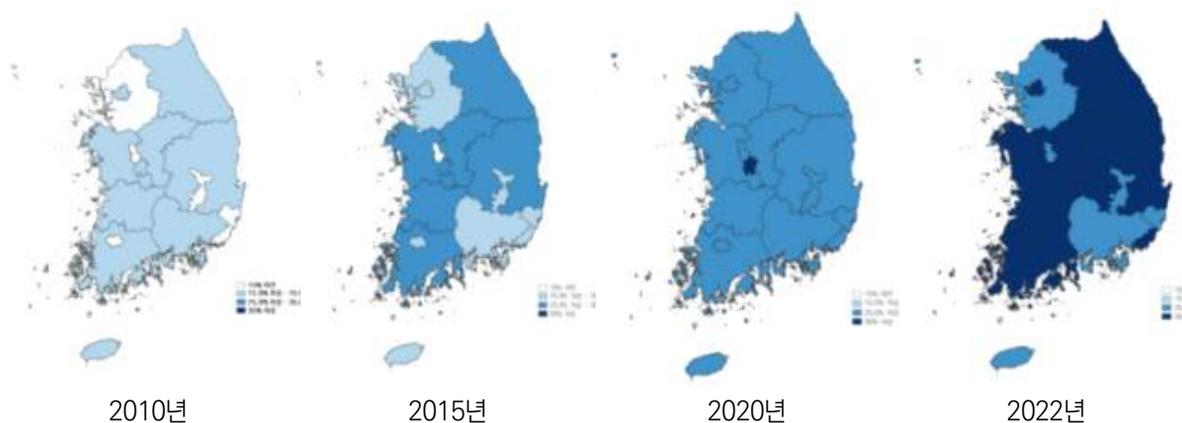
시·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전국	12.7	15.5	20.0	23.9	27.2	31.7	33.4	34.5
서울	12.9	16.3	20.4	24.4	29.5	34.9	36.8	38.2
부산	10.7	13.8	18.8	23.4	27.1	32.4	34.0	35.3
대구	11.8	14.2	18.2	22.2	25.8	30.9	32.7	33.8
인천	10.3	13.0	17.2	20.8	23.3	28.3	30.0	31.0
광주	12.1	14.7	19.0	23.7	28.8	32.4	34.5	35.5
대전	11.5	15.2	20.6	25.3	29.1	36.3	37.6	38.5
울산	-	13.9	17.1	20.7	24.5	27.7	29.5	30.2
세종	-	-	-	-	29.1	31.3	31.5	32.8
경기	10.6	12.6	16.9	20.3	23.4	27.6	29.2	30.2
강원	15.0	18.8	23.5	27.9	31.2	35.0	36.3	37.2
충북	13.2	17.1	22.7	26.9	28.8	34.8	36.3	37.0
충남	12.9	17.2	22.6	27.0	29.5	34.2	35.8	36.6
전북	14.1	17.4	22.1	26.5	29.8	33.8	35.7	36.6
전남	16.3	19.7	24.6	28.9	30.4	33.7	35.3	36.1
경북	15.9	18.5	23.9	28.8	30.4	34.4	36.0	37.0
경남	13.8	17.1	21.4	24.9	27.6	30.9	32.7	33.7
제주	15.8	16.6	21.5	24.0	26.5	31.1	32.7	33.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2010년과 2022년의 시도별 1인가구 밀집도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인가구 밀집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이 23.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서울(21.9%), 부산(21.5%), 광주(20.8%) 순

그림 2-12 | 시도별 1인가구 비율(2010-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2) 수원시와 인근자치단체의 1인가구 현황

-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의 확산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0년 전국의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15.5%임. 2010년에는 23.6%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0.9%, 2022년 3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1인가구는 2000년 대비 2.4배 증가함
- 경기도, 수원시, 유사지자체 모두 매년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수원시의 1인가구는 169,216명으로 전체가구의 32.8%를 차지함.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때, 1인가구의 절대적인 수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 비율은 수원시(169,216명, 32.8%) > 성남시(125,515명, 32.5%) > 화성시(111,697명, 29.9%) > 고양시(118,717명, 27.9%) > 용인시(102,173명, 24.9%) 순임
- 수원시는 1인가구의 수와 비율이 높지만 유사 지자체와 비교 하였을 때 2000년 대비 2022년 1인가구 증감률은 316.1%로 나타나 상대적인 증감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1,193.5%) > 용인시(691.9%) > 고양시(432.1%) > 수원시(316.1%) > 성남시(249.0%) 순임

표 2-4 |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전체가구	1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전체가구	1인가구
전국	14,391,374	2,224,433 (15.5)	17,574,067	4,142,165 (23.6)	21,484,785	6,643,354 (30.9)	22,383,187	7,502,350 (33.5)
경기도	2,691,510	337,555 (12.5)	3,908,059	777,360 (19.9)	5,294,836	1,406,010 (26.6)	5,617,507	1,634,147 (29.1)
수원시	286,782	40,667 (14.2)	382,504	92,869 (24.3)	488,201	146,572 (30.0)	515,530	169,216 (32.8)
고양시	224,429	22,310 (9.9)	306,701	58,392 (19.0)	404,705	100,409 (24.8)	425,383	118,717 (27.9)
용인시	109,492	12,903 (11.8)	273,118	40,806 (14.9)	394,636	90,156 (22.8)	409,539	102,173 (24.9)
성남시	277,140	35,966 (13.0)	341,644	77,242 (22.6)	379,640	11,5433 (30.4)	386,069	125,515 (32.5)
화성시	57,069	8,635 (15.1)	163,038	29,792 (18.3)	336,715	91,164 (27.1)	373,006	111,697 (29.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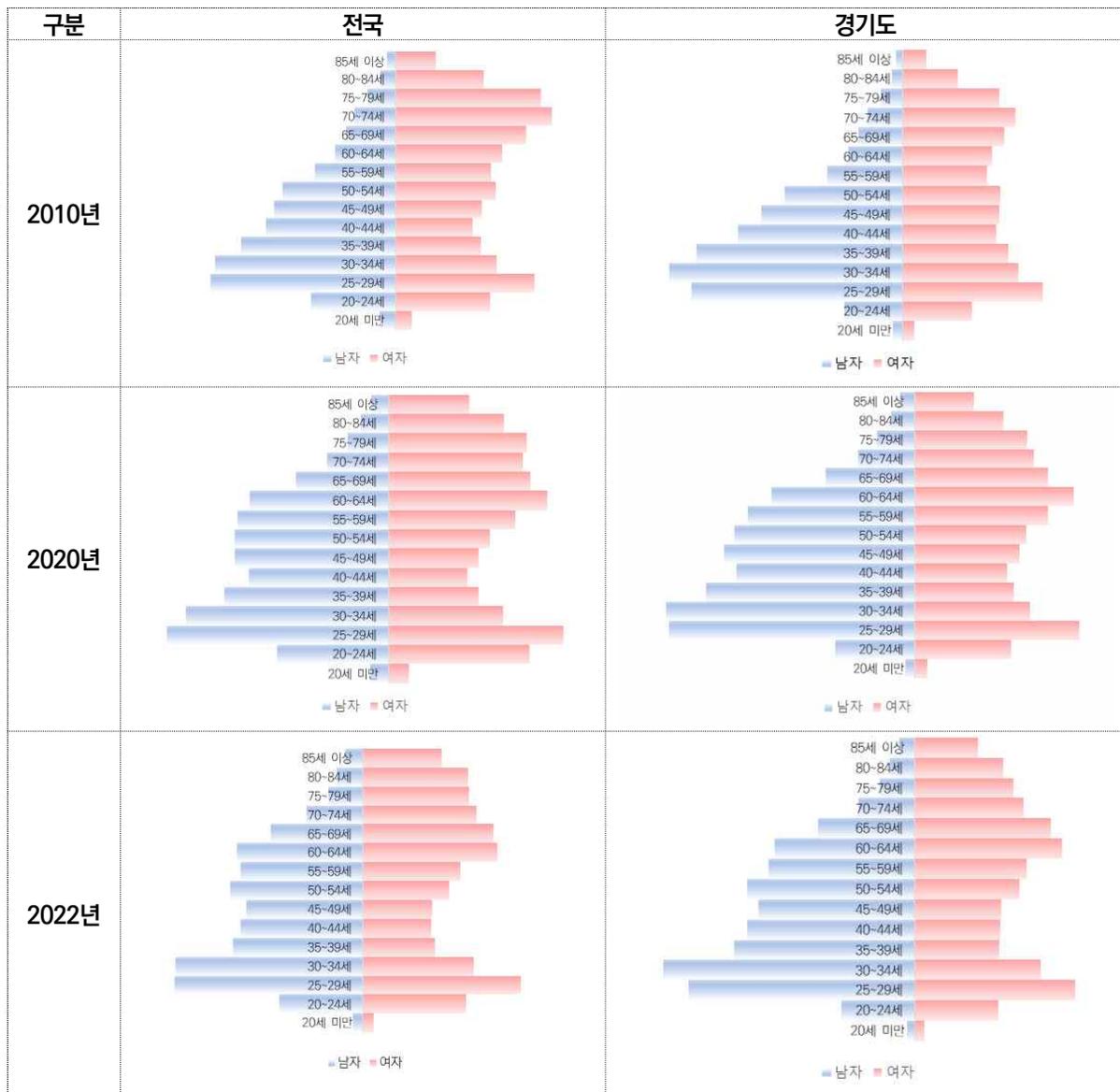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1인가구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는 비슷한 규모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있음

- 20세 미만과 20-24세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많았고, 25-59세까지는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많음.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의 경우 여성 1인가구 비율이 57.5%로 남성의 42.5%보다 15.0%p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이 거의 동등해졌음

그림 2-13 | 전국, 경기도 1인가구(2010-20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경기도, 수원시 및 유사지자체의 경우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경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여성 1인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 1인가구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고양시의 경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1인가구가 더 많았지만,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화성시는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여성 1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남성 1인가구 증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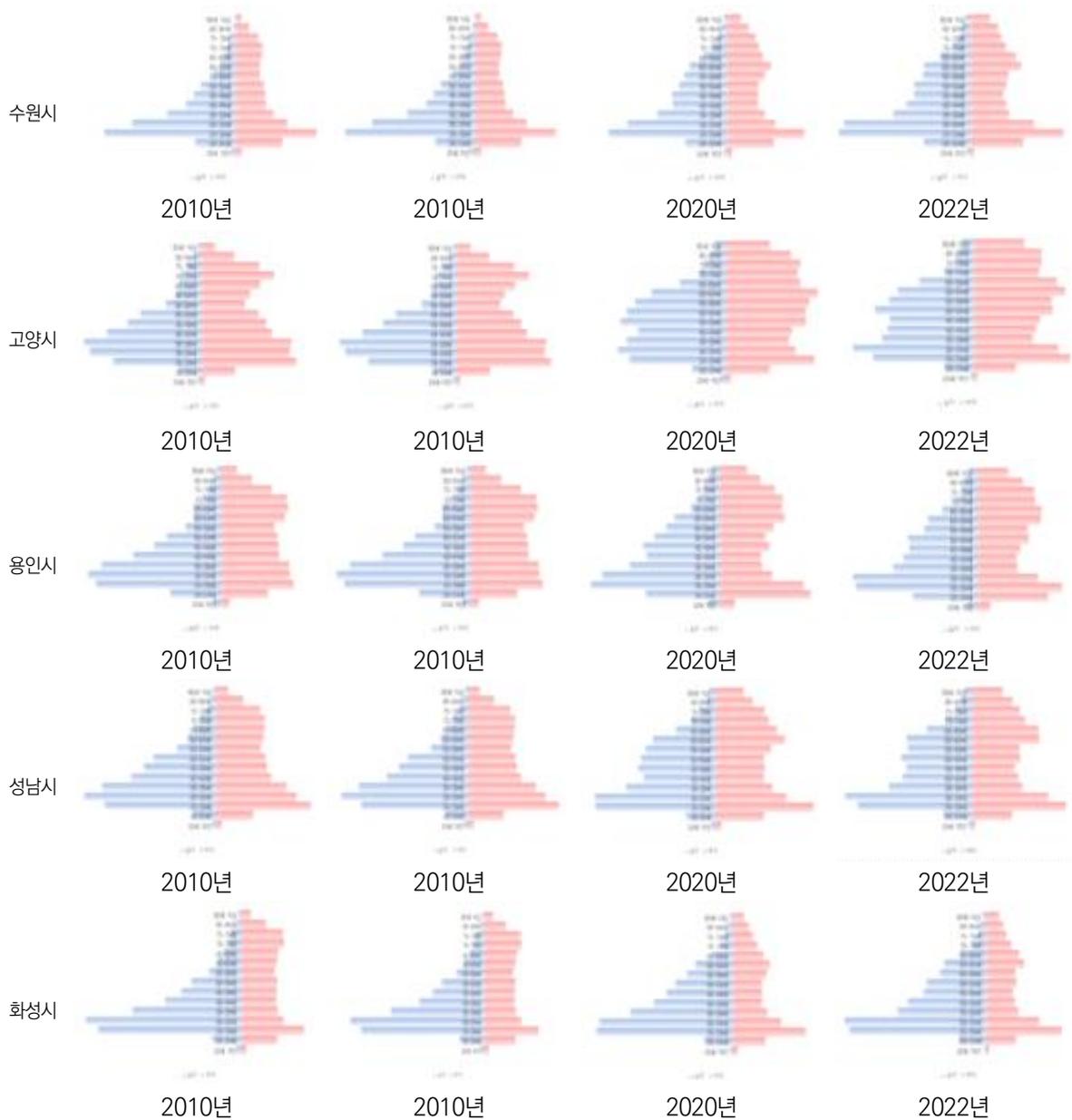
표 2-5 | 성별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9,44,996 (42.5)	12,79,437 (57.5)	19,24,341 (46.5)	22,17,824 (53.5)	3,304,398 (49.7)	3,338,956 (50.3)	3,751,071 (50.0)	3,751,279 (50.0)
경기도	167,775 (49.7)	169,780 (50.3)	40,3219 (51.9)	374,141 (48.1)	758,076 (53.9)	647,934 (46.1)	882,118 (54.0)	752,029 (46.0)
수원시	20,965 (51.6)	19,702 (48.4)	50,804 (54.7)	42,065 (45.3)	79,996 (54.6)	66,576 (45.4)	92,085 (54.4)	77,131 (45.6)
고양시	9,995 (44.8)	12,315 (55.2)	26,960 (46.2)	31,432 (53.8)	48,382 (48.2)	52,027 (51.8)	56,997 (48.0)	61,720 (52.0)
용인시	6,777 (52.5)	6,126 (47.5)	20,424 (50.1)	20,382 (49.9)	46,354 (51.4)	43,802 (48.6)	53,070 (51.9)	49,103 (48.1)
성남시	18,090 (50.3)	17,876 (49.7)	39,277 (50.8)	37,965 (49.2)	59,230 (51.3)	56,203 (48.7)	64,506 (51.4)	61,009 (48.6)
화성시	4,303 (49.8)	4,332 (50.2)	17,528 (58.8)	12,264 (41.2)	56,720 (62.2)	34,444 (37.8)	69,133 (61.9)	42,564 (38.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그림 2-14 | 시도별 1인가구(2010-20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연령 세부집단별 1인가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만20세 미만의 1인가구의 수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큰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00년과 2022년을 비교할 경우,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용인시로 2000년 323명에서 2022년 1,570명으로 대폭 증가함.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자체는 수원시로, 2000년 882명에서 2022년 869명으로 소폭 감소함

표 2-6 | 만20세 미만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46,576	2.1	48,584	1.2	76,202	1.1	53,088	0.7
경기도	4,732	1.4	6,027	0.8	8,910	0.6	8,828	0.5
수원시	882	2.2	980	1.1	1,083	0.7	869	0.5
고양시	185	0.8	264	0.5	536	0.5	394	0.3
용인시	323	2.5	418	1.0	1,515	1.7	1,570	1.5
성남시	552	1.5	509	0.7	713	0.6	584	0.5
화성시	98	1.1	229	0.8	622	0.7	481	0.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청년 1인가구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시 청년 1인가구의 절대적인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청년 1인가구의 절대적인 수는 수원시 > 화성시 > 성남시 > 용인시 > 고양시 순으로 나타났지만 청년 1인가구의 비율로 살펴보면, 화성시 > 수원시 > 용인시 > 성남시 > 고양시 순임
  - 청년 1인가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화성시로 2000년 2,455명에서 2022년 43,323명으로 1,664.7% 증가함
    - 청년 1인가구 증감율은 화성시(1664.7%) > 용인시(510.5%) > 고양시(274.3%) > 수원시(202.0%) > 성남시(154.6%) 순임

표 2-7 | 청년(만21세-34세)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747,882	33.6	1,189,820	28.7	1,885,312	28.4	2,161,262	28.8
경기도	131,948	39.1	239,846	30.9	384,292	27.3	464,035	28.4
수원시	21,567	53.0	42,383	45.6	55,125	37.6	65,125	38.5
고양시	7,900	35.4	16,751	28.7	23,047	23.0	29,568	24.9
용인시	5,558	43.1	12,984	31.8	30,673	34.0	33,931	33.2
성남시	15,210	42.3	25,601	33.1	35,188	30.5	38,726	30.9
화성시	2,455	28.4	11,209	37.6	34,506	37.9	43,323	38.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전반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원시는 절대적인 중장년 1인가구의 수는 타 지자체 중 많은 편에 속하지만 1인가구에서 중장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43.6%로 낮은 편에 속함
  - 1인가구 중 중장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양시(50.3%) > 화성시(46.9%) > 성남시(46.4%) > 수원시(43.6%) > 용인시(43.3%) 순임
- 수원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 모두 중장년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중 가장 증감률이(425.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 증감률은 화성시(1,350.9%) > 용인시(764.2%) > 고양시(480.2%) > 수원시(425.0%) > 성남시(283.8%) 순임

표 2-8 | 중장년(만35세-64세)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886,589	39.9	1,837,396	44.4	3,021,129	45.5	3,314,584	44.2
경기도	142,712	42.3	384,053	49.4	715,987	50.9	796,924	48.8
수원시	14,040	34.5	38,042	41.0	66,354	45.3	73,715	43.6
고양시	10,286	46.1	29,819	51.1	53,342	53.1	59,684	50.3
용인시	5,115	39.6	19,564	47.9	39,358	43.7	44,204	43.3
성남시	15,171	42.2	38,467	49.8	55,963	48.5	58,223	46.4
화성시	3,612	41.8	13,449	45.1	44,424	48.7	52,408	46.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년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큰 폭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22년 1인가구 증가율은 107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수원시는 60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 | 노년(만65세 이상) 1인가구 변화(2000-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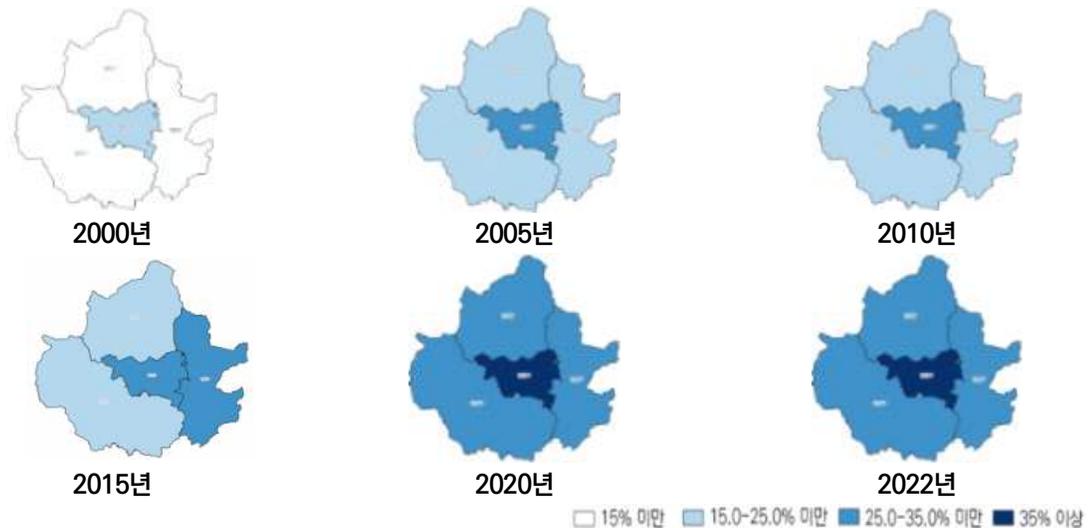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542,690	24.4	1,066,365	25.7	1,660,711	25.0	1,973,416	26.3
경기도	58,153	17.2	147,434	1.5	296,821	1.7	364,360	1.8
수원시	4,178	10.3	11,464	12.3	24,010	16.4	29,507	17.4
고양시	3,938	17.7	11,558	19.8	23,484	23.4	29,071	24.5
용인시	1,907	14.8	7,840	19.2	18,610	20.6	22,468	22.0
성남시	5,033	14.0	12,665	16.4	23,569	20.4	27,982	22.3
화성시	2,470	28.6	4,905	16.5	11,612	12.7	15,485	13.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3) 수원시 1인가구의 지역별 현황

- 수원시 구별 1인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는 영통구(49,250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1인가구 비율은 팔달구(3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2년 기준 1인가구는 영통구(49,250가구) > 권선구(48,425가구) > 팔달구(36,677가구) > 장안구(34,864가구) 순이고, 구별 1인가구 비율은 팔달구(38.1%) > 영통구(32.9%) > 권선구(31.0%) > 장안구(30.8%) 순임
- '05년<sup>2)</sup> 대비 '22년 1인가구는 권선구(76.1%p)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권선구(76.1%p) > 장안구(64.7%p) > 영통구(58.9%p) > 팔달구(50.6%p) 순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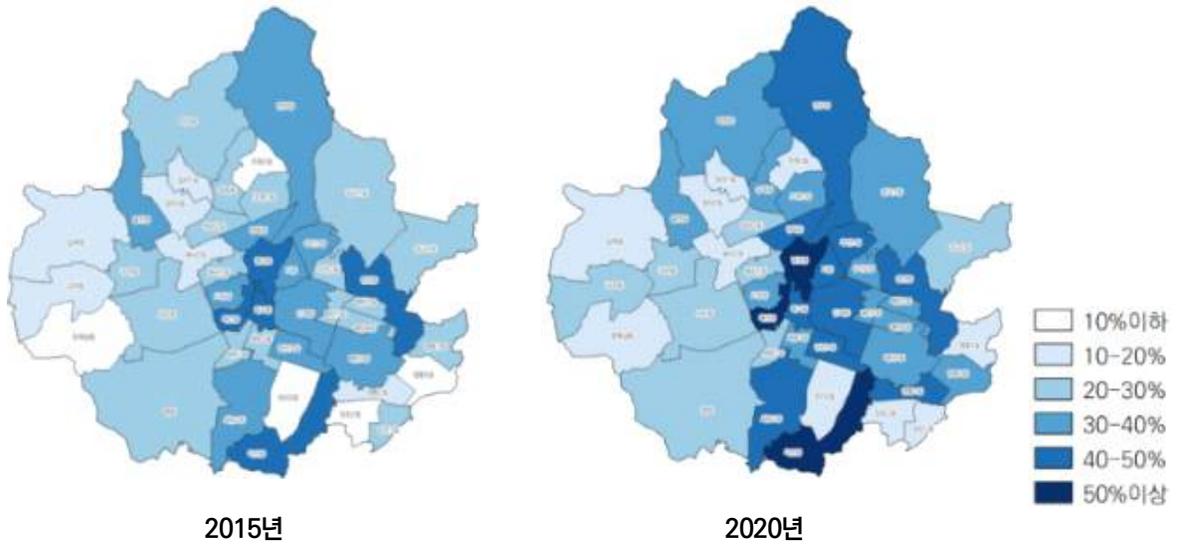
그림 2-15 | 수원시 구별 1인가구 변화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행정동(2020년 기준)은 행궁동(53.3%) 곡선동(52.3%), 매산동(50.5%)으로 나타남
  - 행정동은 행궁동, 곡선동, 매산동의 1인가구 비율이 50% 이상이며, 행정동별 1인가구 비율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높아진 동시에, 비율이 높은 동과 낮은 동의 격차가 더 커짐.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수원시에서는 1인가구 밀집지역이 더 뚜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영통 2동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2015년 14.9%에서 2020년 46.5%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어 2005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 증가율을 비교함

그림 2-16 | 수원시 행정동별 1인가구



## 제2절 국내외 정책과 제도

### 1. 해외 1인가구 정책 사례

- 1인가구 증가가 보편적 현상이 되면서 이미 여러 국가 및 대도시는 경제, 주거, 복지(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 측면에서 대응 중
  - 1인가구 해외 사례를 경제, 주거, 돌봄과 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은 1인가구 대상 사업 보다는 1인가구를 포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

#### 1) 일자리 지원 정책

- 청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직접지원(교육·훈련)을 통한 자립, 노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건강과 사회공헌이 주 목적
  - 일본, 지역청년서포트센터
    - (대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29세 청년
      -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자신이 없는 청년,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년, 인터뷰에 자신이 없는 청년 등
    - (운영) 전국 177개 지원센터,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
    - (내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사람과의 교류가 서툰 청년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수업
      - 자신이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모를 때 직무교육(실무경험)
      -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매너를 배우고 싶을 때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 자신이 어떠한 직업에 적합한지 모를 때 취업활동 세미나(면접, 이력서 지도 등)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집중 교육 프로그램
    - (성과) 지방정부, 지역 지원 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2018년 이후 약 700만 건, 2023년 기준 약 50만 건 지원

그림 2-17 | 지역청년서포트센터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직무교육

취업활동 세미나

출처: <https://saposute-net.mhlw.go.jp/about.html>

○ 호주, Men's Shed Program

- (대상) 퇴직 중장년 남성
- (운영) 각 지역의 비영리·비상업 기관에서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
  - 1990년대 호주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유럽, 아일랜드, 미국 등으로 확산
  - 전 세계적으로 1,800여 개, 약 100,000명의 남성이 참여
- (내용) 지역사회 학습 모델(community learning initiatives)로써 취창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증진, 사회 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강병익 외, 2023; 권진희 외, 2018; <https://usmenssheds.org>; <https://menshed.com>), 작업공간인 '창고(Shed)'에서 퇴직 중장년층이 철공, 목공, 원예 등 공동작업을 수행
  - 노동형: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하기를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공방을 제공하여 건축 및 수리 기술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지원
  - 치료형, 공동체형: 구성원들의 건강·보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 지원
  - 교육형: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 지원에 중점
  - 레크리에이션형: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

○ 영국, 뉴딜 50플러스 프로그램<sup>3)</sup>

- (대상) 소득지원수당, 구직수당, 장애수당, 능력상실급여 등 복지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중인 50세 이상 중장년층
- (목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철학인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라는 기조 아래 도입한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 실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3) 이상아 외, 2022

제공하여 수급 상태를 벗어나 취업을 통해 자활에 이르도록 지원

- (내용) 수급자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노동부와 연계된 직업센터 플러스(Job Centre Plus)란 기관을 통해 취·창업 상담 지원, 훈련수당 지원, 재정지원 등 서비스 지원
  - 상담 지원: 개인별로 상담자가 지정되어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획 실행, 정보 제공, 실제 구직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상담
  - 훈련수당 지원: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재정지원: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취업 크레딧(Employment Credit)을 제공하여 취업수당 지급

그림 2-18 | Men's Shed Program의 주요 내용



출처: <https://usmenssheds.org>

- 미국, 시니어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up>4)</sup>
  - (대상)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이 어려운 빈곤선 125% 이하의 55세 이상 저소득 중장년
  - (운영)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와 수행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시행, 연방정부는 전체 계획 수립, 주정부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정부와 기관을 관리
  - (내용) 196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훈련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재취업 지원
    - 재취업 연계 시 교육·직업 훈련 비용의 일정 부분 지원
    - 프로그램 참가자는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건강보조, 개인 상담 및 직업 상담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

4) 강소량 외, 2017; 이상아 외, 2022; 이지연, 2015

## 2) 자산 형성 지원 정책

-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안정적 노후준비 가능,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예방적 접근
  - 미국, 개인발달계좌(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up>5)</sup>
    - (대상)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취약계층
    - (목적) 저소득으로 인해 저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저축 기회를 부여하고 저축액 일부를 매칭하여 자산 형성 지원
    - (내용) 개인발달계좌의 저축액은 주택자금, 직업훈련 및 교육, 은퇴자금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며, 참여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가 매칭하여 추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는 필수적으로 금융 관리 및 저축에 관한 교육 수료
  - 영국,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up>6)</sup>
    - (대상) 아동, 저소득층, 신혼 부부 등
    - (목적) 생애주기 동안 개인의 저축을 장려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 제도
    - (내용)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 확대
      - 현재 아동 저축 장려(Junior ISA),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 형성 지원(Help to Save), 주택 마련(Help to Buy), 생애주기 저축(Lifetime ISA) 등으로 구분해 지원
      - 2017년 도입된 Lifetime ISA: 생애주기 저축으로 주택마련,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18-50세에 가입이 가능하고 인출은 60세 이후에 가능
  - 싱가포르, CPF(Central Provident Fund)<sup>7)</sup>
    - (대상)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 (목적) 전 생애에 걸친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1955년 도입, 저축을 통해 매칭된 지원금으로 교육비, 주거구입비, 의료비 등 생애주기에 적절한 소비 가능, CPF 적립금을 활용해 노후자금 마련, 의료비용 마련 등의 보장을 지원하여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 Ordinary Account: 주택관련 지출(예: 주택 구입, 교육, 투자 및 보험료 납부)에 주로 사용

5) 김영범 외, 2022; 안현찬, 외 2022

6) 안현찬 외, 2022; 조규형 외, 2019

7) 조규형 외, 2019

- Special Account: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 계좌로 비교적 높은 이자율 제공, 장기적인 재정 보장을 목적으로 함
- Medisave Account: 의료비 및 특정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계좌
- Retirement Account: 퇴직 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좌

### 3) 주거

□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거비를 줄이고 정신적 소외감도 완화하는 코하우징(co-housing)<sup>8)</sup>

○ 스웨덴, 소피에룬드(Sofielund Kollektivhus) 코하우징

- (배경) 2009년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작된 소피에룬드 코하우징 프로젝트는 2014년 완공하여 입주를 시작
- (목적)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총 45세대(약 120명)가 거주하는 5층 아파트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 (구성) 36㎡에서 131㎡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 36㎡은 거실, 부엌, 방 하나의 형태로 주로 1인가구가 거주
- (프로그램) 공동식사(격주 1회), 영화 시청, 탁구 등의 스포츠, 그림 그리기, 즉흥적인 Fika(스웨덴 티타임)
- (한계) 세대통합형 사례이지만 실제로는 연령대별로 골고루 입주해 있지 않고(30-40대 거주자가 다수), 주로 다인가구가 거주함

8) 코하우징은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주거 형태로, 개별 가구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 공간(예: 식당, 세탁실, 놀이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즐기, 주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 관리 조직을 통해 운영됨

그림 2-19 | 소피에룬드 코하우징



출처: <https://sofielundskollektivhus.se/>

○ 일본, 캉캉모리(콜렉티브 하우스)<sup>9)</sup>

- (배경) 스웨덴의 콜렉티브 하우스에 영감을 받아 1989년부터 10여년간의 ‘운동 (movement)’을 거쳐 2003년 제1호 콜렉티브 하우스(캉캉모리) 조성, 캉캉모리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3개의 콜렉티브 하우스가 추가로 설립
- (목적) 도시에서의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 타인과 교류(대화, 식사 등)를 통해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새로운 주거형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타인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
- (구성) 1층은 보육원, 2-3층은 캉캉모리, 4층부터는 노인양로시설로 운영 중, 총 28세대가 입주가능하며,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세탁실과 식당, 베란다는 공용시설, 1인실은 세탁실 설치 불가
- (운영방식) 정례회의(월 1회) 및 총회(년 1회), 담당그룹(1인 1그룹 필수)
- (프로그램) 콜렉티브 하우스의 핵심은 커먼밀(Common meal)이며, 입주 전에 공동주방을 직접 체험하며 실제 거주 여부 결정

9) 캉캉모리 거주자 인터뷰 자료(2024.04.17.)

그림 2-20 | 캉캉모리



[육아공간]



[세탁실]



[학습실]



[주방]



[발코니]



[정보교류공간]



[1인용 주거공간]



[1인용 주거공간]

□ 고급 공유주거 문화, 코리빙(Co-living)<sup>10)</sup>

○ 미국,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주거공간 내 커뮤니티 활동 강조하는 Common

- (운영) 미국의 코리빙 회사 Common은 201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여러 도시(뉴욕, LA, 시카고 등)에서 운영 중임
- (내용) 전용침실은 고품질 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서비스(주방, 거실, 공용 욕실)와 부동산 서비스(24시간 유지관리)가 제공됨. 입주자들은 정기적인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그림 2-21 | Common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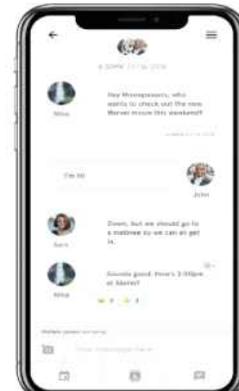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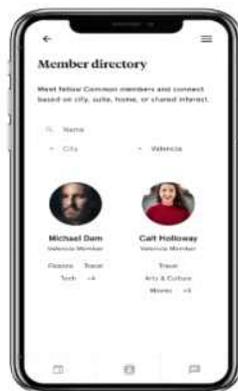
[전용 침실]



[공동주방]

- (커뮤니티 프로그램) 앱을 통해 양궁수업부터 사교모임 등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Common 내 메이트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그림 2-22 | Common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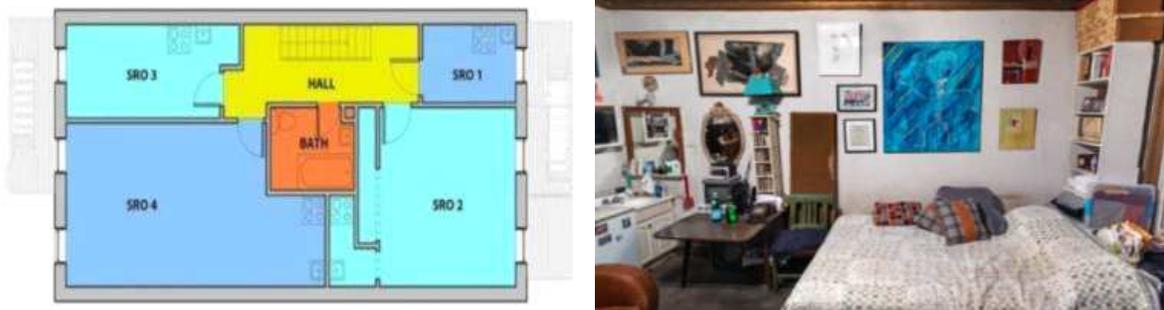


10) 코하우징 보다 현대적인 주거 형태, 주로 젊은 직장인, 학생들이 같은 건물이나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임. 임대 기간이 유연하고 가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주거 비용 절감, 사회적 교류 등을 이유로 구축되며 도시생활에 적합한 주거 방식으로 인식됨. 일반적으로 관리 회사에서 운영하며 주거자들은 단지 사용자로서 생활을 함

○ 미국, 싱글 룸 거주 프로그램(Single Room Occupancy: SRO)<sup>11)</sup>

- (대상) 저소득 1인가구, 노숙자, 근로빈곤층 등
- (운영) 공공주택기관은 주택도시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후 숙박시설 및 학교, 빈집 등을 1인 주거용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공급
- (내용) 싱글 룸 거주 프로그램은 미국 주택도시부(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정한 특수 주거 유형 중 하나로, 연방정부에서 사회보장 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 거주지 제공과 더불어 임대보조금 지원, 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법률 상담, 의료 서비스, 직업 알선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
  - 뉴욕: 건물의 공용복도, 공용 욕실, 싱크대와 스토브가 있는 방으로 구성

그림 2-23 | 뉴욕의 싱글 룸



출처: <https://fontanarchitecture.com/what-is-an-sro-single-room-occupancy/>  
<https://www.6sqft.com/hochul-50-million-single-room-occupancy-units-new-york/>

○ 일본 세타가야구, 다세대 공생형 주택단지<sup>12)</sup>

- (배경) 도쿄도 주택공급공사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한 혁신적 주거 형태
  - 주거 공급, 복지시설 유치, 고령자·육아세대 입주 지원, 지역커뮤니티 활동 지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추진
- (목적) 다양한 세대들이 하나의 단지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주택 수요 충족, 공동체 활성화
- (구성) 1956년에 세타가야구에 건설한 임대주택은 4층 21동 584호로 구성된 일반 임대주택이었으나, 재건축하여 12동 599호의 다세대 공생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2013년부터 입주 시작, 총 12개동에 대해 1인가구, 노인가구, 자녀양육가구 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 세대 간 교류시설 설치

11) 정순희, 2019. <https://fontanarchitecture.com/what-is-an-sro-single-room-occupancy/>

12) 이동훈, 2012; 김석호 외, 2017; 안현찬 외, 2022. 도쿄도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www.to-kousya.or.jp](http://www.to-kousya.or.jp))

□ 1인가구의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

○ 일본, 주택 세이프티넷(Safety Net)<sup>13)</sup>

- (배경) 2007년 「주택 확보 요(要)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고, 2017년 법률 개정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
-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확보 요배려자<sup>14)</sup>
- (내용)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주택 확보 요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 등록 주택의 집주인과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주했을 때 상담이나 거주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거주 지원이라는 세부 조항을 촘촘하게 구성
- (성과) 입주자가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도쿄 신주쿠, 1인가구 주택 건축기준 조례

- 1인가구를 위한 원룸이나 맨션 건축 시 기준
  - 1가구당 최소 18㎡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
  -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
  - 관리실 설치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

○ 영국,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의 주거 기준<sup>15)</sup>

- (배경) 비혈연가구가 모여서 거주하는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의 주거 기준을 제시
  - HMO는 여러 명이 일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 일반적인 최저주거기준과 다른 기준이 필요
- 영국정부에서는 1인당 최저주거면적으로 최소한 6.5㎡을 권고하나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 재량으로 설정
  - 옥스퍼드(Oxford City Council): 1인 최소 6.5㎡, 2인 최소 11㎡에 해당하는 층수별

13) 마쓰시타 마나, 2022; 이선인, 2021; 정진호 외, 2022.

14) 법률에서 정한 주택 확보 요배려자란 고령자, 아동 양육 세대, 장애인, 외국인, 학대 피해 아동,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범죄피해자, 신혼부부 세대를 의미함

15) 박미선 외, 2017.

최소 공용면적 설정. 5인 이하 셰어하우스는 부엌(취사시설)이 7㎡로, 거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거실 11㎡, 만일 거실과 부엌이 통합된 경우라면 18㎡

○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하우징(Micro-Housing) 규제 정책<sup>16)</sup>

- 청년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용공간과 주방을 함께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 초소형 유닛주택 등 셰어하우스와 같은 마이크로하우징이 증가. 적합한 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작은 집에 살더라도 안정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이크로하우징 관련 규제 정책 발표(2014.09.02.)

- 최소면적: 220평방미터(약 20.4㎡), 적절한 주방 설비 포함
- 위치: 특정 지역(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고층 주거지역)에서만 허용
- 공용시설 포함

#### 4) 돌봄과 건강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돌봄을 포괄하는 정책

○ 일본, 지역포괄센터

- (배경)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의료 및 개호보험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 등 복합적 욕구를 지닌 독거노인이 해당 지역에서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와 생활양식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임정미, 2018).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 및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표 정책이 ‘지역포괄센터’임

- (목적)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생을 일컫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경에 독거노인이 중증도의 간병 상태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예방, 주거, 생활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즉,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이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민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원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

- (설치기준) 설치 주체는 시정촌 또는 시정촌에서 위탁을 받은 법인,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간호사 등이 배정되어 지역 주민의 문제를 다학제적 접근으로 진단하여 보다 적합한 지원 계획 수립

16) (정순희 2019)

<https://buildingconnections.seattle.gov/2014/09/04/proposed-permanent-micro-housing-regulations/>

표 2-10 | 지역포괄센터 설치 기준

구분	내용			
설치주체	시정촌 <sup>17)</sup> 또는 시정촌에서 위탁을 받은 법인(재택개호지원센터 설치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NPO법인, 기타 시정촌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법인)			
직원구성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케어매니저 등 배치			
인원배치	시정촌은 각 지역포괄센터의 담당 구역 설정, 직원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보건사 등	사회복지사 등	주임 케어매니저 등
	1호 피보험자 수 3,000-6,000명	1명	1명	1명

※ 단, 소규모 시정촌의 경우 등에는 예외 기준이 있음

출처: 타치가와시 후지미 지역포괄센터 인터뷰 자료

- (내용)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주민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이 외에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종합상담창구 개설,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 활용 촉진), 지원 곤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 이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이라도 24시간 본인의 자택에서 생활하며 정기, 수시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림 2-24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출처: 임정미(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7) 일본의 행정 구획 명칭(한국 시읍면과 유사)

- (사업) 지역포괄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임

표 2-11 | 지역포괄센터 주요 사업

구분	개호보험 속 지역포괄센터 주요 사업	지역지원 사업으로서 지역포괄센터의 주요 사업
1	제1호 개호 예방 지원 사업 (종합사업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재택의료·개호 연계 추진 사업
2	종합상담지원업무	생활 지원체제 정비 사업
3	권리옹호 업무	치매증 종합지원 사업
4	포괄적·지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 업무	지역케어회의 추진 사업

출처: 타치가와시 후지미 지역포괄센터 인터뷰 자료

- (한계)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 해당 노인과 그 가족 및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전문인력 부족

#### 도쿄, 타치가와시 독거노인 지원 사업

- **모시바나게임(이야기 게임):** 가족이나 동료 사이에서 죽음에 대해 부담없이 이야기하고, 노년기를 지내는 방법 및 의료케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 조성을 하는 전문직과 연계하여 만남이나 교류의 자리 기획 운영:** 지역 식당 일환으로 다세대 교류나 혼밥 방식을 위한 활동 진행
- **푸드뱅크:** 타치가와시와 연계하여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된 식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 배포
- **성년후견제도:** 재산 관리나 사후정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 일본, 입원 및 의료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배경) 노인 1인가구 중에서도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족이 없거나 치매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원 및 의료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 (내용) 입원 시 필요한 물품 준비, 입원 비용 처리, 퇴원 준비, 사망 시 시신과 유품의 인수 및 장례 등, 전반적인 일을 의료·케어 팀과 제휴해 진행(山縣 然太郎 외, 2019).

도쿄, 입원 및 의료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
<p><b>대상:</b> 80세 여성 A씨</p> <p><b>개요:</b> 1년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자택 거실에서 넘어져 입원하였고, 입원 이틀 후 수술이 진행되었다. A씨는 수술 후 집에서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입원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1) 입원비 지불 방법 2) 퇴원 지원 3) 입원 중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포괄센터, 노인요양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다.</p> <p><b>서비스 지원절차 및 내용:</b> 돌봄 매니저와 입원비 지불 방법 등을 논의 → 케어매니저와 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 상담하여 일상생활자립지원 사업 이용 검토 → 가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 성년후견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재산관리자,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지원</p> <p><b>사례의 중점사항:</b> 1)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입원 중에 지불이나 퇴원 후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신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성년후견제도의 상담창구가 되고, 신청을 하는 친족이 없을 경우 시구정촌장이 신청을 한다. 신청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진단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의 치료, 요양을 거부할 경우 지원팀을 만들고 지원팀이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역할을 대행하여 수행한다.</p>

○ 미국, 연명의료법 대리인 지정 제도

- (대상) 노인 1인가구

- (내용) 이 제도는 생전 유언과 함께 사전 지시의 핵심 요소. 대리인 지정은 환자가 무능력한 상태가 될 경우 본인의 보건의료 결정을 행할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

○ 미국,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sup>18)</sup>

- (대상) 1인가구

- (목적)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팀을 통해 노인들에게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치료 제공

- (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 케어 제공

-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On Lok Senior Health Services'라는 비영리 지역사회조직에서 시작. 이후 지원 대상과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 요양 자격을 인증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18) 정순희, 2019.

하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로 확대

- 1986-1987년 On Lok이 개발하여 운영하던 돌봄전달체계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하도록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 노인을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PACE)이라는 이름으로 명명

○ 영국, '써클 모델(Circle Model)' 프로젝트<sup>19)</sup>

- (대상) 50대 이상 장년층
- (운영) 런던 소재 민간조직인 'Participate'가 2009년 도입
- (목적) 노인들을 위한 회원 조직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
- (내용)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사회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며, 한 사람당 일정 수준의 월회비를 내고 가입. 회원들은 정원 가꾸기, 쇼핑하기, 집안 보수 등의 일을 다른 회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도우미들은 주로 전문 기술자이며 목수, 배관공, 전기공 등이 있음
- (성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회원의 88%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으며, 평균 6명에서 수백, 수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또한, 회원의 26%가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시간 감소<sup>20)</sup>
- (한계) 2014년 공공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 문제가 생겼고, 2015년에는 모든 써클이 문을 닫음

19) 김영란 외, 2013.

20) <http://www.participle.net/>

## 5) 사회적 관계망

### □ 사회적 연계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고 안정감을 확보하는 정책

#### ○ 미국, YANA 프로그램(You Are Not Alone Program)<sup>21)</sup>

- (대상) 노인, 장애인
- (목적)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지역경찰 자원봉사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미국의 칼즈배드(뉴멕시코), 덴빌(인디애나주),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
- (내용) 경찰서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2번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주민의 안부를 확인. 등록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는 전화를 반복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 순찰대가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경찰 및 응급 의료와 연계)

#### ○ 미국, Connect2Affect 프로그램

- (대상) 중장년 1인가구
- (목적) 미국에서 증가하는 중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 자살률 등에 대처
- (내용)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계 서비스 제공.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 교육, 돌봄, 상담, 자조모임 등의 정보를 통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2-25 | Connect2Affect 사회적 관계망 플랫폼



출처: <https://connect2affect.org/>

21) 정순희, 2019. <https://www.carlsbadca.gov/departments/police/services/you-are-not-alone>.

- 미국,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SCP: Social Connection Project)<sup>22)</sup>
  - (대상) 중장년 1인가구
  - (운영)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PNA(Phinney Neighborhood Association)
  - (내용)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백업 플랜(Backup Plan for Solo Ageds Group): 중장년 1인가구가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일상계획, 건강계획 등을 공유하고 점검하며 피드백과 정보를 나누고 백업 플랜을 세워가는 프로그램
    - 스피드 프렌딩(Speed Friending):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타인과의 대화법 연습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 삼림치유 동행(Forest Therapy Guided Walks):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가이드 동반의 프로그램

그림 2-26 | PNA의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



출처: <https://www.phinneycenter.org/seniors/social-connections-project/>

- 호주, 커뮤니티 방문자 제도
  - (대상) 정부로부터 Residential Aged Care 또는 Home Care Packages를 받는 노인이나 사회적 고립자(섬지역민, 이주민, 재향군인, 입양아, 성소수자 등 포함), 고립감/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자발적 사회참여 곤란자 등

22) 이상아 외, 2022.

- (내용) 외로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9년 선거공약인 ‘더 많은 호주 노인 지원’과 관련된 핵심사업으로 시니어연계 프로그램(Seniors Connected Program)을 운영 중
- 일본,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sup>23)</sup> 대책 추진사업
  - (대상) 은둔형 외톨이
  - (운영)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를 도도부 현, 지정 도시에 설치하고 운영
  - (내용) 일본은 2009년부터 정신보건, 복지, 아동 복지, 취업 지원 등을 종합화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실시

---

23)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대인접촉도 하지 않은 채로 집이나 방에 틀어 박혀 생활하는 사람

도쿄, 분쿄구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구분	내용
설치 연도	• 2020년 4월
담당 부서	• 복지부 생활복지과
인력 구성	• 생활복지과 내 자립지원담당 총 3인
예산	• 3억 6천만원(인건비 포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를 주축으로 구 관계부서(교육센터, 자립지원센터, 아이가정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사회복지 협의회, 장애인 상담지원센터, 고령자 안심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li> </ul>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 내 히키코모리 전용 상담창구 설치: 히키코모리 당사자, 가족에 대한 상담 대응(전화, 대면, 직접방문) 1차 상담 창구로서 지원 기관과 연계에 초점</li> <li>• 분쿄구 히키코모리 기획, 입안, 조정을 하는 사무국 역할: 구민 대상 히키코모리 이해 촉진, 당사자 서포팅 체계 마련, 히키코모리 지원자 연수, 현재 지원 기관의 문제점 검토 및 해결 방안 마련 등</li> <li>• 분쿄구 히키코모리 지원 네트워크 구축: 히키코모리 자립지원 회의 등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회의 진행, 히키코모리 상황에 따라서 관계 단체 연계</li> </ul>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히키코모리 지원 부서 결정, 상담창구 설치, 자립지원 회의, 지원 매뉴얼 및 대상자 확대, 지역 이해 촉진,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이해 촉진</li> <li>• 2021년: 히키코모리 등 자립지원회의, 히키코모리 지원 종사자 연락회 정기회의, 지원 매뉴얼 확대, 고령 분야의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이해 촉진, 취업 기획 확대 등</li> <li>• 2022년: 8050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검토회 실시, 교육분야와 연계체제 강화, 광역 연계시작</li> <li>• 2023년: 광역 연계지원 확대, 8050 문제에 대한 지원체제 추진 강화, 지원종사자 연수 개최 확대</li> </ul>

출처: 분쿄구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자료(2024.04.17.)

도쿄, 에도가와구 복지부 생활원조 제1과 히키코모리상담창구 개요	
구분	내용
설치 연도	• 2022년 4월
담당 부서	• 복지부 생활복지과
인력 구성	• 생활원조과 4명(지원 정책 검토 및 조사 진행) • 위탁 상담 10명(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등)
예산	• 2020년 25만엔(250만원), 인건비 없음 • 2021년 1억 2백만엔(10억, 실태조사 예산 포함), 상담예산 1,500만엔(1억 5천)
운영	• 고용, 보건, 교육, 아동 분야에서 외부 기관과 협력
주요 연혁	• 2019년: 실태조사 • 2020년: 가족 상담 지원, 연계, 가족모임 형성 등 사업 시작 • 2021년: 실태조사, 국가 차원에서 기준, 규정 생성되어 의무적으로 히키코모리 사업 시작
주요 사업	• 교류공간 제공 : 연령에 관계없이 히키코모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 제공 • 휴게공간 제공 : 히키코모리의 고민이나 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막과자 가게 : 히키코모리의 취업 체험을 위한 과제 가게 운영

출처: 에도가와구 복지부 생활원조 제1과 히키코모리상담창구 담당자 인터뷰 자료(2024.04.18.)

## 2. 국내 1인가구 정책 사례와 제도

### 1) 1인가구 관련 제도

#### (1) 중앙정부

□ 여성가족부, 2018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반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2018년 법 개정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2020. 5. 19.>

□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2023년 출범

-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4년 4가지 정책 방향(① 안전한 생활환경, ② 안정적 경제기반, ③ 고립·은둔 대응, ④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기반하여 10대 정책 제안(국민통합지원단, 2023; 국민통합지원단, 2024)

표 2-12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	분야(4개)	주요 정책(10대)	
	① 안전한 청년 1인가구 생활환경	1	청년 1인가구 안심 주거 환경 만들기 * 청년 1인가구 공동 주거 모델 및 안심 앱 등
		2	청년 1인가구 건강 환경 조성 * '동네밥집' 조성, '마음·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
	② 안정적 경제기반	1	지역 이주 청년 1인가구 일·생활 적응 지원 * 일·생활 서비스 연계, 일·경험 디딤돌 제공 등
		2	재도약 기회 지원 강화 * 창업 실패 청년 재도전 지원 사업 확대 등
③ 청년의 고립·은둔 대응	1	청년 고립·은둔에 대응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고립·은둔 사업 안정적 제도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2	고립·은둔 청년을 누수없이 찾아가는 입체적 발굴 * 청년의 고립·은둔화 예방, 전 국민 실태 파악 등	
	3	고립·은둔 청년 치유·지원 * 고립 청년 일·생활 연계, 자조 모임 활성화 등	
	4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유기적 정책 생태계 구축 * 다부처 및 지역사회 정책생태계 구축	
④ 통합지원체계 구축	1	정책거버넌스 및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플랫폼 통합 등	
	2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 * 지자체 1인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 요건 완화 등	

출처: 국민통합지원단, 2024

## (2)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 □ 서울시 이외의 총 11개 광역단체 및 특별자치단체가 1인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

- 2016년 서울시는 가장 먼저 1인가구 조례 제정. 이후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 조례 제정  
- 수원시는 수원시 거주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3년 12월 조례 제정. 수원시 인근 지자체 중 성남시, 화성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양시, 용인시는 1인가구 조례 미지정
-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별도로 제정

- 고양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표 2-13 | 1인가구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명		제정	시행
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03.24.	2023.10.0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02.	2023.05.17.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03.10.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07.03.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2024.07.10.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11.10.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2023.06.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0.15.	2024.08.0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08.09.	2024.03.22. (전부개정)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9.	2021.09.2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03.07.	2019.09.08.
경기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020.07.15.	2023.08.07. (전부개정)
수원시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12.29.	
고양시	-		-	
용인시	-		-	
성남시	성남시 1인가구 기본 조례		2018.12.24.	2024.04.01. (전부개정)
화성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03.17.	
충청남도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2022.12.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5.21.	
경상남도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2.2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09.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7.12.29.	2020.04.13. (전부개정)

출처: 법제처(2024.10.10. 기준)

## 2) 1인가구 정책

### (1) 서울시 1인가구 정책

- 서울시, 맞춤형·융합·공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4대 분야(건강·범죄·고립·주거)안심정책’ 추진
  - 서울시는 2021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여 1인가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1인가구 종합대책을 수립함. 이후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 담당관에서 1인가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실행 중임
  -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이라는 4대 공적 지원체계 하에서 사업 추진 중

표 2-14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4대 안심과제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강걱정 없는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li> <li>①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li> <li>④ 범죄안심 홈세트로 1인가구 내집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li> <li>⑥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가구 맞춤형주택을 늘리겠습니다.</li> <li>⑧ 내집찾기, 내집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li> </ul>

출처: 싱글빙글서울 홈페이지(<https://1in.seoul.go.kr>) 재구성

- 서울시, 2020년부터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 이용대상: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1인가구
  - 프로그램: 교육·여가문화, 상담, 사회적 관계망, 상담 멘토링 등

표 2-15 | 1인가구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교육·여가 문화	공통 1인가구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관계 형성 교육 ① 관계증진 ② 자기돌봄 ③ 적응지원 ④ 재무관리 ⑤ 생활밀착형 ⑥ 지역사회 탐방
	심리지원 나를 위한 그림책방, 토닥토닥, 나만의 동화만들기
	건강안전 요가, 헬스클럽, 탁구, 마라톤, 자기방어 훈련, 호신술
	주거경제 경제범죄 예방 교육, 돈굴리기 프로젝트, 홈키드 접수리
	취미여가 감성사진 담기, 같이 드로잉, 취미 공방
	반려동식물 우리집 가드너, 나의 동반자야, 완벽한 솔로생활
상담	1인가구의 생활상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① 자기발견 ② 자기돌봄 ③ 가족관계 ④ 심리&성격 검사
사회적 관계망	동아리사업, 자조모임, 1인가구봉사단, 여행 ① 모임주제-일상, 여가, 문화 등(예: 독서모임 등) ② 모임조건-1인가구 3인이상, 월1회 이상 정기모임 활동 ③ 지원내용-모임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체험비 등 활동비
상담 멘토링	개인 및 그룹 멘토링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관계형성 지원 ① 1:1 멘토링-멘토·멘티 맞춤형 매칭을 통한 심층상담 ② 그룹멘토링-둘레길 함께 걷기, 독서모임 등 소모임 ③ 강의식멘토링 - 유명인사의 경험 사례를 통한 관계형성

출처: 싱글빙글서울 홈페이지(<https://1in.seoul.go.kr>)

## ○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정리하면 [표 2-16]과 같음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은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1), 교육 및 여가문화프로그램(7), 사회적관계망 지원(2), 특화사업(6)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표 2-16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2024년 기준)

사업분야		내용
상담		- 1인가구의 생활상의 문제, 자산에 대한 이해, 가족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일반 및 집단상담 제공
교육 및 여가 문화 프로그램	관계증진	- 타인과의 소통과 나눔을 통한 1인가구의 건강성 증진 - '모두의 식당', '내 도마를 찾아서', 멋진 미래를 위한 생애설계 등
	자기돌봄 (마음근육다지기)	- 동양의 육체 사상을 기본으로 한 역량 중심 접근 -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시간의 향기', '나와 나의 관계에 대하여',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경계를 넘어 길 떠나기' 등
	적응지원 (존중과 행복)	- 자발적·비자발적 생애사건으로 인한 1인가구 전환과 적응 지원 - 1인가구인 '나', '집', '지역사회', '사회적 가족' 중심
	경제교육	- 재테크(투자대출신용), 연금보험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 강의 후 1:1 맞춤형 재무 설계 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 중장년, 청년세대 1인가구의 공동체 경험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기예방, 간단한 요리, 셀프 집수리 등
	걸어서 자치구 속으로	- 중장년, 청년세대 1인가구의 지역사회 연결 - 동네 서점 탐방, 동네 나들이 편, 역사 편, 작은 갤러리 투어
	자치구 맞춤형	-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1인가구의 자기 돌봄 및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신용관리(2024년 추가)
사회적 관계망 지원	모임지원	- 일상, 여가, 문화 등을 주제로 3인 이상의 정기 모임 지원 - '우리동네 보물지도 만들기'사업으로 자조모임 결성 건강지도, 여가활동 지도, 배울지도, 먹을지도, 편의시설 지도, 자유주세 선정
	활동 공유회	- 사회적 관계망 모임 간의 활동 공유, 모임 간의 교류, 다양한 모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도모 및 모임의 성과 확산 기회
특화 사업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뉴딜일자리)	-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지원을 통한 고립감 해소 및 관계망 강화를 위한 1인가구 발굴,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등
	1인가구 사업헬퍼 (보람일자리)	- 보람 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취약 1인가구 발굴 및 기초상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치구 자율기획사업	-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싱글빙글 반찬나눔	- 중장년 1인가구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반찬 지원 - 상담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 대상자의 고립감 해소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 멘타-멘토 매칭을 통해 1:1 코칭, 다양한 그룹 활동 및 멘토링 사업 질 제고를 위한 특화 멘토링(재무설계 상담) 추가 진행 - 1:1 심층 심리상담 및 심리상담사의 재능을 활용한 외국어·스포츠·독서 등 다채로운 그룹 멘토링 병행 지원
	특화 프로그램	- 서울 둘레길, 숲 체험, 서울도보투어 등 야외 활동을 통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관계성 증진

출처: 2024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 안내

## (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 경기도,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라는 비전 하에, 3개 영역(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정책 추진

○ 경기도는 2024년 총 39개 1인가구 과제 실시

- 도 직접사업은 중장년 수다살롱, 금융안전교육, 식생활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건강돌봄 프로그램,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경기도 병원 안심동행 사업 임

- 경기도 병원 안심동행사업은 성남시, 안산시를 비롯해 총 10개 시<sup>24)</sup>가 참여

표 2-17 | 경기도 1인가구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중장년 수다살롱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2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3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4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6	위기가웃발굴 지원 사업	복지국 복지사업과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8	노인상담사업	복지국 노인복지과
9	무연고 사망자 지원	복지국 노인복지과
10	AI 노인말벗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11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12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13	베이비부머 마을돌봄 전화상담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
14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연계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15	반려동물 지원 확대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
1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17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18	가시간병방문지원 사업	복지국 복지사업과
19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20	건강돌봄프로그램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21	식생활 개선 다이닝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22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
23	재도전론	복지국 복지정책과
24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25	금융 안전교육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26	어르신 인생노트	복지국 노인복지과
27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
28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24)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29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0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31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32	저소득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33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4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35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례화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6	시군 1인가구 제안사업 지원 강화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7	정보제공 포털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8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39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출처: 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1ingg/main.do>)

### (3) 성남시 1인가구 정책

#### □ 성남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 직영의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 ○ 성남시, 2023년 7월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개소

- 성남시 1인가구 사업은 1인가구 성남형 맞춤형 복지, 공간운영, 건강한 생활, 사회관계 활동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며, 2024년 1인가구 주요 프로그램은 1인가구 동아리, 힐링키친(공유부엌), 일상·심리상담, 병원안심동행 사업임

그림 2-27 | 성남시 1인가구 정책



출처: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http://seongnam1in.kr>)

## 제3장

#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기초분석

제3절 유형화 분석

제4절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제3장 수원시 1인가구 실태 분석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 수원시 1인가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 거주 1인가구 총 1,075명 조사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는 수원시에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총 1,075명이 응답하였으며 조사 개요는 [표 3-1]과 같음

표 3-1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수원시에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75명
표본할당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층화 추출 방식으로 할당 (2023년 7월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p$
조사방법	1) 컴퓨터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CAMI*) * CAMI: 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 2) 면접원을 통한 대면 조사(PI)
조사도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
조사기간	2024년 03월 28일-2024년 04월 24일

□ 1인가구의 삶과 인식에서부터 경제, 주거, 안전에 이르기까지 총 9개 영역, 125개 문항 조사

표 3-2 | 조사문항

영역	조사문항	문항수
A	일반사항 출생연도, 성별, 지역, 가구 구성, 혼인상태, 학력(졸업상태)	6개
B	1인 가구의 삶과 인식 혼자 산 기간, 혼자 사는 만족 정도, 삶 항목에 대한 만족정도, 혼자 생활하는 이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혼자 생활하며 겪는 주된 심리적 어려움, 혼자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해결 방법,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차별이나 무시 경험, 1인가구로 살 예상 기간, 앞으로 이루기 원하는 가구-거주형태, 가장 가까운 가족(부모, 자녀 등)이 살고 있는 곳,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 반려동물	18개
C	경제 활동 현재 일자리, 현재 고용형태,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현재 일을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 일할 수 있는 예상 기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계획, 노후준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 수원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평균 소득, 수원에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평균 소득, 3개월 기준 월평균 총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중 항목별 지출 비중, 일상생활 돌봄,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돌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 1년 동안 생활비 부족 경험, 가족·친지, 친구 등으로부터 생활비 지원, 최근 1년간 경제적인 항목 경험여부	20개
D	복지 수원시 거주 기간 및 지역,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주거비(월세, 사글세) 부담, 세입자 경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지 선택 기준, 주택 선택 시 가장 어려운 점,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경험,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환경의 안전,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위축이나 불편함을 느낀 경험, 공유주택	14개
E	주거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동네의 범죄안전, 동네에서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는 항목	19개
F	안전 현재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 신체활동(운동, 여가활동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최근 1년 동안의 음주(술) 경험, 현재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 정신건강 항목 증상 정도,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외로움, 고립 문항에 대하여 현재 느끼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 외롭다고 느낄 때 대처하는 방법,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혼자 식사할 때 해결하는 방법,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른 이유	4개
G	건강과 건강 행동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빈도,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연락이 가장 도움 되는 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최근 6개월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험, 평소 주말·휴일에 하는 여가활동 종류, 문화·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평소 여가시간 충분도, 지난 1년 간 주로 참여한 모임 또는 단체 활동 종류,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 종류	21개
H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1인가구에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1인가구 및 특성,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의향 여부, 수원시 1인가구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 경험 및 이용의향 정도, 1인가구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방법	11개
I	정책 수요	12개

※ 하위 문항 제외

## 2. 표본 설계

### □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은 수원시에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2023년 7월 말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수원시 1인가구의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구수 및 비율 분포는 아래와 같음
  - 목표 모집단은 168,347명으로 남성은 91,684명(54.5%), 여성은 76,663명(45.5%)임

표 3-3 |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

(단위: 명)

자치구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권선구	4,412	3,925	7,451	3,706	5,240	2,816	4,541	3,124	4,803	8,260	48,278
영통구	8,566	7,206	9,188	4,731	4,124	2,582	2,539	2,223	2,361	5,409	48,929
장안구	5,215	2,936	3,752	1,812	2,740	1,562	3,003	2,194	4,044	7,331	34,589
팔달구	4,373	4,377	5,390	2,818	3,102	1,868	3,047	1,922	3,793	5,861	36,551
합계	22,566	18,444	25,781	13,067	15,206	8,828	13,130	9,463	15,001	26,861	168,347

표 3-4 |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비율

(단위: %)

자치구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권선구	2.6	2.3	4.4	2.2	3.1	1.7	2.7	1.9	2.9	4.9	28.7
영통구	5.1	4.3	5.5	2.8	2.4	1.5	1.5	1.3	1.4	3.2	29.1
장안구	3.1	1.7	2.1	1.1	1.6	0.9	1.8	1.3	2.4	4.4	20.5
팔달구	2.6	2.6	3.2	1.7	1.8	1.1	1.8	1.1	2.3	3.53.5	21.7
합계	13.4	11.0	15.3	7.8	9.0	5.2	7.8	5.6	8.9	16.0	100.0

### □ 표본 크기와 배분

- 목표 표본 수는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불성실 답변 등의 이유로 응답 삭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075명을 조사 실시
- 자치구, 성별, 연령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수원시 1인가구 인구수에 비례(비례층화추출법) 하게 표본을 배분함
  - 비례층화추출법에 따라 배분된 자치구별, 연령대별, 성별 목표 표본수는 [표 3-5]와 같음

표 3-5 | 수원시 1인가구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목표 표본 수

(단위: 명)

자치구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권선구	28	25	47	24	33	18	29	20	31	53	308
영통구	55	46	59	30	26	17	16	14	15	35	313
장안구	33	19	24	12	17	10	19	14	26	47	221
팔달구	28	28	34	18	20	12	20	12	24	37	233
합계	144	118	164	84	96	57	84	60	96	172	1,075

□ 표본 추출

- 2024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 세대 명부를 표집틀로 사용
  - 조사 시점 2024년 4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완료한 세대를 표집틀로 함
- 표본 추출은 조사 시점 2024년 4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완료한 1인가구 세대 중 자치구, 성별, 연령별로 수원시 1인가구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례층화추출함

□ 가중치 조정

- 비례층화추출법으로 계산된 각 셀의 표본 수를 실제 조사 완료된 수로 나누어 구하는 셀가중 방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
  -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분포특성과 모집단의 분포특성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줄이는 것임
  - 본조사에서는 비례층화추출법으로 계산된 각 셀의 표본 수를 실제 조사 완료된 수로 나누어 구하는 셀가중 방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자치구의 가중치 범위는 0.97-1.04, 성별은 0.97-1.03, 연령대는 0.83-1.29 수준임

표 3-6 | 층화변수(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가중치

구분	목표 표본 수(A)	실제 완료 수(B)	가중치(A/B)	
자치구	권선구	308	307	1.00
	영통구	313	302	1.04
	장안구	221	227	0.97
	팔달구	233	239	0.97
성별	남자	584	569	1.03
	여자	491	506	0.97
연령대	20대 이하	262	203	1.29
	30대	248	268	0.93
	40대	153	171	0.89
	50대	144	173	0.83
	60대 이상	268	260	1.03

□ 표본 조사 방법

- 조사는 대면면접조사와 웹조사(조사업체 보유 응답자패널인 마스터샘플, 통신사 가입자 패널) 방식을 병행함

표 3-7 | 수원시 1인가구 조사방법별 실제 조사 완료 사례 수(가중치 적용 전)

(단위: 명)

자치구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권선구	21	27	40	31	32	21	32	22	33	48	307
영통구	32	33	63	38	32	18	21	16	17	32	302
장안구	19	18	28	15	21	12	25	16	30	43	227
팔달구	21	32	30	23	21	14	27	14	24	33	239
합계	93	110	161	107	106	65	105	68	104	156	1,075

표 3-8 | 수원시 1인가구 조사방법별 조사완료 사례 수(가중치 적용 후)

(단위: 명)

자치구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권선구	28	25	47	24	33	18	29	20	31	53	308
영통구	55	46	59	30	26	17	16	14	15	35	313
장안구	33	19	24	12	17	10	19	14	26	47	221
팔달구	28	28	34	18	20	12	20	12	24	37	233
합계	144	118	164	84	96	57	84	60	96	172	1,075

## 제2절 기초분석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인구특성

##### ○ 수원시 1인가구 총 1,075명 조사

- 수원시 1인가구 성별 분포는 남성 584명(54.3%), 여성 491명(45.7%),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24.9%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4.4%), 30대(23.1%) 순임
- 세대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이 42.2%로 가장 많았고 청년 37.5%, 노년 20.3% 순임

표 3-9 | 성별·연령별·세대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성	584	54.3
	여성	491	45.7
연령별	20대 이하	262	24.4
	30대	248	23.1
	40대	153	14.2
	50대	144	13.4
	60대 이상	268	24.9
세대별	청년	403	37.5
	중장년	453	42.2
	노년	218	20.3

주: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이상)

#### □ 교육수준

##### ○ 1인가구의 53.8%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보여

- 1인가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53.8%가 대학교 이상(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는 46.2%임
- 청년 1인가구의 69.0%, 중장년 1인가구의 61.4%는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였으며, 노년 1인가구의 90.0%는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남

표 3-10 | 성별·연령별·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구분		고졸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전체		46.2	47.1	6.7
성별	남성	40.6	52.6	6.8
	여성	52.7	40.7	6.5
세대별	청년	31.0	62.8	6.2
	중장년	38.6	51.7	9.7
	노년	90.0	8.7	1.4

#### □ 혼인상태

- 1인가구의 63.7%는 미혼이며,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의 이혼·별거 가구 비율 높아
  -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63.7%, 사별 15.9%, 이혼·별거 14.8%, 기혼(거주지 분리) 5.7% 순으로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이혼 비율(20-20.5%)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 1인가구의 별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중장년의 이혼 건수 증가, 재혼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청년 1인가구의 96.5%는 미혼이며, 노년 1인가구의 67.7%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1 | 성별·연령별·세대별 혼인상태

(단위: %)

구분		기혼 (거주지 분리)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전체		5.7	63.7	13.2	1.6	15.9
성별	남성	7.0	71.3	14.7	1.0	6.0
	여성	4.1	54.6	11.4	2.2	27.7
세대별	청년	2.2	96.5	1.2	0.0	0.0
	중장년	8.8	63.8	20.5	2.0	4.9
	노년	5.5	3.2	20.0	3.6	67.7

## 2. 1인가구의 삶과 인식

### □ 1인가구 지속기간

- 1인가구는 지속기간은 평균 10년,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 지속기간 증가
  - 1인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10년이며, 10년 이상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24.4%), 3년 미만(20.8%) 순임
  - 남성 1인가구 지속기간은 9.6년, 여성 1인가구 지속기간은 10.6년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 지속기간 또한 증가함

표 3-12 | 1인가구 지속기간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전체		20.8	14.1	24.4	40.8	10.0
성별	남성	23.0	13.1	24.6	39.3	9.6
	여성	18.1	15.1	24.1	42.7	10.6
연령별	20대 이하	43.3	24.0	29.9	2.8	3.8
	30대	21.9	13.3	29.2	35.5	7.6
	40대	10.5	12.0	22.1	55.5	12.1
	50대	12.0	11.1	19.5	57.4	13.5
	60대 이상	8.2	7.8	18.3	65.7	15.3
세대별	청년	38.7	21.0	29.7	10.6	4.7
	중장년	11.2	10.9	21.5	56.4	12.2
	노년	7.4	7.8	20.4	64.4	15.4

### 참고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서울(2021)	26.6	29.5	31.0	12.8	5년 8개월
경기도(2021)	-	-	-	-	7년 7개월

### □ 1인가구 형성원인

- 청년·중장년 1인가구는 자발적 이유, 노년 1인가구는 비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로 생활함
  - 1인가구의 62.5%는 자발적 이유로, 36.3%는 비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됨
  - 청년 1인가구는 취업과 학업(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시험, 자격증, 취업준비 등)과 같은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되며 중장년은 본인의 일자리(29.9%)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24.1%) 때문에 1인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1인가구의 주원인임

- 수원시 1인가구는 서울시 1인가구에 비해 개인적인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 1인가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1인가구와 유사한 수준

표 3-13 | 1인가구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자발적 이유					비자발적 이유					기타	
	직장 또는 학교	취업	개인 편의 (자유)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이혼/ 별거/ 사별	가족의 사망	이민/ 분가	가족 불화				
전체	62.5	34.9	3.5	18.4	5.7	36.3	27.2	2.6	3.1	3.4	1.0	
세대별	청년	89.3	58.7	6.5	18.3	5.8	9.6	2.1	0.9	2.3	4.3	1.1
	중장년	64.3	29.9	2.4	26.1	5.9	34.5	24.1	4.2	3.0	3.2	1.2
	노년	10.3	1.7	0.4	2.9	5.2	89.5	80.1	2.4	4.6	2.4	0.5

참고

구분	자발적 이유					비자발적 이유					기타
	직장 또는 학교	취업	개인 편의 (자유)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이혼/ 별거/ 사별	가족의 사망	이민/ 분가	가족 불화			
서울시 (2021)	65.6	43.3	5.6	7.7	9.0	34.4	28.3	1.7	2.4	2.0	-
경기도 (2021)	49.7	31.2	-	18.5	-	50.3	42.0	-	4.7	3.3	0.4

□ 1인가구 만족도

○ 1인가구 10명 중 6-7명(66.2%)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해

- 1인가구의 66.2%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여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미혼 1인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3-14 | 1인가구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전체		6.6	27.2	66.2	70.9
성별	남성	9.6	29.5	60.9	67.6
	여성	3.0	24.4	72.6	74.9
세대별	청년	2.4	11.6	86.0	79.5
	중장년	9.9	30.5	59.6	67.5
	노년	7.5	49.1	43.4	62.3
혼인 상태별	기혼	15.2	40.0	44.9	61.6
	미혼	3.9	17.9	78.2	76.3
	이혼	15.3	39.9	44.8	59.7
	별거	28.8	45.7	25.6	50.4
	사별	5.1	47.3	47.6	63.8

- 1인가구는 나의 안전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아
  - 1인가구의 삶의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나의 안전이 62.2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친분(61.8점), 가족관계(61.6점), 지역사회 전반(60.3%) 순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는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남
  - 수원시 1인가구는 나의 경제적 수준과 미래안정성을 제외한 11개 영역에서 서울시 1인가구보다 삶의 요소별 만족도 높게 나타남

표 3-15 | 삶의 요소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합계	나의 생활 수준	나의 건강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 관계	나의 개인적 관계	나의 안전	사회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지역 사회 환경의 질	거주하는 지역 사회 전반	내가 하는 일	나의 경제적 수준	
전체	58.6	59.7	58.5	57.6	61.6	61.8	62.2	58.3	52.4	59.5	58.9	60.3	58.8	51.9	
성별	남성	59.1	59.6	58.8	57.0	61.1	62.4	64.4	61.4	52.5	59.5	59.4	60.9	59.4	52.4
	여성	57.9	59.8	58.1	58.3	62.3	61.0	59.6	54.8	52.2	59.4	58.2	59.6	58.0	51.3
세대별	청년	64.5	68.3	64.3	63.6	70.2	69.9	68.4	62.9	56.1	63.6	64.5	66.3	64.3	55.7
	중장년	57.1	57.5	56.7	55.5	59.0	59.4	60.9	57.2	51.6	59.0	56.6	58.5	58.6	51.2
	노년	50.8	48.4	51.5	51.1	51.3	51.8	53.6	52.3	46.9	52.8	53.2	53.0	48.9	46.4

참고													
구분	나의 생활 수준	나의 건강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 관계	나의 개인적 관계	나의 안전	사회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지역 사회 환경의 질	거주하는 지역 사회 전반	내가 하는 일	나의 경제적 수준
서울 (2021)	53.4	58.5	55.2	58.0	58.2	56.8	56.5	56.3	58.3	56.3	56.2	57.2	53.9

#### □ 1인가구 좋은 점

##### ○ 1인가구 좋은 점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

- 수원시 1인가구의 92.3%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함
- 1인가구의 좋은 점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6.0%), 가족부양 부담이 없음(5.5%) 순임
-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1인가구라서 가족부양이 없고 가사 등 집안일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년 1인가구 5명 중 1명(19.5%)은 1인가구라서 좋은 점이 없다고 응답함
- 수원시 1인가구는 서울시 1인가구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경제적 여유 측면에서 좋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6 | 1인가구 좋은 점(1순위)

(단위: %)

구분	좋은 점 있음							좋은 점 없음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가족부양 부담이 없음	경제적 여유	가사 등 집안일이 적음	기타			
전체	92.3	73.3	6.0	5.5	3.7	3.6	0.1	7.7	
성별	남성	91.4	69.1	8.2	5.8	5.4	2.8	0.1	8.6
	여성	93.3	78.3	3.4	5.2	1.7	4.5	0.2	6.7
세대별	청년	98.1	79.7	8.1	2.5	5.8	1.8	0.2	1.9
	중장년	92.7	73.2	5.9	5.7	3.2	4.5	0.2	7.2
	노년	80.5	61.8	2.2	10.7	0.9	4.9	0.0	19.5

참고								
구분	좋은 점 있음							좋은 점 없음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가족부양 부담이 없음	경제적 여유	가사 등 집안일이 적음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서울시 (2021)	95.4	36.9	9.6	9.2	3.1	5.5	31.1	4.6

□ 1인가구 힘든 점

- 1인가구 10명중 9명은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을 느끼며, 가장 힘든 점은 혼자 생활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 1인가구의 91.8%는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적이 있다고 응답함
  - 혼자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44.8%)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21.0%), 식사해결의 어려움(14.5%)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 모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음. 1순위를 제외하고, 남성 1인가구 5명 중 1명은 식사 해결의 어려움, 여성 1인가구는 4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힘든 점으로 꼽음
  -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주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 1인가구 힘든 점(1순위)

(단위: %)

구분	힘든 점 있음									힘든 점 없음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식사 해결 어려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여가 및 문화 생활, 체육활동의 어려움	주거 관리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어려움	기타			
전체	91.8	21.0	44.8	14.5	5.2	1.1	3.2	1.2	0.8	8.2	
성별	남성	92.8	18.3	46.0	20.1	2.3	1.6	1.8	1.6	1.1	7.2
	여성	90.7	24.3	43.3	7.8	8.6	0.6	4.9	0.8	0.4	9.3
세대별	청년	93.7	23.8	34.6	19.2	8.1	1.6	3.6	1.7	1.1	6.3
	중장년	90.5	19.2	50.1	11.2	3.7	0.8	3.7	0.9	0.9	9.5
	노년	91.1	19.6	52.5	12.6	2.9	1.0	1.5	1.0	0.0	8.9

참고								
구분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식사 해결의 어려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여가 및 문화 생활이나 체육활동의 어려움	주거 관리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어려움	기타
서울시(2021)	10.2	35.9	30.8	6.7	11.9	4.5	-	-
경기도(2021)	21.2	29.6	-	5.1	-	5.1	-	39.0*

\*외로움, 함께 살지 않은 가족 걱정,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

- 1인가구 10명 중 8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남성, 중장년, 혼자사는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어려움 높아
  - 1인가구의 80.9%는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1순위)은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36.9%)이며, 다음으로 혼자 아프거나 죽을수도 있겠다는 불안감(14.7%),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13.5%) 순임
  - 심리적 어려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별로는 중장년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남

표 3-18 |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1순위)

(단위: %)

구분	어려운 점 있음							어려운 점 없음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	기타			
전체	80.9	36.9	13.5	3.5	14.7	12.0	0.3	19.0	
성별	남성	83.6	37.0	14.2	4.8	15.2	12.4	0.0	16.4
	여성	77.9	36.8	12.6	2.0	14.1	11.7	0.7	22.1
세대별	청년	75.7	28.9	14.8	1.3	12.8	17.7	0.2	24.3
	중장년	84.6	36.1	12.5	5.8	18.6	11.1	0.5	15.3
	노년	83.2	53.2	13.1	2.9	10.4	3.6	0.0	16.8
혼자 산 기간	3년미만	76.0	27.7	16.5	2.3	11.9	17.5	0.0	24.0
	3-5년미만	72.2	35.8	7.3	4.1	10.2	14.2	0.6	27.8
	5-10년미만	82.2	35.6	14.5	2.4	13.8	15.1	0.9	17.8
	10년이상	85.9	42.7	13.5	4.7	18.3	6.7	0.0	14.1

□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해결방안

- 1인가구의 10명 중 9명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을 느끼며,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최대한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함
  - 1인가구의 89.9%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최대한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함
  - 남성, 중장년일수록 최대한 혼자서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여성, 노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9 |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해결 방안

(단위: %)

구분	불편한 점 있음							불편한 점 없음	
	가족에게 도움 요청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 요청	공공기관 도움 요청	인터넷 검색	전문업체 (기관) 검색	최대한 혼자 해결			
전체	89.9	20.3	17.4	3.4	18.1	2.0	28.8	10.1	
성별	남성	91.2	15.5	16.9	5.0	20.3	2.6	31.0	8.8
	여성	88.4	26.0	17.9	1.4	15.5	1.3	26.2	11.6
세대별	청년	93.9	21.7	19.7	2.4	25.6	2.0	22.5	6.1
	중장년	91.2	17.2	13.7	2.9	18.7	2.1	36.6	8.8
	노년	79.9	24.0	20.7	6.0	3.1	1.8	24.2	20.1

□ 차별이나 무시 경험

- 1인가구의 35.6%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차별이나 무시를 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직장동료
  - 1인가구의 35.6%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한 적 있으며, 차별이나 무시 이유는 지속적인 결혼 강요가 12.5%로 가장 높았고,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1.6%), 직장에서 1인가구라는 이유로 당직이나 야근을 강요(8.0%)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지속적인 결혼 강요, 직장에서 당직이나 야근 강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희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0 | 차별이나 무시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지속적인 결혼 강요	성희롱	직장에서의 당직이나 야근 강요	기타			
전체	35.6	11.6	12.5	2.7	8.0	0.8	72.1	
성별	남성	40.7	14.3	14.8	1.8	9.4	0.5	67.4
	여성	29.6	8.4	9.7	3.9	6.4	1.2	77.6
세대별	청년	32.7	7.4	11.6	3.1	10.1	0.4	72.9
	중장년	51.3	18.4	18.8	3.3	9.4	1.3	61.4
	노년	8.7	5.0	0.9	0.9	1.3	0.5	92.7
직업 유무	있음	40.1	12.2	14.5	3.0	9.8	0.7	68.8
	없음	24.8	10.1	7.6	2.2	3.9	1.0	80.0

## 참고

구분	있음						없음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지속적인 결혼 강요	성희롱	직장에서의 당직이나 야근 강요	기타		
서울시(2021)	15.8	6.1	9.1	0.7	2.4	-	84.2
경기도(2021)	-	14.2	22.1	6.1	6.1	34.7*	-

\*소득공제 제외,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 등

-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차별 및 무시를 한 사람을 질문한 결과, 직장동료가 52.1%로 가장 많았고 친구 등 주변사람(29.0%), 가족(21.5%) 순임.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은 직장동료, 노년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차별이나 무시를 했다고 응답함

표 3-21 | 차별이나 무시를 한 사람(중복응답)

(단위: %)

구분	가족	이웃주민	관공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설 직원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친구 등 주변사람	기타	
전체	21.5	15.5	11.9	52.1	15.1	29.0	4.8	
성별	남성	21.4	15.9	13.3	54.6	12.0	30.1	3.9
	여성	21.8	14.8	9.6	47.8	20.7	27.2	6.5
세대별	청년	18.7	15.0	12.8	61.8	20.0	16.6	4.8
	중장년	23.1	14.9	11.3	48.6	12.9	35.3	4.6
	노년	24.2	25.6	12.5	23.9	5.5	44.8	6.9

□ 향후 1인가구 지속기간

- 1인가구 3명 중 1명은 평생 1인가구로 살고 싶어 하며, 여성 1인가구는 평생 1인가구로 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20.9%는 당분간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
  - 1인가구 중 33.9%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은 여성(40.6%), 노년(56.1%), 이혼(47.0%)과 사별(54.8%)에서 높게 나타남
  - 평생 1인가구로 살고 싶다는 비율은 수원시가 서울시보다 약 10.3%p 높게 나타남

표 3-22 | 향후 1인가구 지속기간

(단위: %)

구분	구분	당분간	평생	잘 모르겠음(불확실함)
	전체	20.9	33.9	45.3
성별	남성	25.4	28.2	46.4
	여성	15.5	40.6	44.0
세대별	청년	34.9	19.0	46.1
	중장년	17.0	36.3	46.7
	노년	3.2	56.1	40.7
혼인 상태별	기혼	39.5	18.2	42.3
	미혼	26.2	27.1	46.6
	이혼	13.4	47.0	39.6
	별거	0.0	41.2	58.8
	사별	1.0	54.8	44.2

참고			
구분	당분간	평생	잘 모르겠다(불확실하다)
서울시(2021)	14.0	23.6	62.5

- 1인가구 형태를 유지할 시 예상하는 지속연도는 3-5년 이하가 52.3%로 가장 높았고, 3년 미만(33.8%), 6년 이상(14.0%) 순임. 6년 이상 1인가구가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경험이 있는 1인가구,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3 | 1인가구 형태 유지 시 예상하는 지속 연도

(단위: %)

구분		3년 미만	3-5년 이하	6년 이상
전체		33.8	52.3	14.0
세대별	청년	32.7	56.9	10.4
	중장년	37.3	43.6	19.0
	노년	14.5	55.2	30.3
혼인 상태별	기혼	28.3	58.6	13.1
	미혼	36.9	51.3	11.8
	이혼	9.5	53.8	36.7
	사별	50.3	49.7	0.0
혼자 산 기간	3년 미만	31.9	56.6	11.5
	3-5년 미만	36.5	52.6	10.9
	5-10년 미만	27.6	59.1	13.3
	10년 이상	39.1	41.4	19.6

#### □ 향후 원하는 가구, 거주형태

- 남성, 청년, 미혼 1인가구는 향후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어해
  - 1인가구가 향후 원하는 가구, 거주형태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금처럼 혼자(31.4%) 순임
  - 남성, 청년, 미혼은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여성, 노년, 별거·사별, 10년 이상은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4 | 향후 원하는 가구, 거주 형태

(단위: %)

구분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결혼하여 함께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주택 거주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31.4	7.6	40.8	4.4	4.8	0.3	10.7
성별	남성	24.2	9.2	49.7	4.2	4.0	0.0	8.6
	여성	39.9	5.7	30.3	4.6	5.9	0.6	13.1
세대별	청년	18.2	6.5	63.8	6.5	0.3	0.4	4.3
	중장년	29.5	9.9	39.3	4.1	7.2	0.0	10.0
	노년	59.8	4.9	1.7	1.0	8.3	0.5	23.9
혼인상태 별	기혼	16.7	49.9	20.6	0.0	7.0	0.0	5.8
	미혼	23.1	5.3	57.6	5.3	2.2	0.3	6.2
	이혼	38.4	7.1	19.4	5.6	14.4	0.0	15.1
	별거	46.6	9.1	15.7	5.2	0.0	0.0	23.5
	사별	62.6	1.7	1.1	1.3	7.1	0.6	25.4
혼자살 기간	3년 미만	20.1	12.4	51.3	5.8	1.9	0.4	8.2
	3-5년 미만	24.0	9.4	49.0	5.7	1.4	0.5	10.1
	5-10년 미만	32.1	6.9	43.3	5.1	3.0	0.0	9.8
	10년 이상	39.3	5.0	31.3	2.8	8.7	0.2	12.7

참고

구분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결혼하여 함께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주택 거주	기타	잘 모르겠음
서울시(2021)	23.7	12.2	35.8	3.5	-	7.1	17.7
경기도(2021)	36.7	14.4	30.7	6.0	-	5.7	6.5

□ 1인가구 현재 관심사

○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는 건강관리-진로-재테크 순

-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는 건강관리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11.6%), 재테크(11.4%) 순임
-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 모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 청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연애/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은 재테크,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표 3-25 | 1인가구 관심사(1순위)

(단위: %)

구분		건강관리	진로	재테크	연애/결혼	여행	주거	기타
전체		50.3	11.6	11.4	10.4	6.4	4.1	5.8
성별	남성	42.0	11.6	13.0	14.2	7.2	3.9	8.2
	여성	60.1	11.7	9.6	5.9	5.4	4.4	2.9
세대별	청년	36.6	18.1	12.6	13.8	7.2	2.6	9.1
	중장년	46.1	8.5	14.6	12.4	7.6	5.9	4.9
	노년	84.2	6.3	2.7	0.0	2.3	3.2	1.4

### □ 반려동물

#### ○ 1인가구의 9.8%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시기는 1인가구 생활 이후가 66.0%이며, 반려동물 종류는 개(강아지)가 63.8%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34.2%), 조류(4.7%) 순임
- 반려동물은 여성,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 반려동물 유무, 분양받은 시기, 반려동물 종류

(단위: %)

구분	반려동물 유무		분양받은 시기		반려동물 종류					
	예	아니오	1인가구 생활 이전	1인가구 생활 이후	개 (강아지)	고양이	파충류	조류	기타	
전체	9.8	90.2	34.0	66.0	63.8	34.2	2.5	4.7	2.4	
성별	남성	8.7	91.3	30.0	70.0	65.0	37.3	3.5	4.4	1.7
	여성	11.1	88.9	37.7	62.3	62.6	31.4	1.5	5.0	3.0
세대별	청년	8.9	91.1	26.7	73.3	51.4	50.1	5.0	9.1	2.2
	중장년	10.9	89.1	38.6	61.4	61.6	34.8	1.7	3.4	1.7
	노년	9.5	90.5	35.6	64.4	90.4	5.3	0.0	0.0	4.3

주: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시기, 종류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응답한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 반려동물이 없는 1인가구 중 기회가 있을 경우 반려동물을 키워볼 의향이 있는 비율은 24.3%
  - 여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3-27 | 반려동물 키울 의향

(단위: %)

구분		의향이 없다	보통이다	의향이 있다
전체		61.1	14.6	24.3
성별	남성	58.9	17.6	23.5
	여성	63.7	10.9	25.3
세대별	청년	45.9	17.5	36.6
	중장년	63.3	16.4	20.4
	노년	84.8	5.6	9.3

주: 반려동물이 없다고 응답한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

### 3. 경제활동

#### □ 근로능력 정도와 구직활동

- 1인가구의 87.1%는 근로 가능하며, 청년 1인가구의 근로 능력 가장 높아
  - 현재 일자리가 없는 1인가구의 근로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41.9%이며, 단순근로가능 21.4%, 단순근로 미약자 23.8%,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12.9%로 나타남
  - 현재 일자리가 없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은 98.8%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의 45.9%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8 | 근로능력 정도와 구직활동

(단위: %)

구분	현재 일자리 유무		근로능력				구직활동		
	있음	없음	근로가능	단순 근로가능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했음	안했음	
전체	70.6	29.4	41.9	21.4	23.8	12.9	28.5	71.5	
성별	남성	75.3	24.7	46.4	28.5	9.7	15.4	44.1	55.9
	여성	65.1	34.9	38.1	15.5	35.7	10.7	16.0	84.0
세대별	청년	77.7	22.3	63.0	28.5	7.3	1.2	45.9	54.1
	중장년	80.9	19.1	57.6	17.6	12.4	12.4	41.6	58.4
	노년	36.4	63.6	18.4	19.2	41.6	20.8	5.3	94.7

주: 근로능력은 현재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316명을 대상으로 질문  
 구직활동 여부는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 미약자라고 응답한 275명을 대상으로 질문

#### □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 1인가구 4명 중 1명은 구직활동 시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 1인가구의 구직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이 25.0%로 가장 높았고, 취업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부족(20.5%), 학력이나 경력으로 인한 취업과정에서의 차별(7.7%) 순으로 나타남

표 3-29 | 구직활동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취업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부족	학력, 경력으로 인한 취업과정에서의 차별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기타			
전체	71.8	25.0	5.2	6.5	20.5	7.7	1.9	5.0	28.2	
성별	남성	69.6	20.0	6.1	8.4	19.1	8.3	1.8	5.9	30.4
	여성	75.0	32.3	3.9	3.7	22.5	6.8	2.1	3.7	25.0
세대별	청년	72.3	22.3	6.0	8.8	18.3	9.3	1.9	5.7	27.7
	중장년	70.8	25.3	5.0	4.9	21.0	8.0	2.0	4.7	29.2
	노년	74.5	35.4	2.6	4.5	27.2	0.0	1.3	3.4	25.5

주: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838명을 대상으로 조사  
 기타: 근로시간이 안 맞아서, 건강상 파트타임을 원해서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 1인가구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로의사 없음(16.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0.5%) 순임
- 청년 1인가구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0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이유	근로 의사 없음	일거리 부족	재학중	원하는 임금수준 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진학, 취업, 창업 준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 부족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기타	
전체	29.4	16.1	10.5	7.4	6.7	6.6	5.5	5.1	4.8	7.9	
성별	남성	27.0	15.2	9.4	13.0	6.1	4.0	9.9	4.7	1.0	9.7
	여성	30.9	16.7	11.2	4.0	7.1	8.1	2.7	5.3	7.2	6.8
세대별	청년	12.8	0.0	2.7	32.2	9.3	13.4	14.4	8.9	0.0	6.3
	중장년	34.5	15.3	3.2	3.3	1.6	6.3	3.4	6.2	5.2	20.9
	노년	33.4	22.4	16.4	0.0	7.9	4.1	3.0	3.2	6.4	3.1

주: 비경제활동인구인 237명을 대상으로 질문

#### □ 현재 일을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

##### ○ 1인가구가 현재 일을 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점은 생계유지의 어려움

-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어려운 점으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의 위축(18.3%), 자아실현 부족(9.5%)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위축 비율, 남성 1인가구는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 부양비 부족, 청년 1인가구는 자아실현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1 | 일을 하지 않아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생계유지의 어려움	자아실현 부족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 부양비 부족	본인 의료비 부족	사회적 관계의 위축	기타	
전체	57.4	9.5	3.7	6.8	18.3	4.3	
성별	남성	58.2	9.6	6.9	6.4	17.0	1.8
	여성	56.7	9.4	1.0	7.2	19.4	6.4
세대별	청년	45.8	17.2	7.3	6.3	19.8	3.6
	중장년	54.8	9.1	4.9	3.9	24.4	2.9
	노년	66.6	4.8	0.6	9.0	13.5	5.6

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응답한 316명을 대상으로 질문

□ 경제활동 참여상태

- 1인가구 10명 중 7-8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 1인가구의 경제활동인구는 77.9%, 비경제활동인구는 22.1%
  - 취업자 비율은 남성 1인가구가 75.3%, 여성 1인가구가 65.1%로 남성 1인가구의 취업자 비율 높게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22.1%이며, 남성 1인가구 15.5%, 여성 1인가구 29.9%로 여성 1인가구의 비경제활동이구 비율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의 취업자는 80.8%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년 1인가구의 10.1%는 실업자로 청년의 고용 불안정성 확인할 수 있음

표 3-32 |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임금 근로자	공공 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77.9	70.6	55.8	2.2	4.5	7.8	0.4	7.3	22.1	
성별	남성	84.5	75.3	61.6	1.2	5.1	7.1	0.3	9.2	15.5
	여성	70.1	65.1	49.0	3.4	3.8	8.6	0.4	5.0	29.9
세대별	청년	87.8	77.7	65.4	1.7	5.8	4.6	0.2	10.1	12.2
	중장년	87.8	80.8	63.8	0.6	5.1	11.1	0.2	7.0	12.1
	노년	39.1	36.4	21.5	6.3	1.0	6.7	0.9	2.7	61.0

□ 주된 일자리와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296.5만원, 화이트컬러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아
  - 1인가구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화이트컬러가 36.1%로 가장 높고 블루컬러(32.7%), 관리전문직(25.7%), 기타 순
  - 남성 1인가구는 블루컬러, 여성 1인가구는 화이트컬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화이트컬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년 1인가구는 블루컬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당 근무시간은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6.5만원이며,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 | 주된 일자리와 월평균 소득

(단위: %, 일, 시간, 만원)

구분	직업				근로일수와 시간		월급(세후)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러	블루칼러	기타	주당 일수	주당 시간		
전체	25.7	36.1	32.7	5.5	5.0	40.3	296.5	
성별	남성	28.2	31.4	34.9	5.4	5.0	41.3	329.5
	여성	22.1	42.6	29.6	5.6	5.0	38.9	253.3
세대별	청년	29.6	38.4	24.9	7.0	4.9	39.8	271.9
	중장년	26.4	37.5	32.7	3.5	5.1	42.1	343.6
	노년	6.5	20.8	63.4	9.3	4.8	33.9	182.6

주: 직업은 관리전문직(관리자, 사무종사자), 화이트칼러(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블루칼러(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기타(학생 등)로 구분

#### □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

##### ○ 1인가구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 7개월

- 1인가구 본인이 예상하기에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 7개월이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나타남

표 3-34 |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 %, 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25.1	26.9	17.6	30.4	18.7	
성별	남성	24.2	25.8	19.3	30.7	19.1
	여성	26.4	28.5	15.1	29.9	18.1
연령별	20대 이하	19.4	8.4	9.2	62.9	27.0
	30대	10.1	16.2	29.6	44.1	23.4
	40대	24.5	40.0	27.9	7.6	14.1
	50대	31.2	53.0	13.8	2.0	11.4
	60대 이상	59.1	39.2	1.6	0.0	7.3
세대별	청년	16.3	9.4	15.0	59.3	26.2
	중장년	25.7	39.8	23.4	11.2	14.5
	노년	59.5	39.4	1.0	0.0	7.2

주: 경제활동인구 838명을 대상으로 질문

□ 퇴직계획

- 1인가구의 63.2%는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해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또는 하게 된다면) 주된 일자리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주된 일과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26.2%),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15.2%) 순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주된 일과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3-35 | 퇴직 계획

(단위: %)

구분	주된 일자리와 비슷한 일 지속	주된 일과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	도전할 용기 부족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음	기타	생각해본 적 없음	
전체	37.0	26.2	9.1	15.2	1.0	11.5	
성별	남성	39.7	28.4	8.9	12.4	0.9	9.8
	여성	33.1	23.1	9.4	19.3	1.3	13.8
세대별	청년	29.3	36.3	9.5	12.8	0.6	11.5
	중장년	42.7	21.6	8.6	16.4	1.6	9.1
	노년	42.1	5.8	9.7	20.1	0.0	22.4

주: 경제활동인구 838명을 대상으로 질문

□ 노후준비

- 1인가구 5명 중 1명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 1인가구의 22.2%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노후 준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36 | 노후 준비

(단위: %)

구분	준비함			준비하지 않음			
		적극적 준비	매우 적극적 준비		전혀 준비 못함	전반적으로 준비 못함	
전체	22.2	19.8	2.4	77.8	32.9	44.8	
성별	남성	24.6	21.3	3.3	75.4	30.6	44.8
	여성	19.5	18.0	1.5	80.5	35.7	44.8
세대별	청년	20.3	17.4	2.9	79.7	32.4	47.3
	중장년	26.8	24.0	2.8	73.2	29.0	44.2
	노년	16.3	15.4	0.9	83.7	42.2	41.5

○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1인가구의 72.0%는 경제적 준비를 통해 노후를 준비중

-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보험, 저축 등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72.0%로 가장 높았고,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26.1%),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와 자기관리(24.9%) 순임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경제적 준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와 자기관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7 | 노후준비 방법(1+2순위)

(단위: %)

구분	보험, 저축 등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유지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와 자기관리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	활동적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기타	
전체	72.0	22.6	24.9	26.1	22.9	2.8	
성별	남성	65.1	18.9	29.6	27.8	24.1	2.4
	여성	82.5	28.1	17.7	23.5	21.0	3.5
세대별	청년	55.6	21.2	35.3	22.0	22.4	2.1
	중장년	77.6	19.7	21.9	28.2	24.0	1.4
	노년	90.7	35.3	10.9	28.4	19.9	9.3

주: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9명을 대상으로 질문

- 1인가구가 노후준비를 못하는 주 이유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 1인가구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가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26.2%),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12.6%)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인가구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 1인가구는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전반적인 비용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장년 인가구의 31.5%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3-38 |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1+2순위)

(단위: %)

구분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결혼자금을 마련	노후 준비 시기가 일러서	자녀 비용 때문	노후준비 필요성 느끼지 못해	국가나 사회 보장 기대	가족의 도움 기대	기타
전체	78.2	26.2	12.6	12.1	10.5	7.2	5.9	2.9	4.7
성별	남성	76.2	27.1	14.7	13.2	9.4	4.1	1.9	6.1
	여성	80.4	25.2	10.2	11.0	4.7	7.8	4.0	3.1
세대별	청년	79.8	24.4	20.0	20.1	5.3	2.0	1.4	4.6
	중장년	78.3	31.5	11.1	8.5	9.7	5.4	1.7	5.1
	노년	75.1	19.7	2.2	4.6	25.0	7.5	13.5	7.7

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836명을 대상으로 질문

□ 소득과 소비

-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9.2만원, 필요소득 218.9만원, 적정소득 260.1만원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필요소득과 적정 소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수원에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1인가구는 적정 소득보다 낮은 월평균 소득을 벌고 있음
  -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적정소득에 비해 월평균 소득 낮음

-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50.4만원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남

표 3-39 | 소득과 소비(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월평균 소득	필요 소득	적정 소득	생활비
전체		259.2	218.9	260.1	150.4
성별	남성	291.2	237.0	285.2	159.2
	여성	221.1	197.5	230.1	140.1
세대별	청년	250.1	233.3	282.7	136.8
	중장년	320.9	250.3	292.8	180.7
	노년	148.0	127.2	150.1	112.2

- 여성, 노년 1인가구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 미달가구 비율 높게 나타남
  -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과 생계급여 미달가구 모두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0 | 소득분포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순위소득 100%
전체		8.9	20.4	43.7
성별	남성	7.5	17.0	37.2
	여성	10.6	24.4	51.5
세대별	청년	7.2	17.1	41.7
	중장년	4.0	10.4	27.4
	노년	22.5	47.7	81.2

주: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1인가구 기준(2,228,445원), 생계급여 지급기준(713,102원)  
 본 연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는 111만원 이하, 생계급여는 71만원 이하 비율로 분석

-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중장년 1인가구는 사적 이전, 노년 1인가구는 보건의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식비가 35.8%로 가장 높고, 주거비(19.7%), 의류/잡화비(7.2%), 교통비(7.0%) 순임
  -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와 의류/잡화비, 중장년 1인가구는 교통비,

사적이전, 노년 1인가구는 식비, 보건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는 식비, 보건의료비, 401만원 이상은 사적이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1 | 생활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식비		주거비	의류/ 잡화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문화 여가비	사적 이전	기타	
	식료품	외식비										
전체	22.4	13.4	19.7	7.2	7.0	6.2	1.8	6.1	6.2	3.4	6.7	
성별	남성	21.1	15.1	19.7	6.7	7.6	6.4	1.8	4.7	6.3	3.5	7.1
	여성	24.0	11.4	19.6	7.7	6.3	6.0	1.8	7.8	6.1	3.2	6.2
세대별	청년	19.2	16.9	22.5	8.0	6.9	5.8	2.2	3.3	6.9	2.6	5.6
	중장년	21.5	13.5	18.4	7.4	8.4	6.4	2.1	5.6	5.4	4.0	7.4
	노년	30.1	6.7	17.1	5.2	4.4	6.4	0.7	12.4	6.5	3.3	7.2
소득 수준별	200만원이하	26.4	11.1	21.5	5.8	5.4	6.3	1.8	7.9	5.3	2.6	6.0
	201-300만원이하	20.5	15.4	19.1	7.9	8.0	6.4	1.5	5.2	6.4	3.2	6.5
	301-400만원이하	19.6	15.3	18.2	8.3	7.9	5.9	2.1	4.4	7.4	4.1	6.9
	401만원이상	18.4	13.4	17.3	8.1	8.5	5.8	2.5	5.0	7.0	5.4	8.6

## 4. 복지

### □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 노년 1인가구, 200만원 이하 소득의 1인가구에서 돌봄서비스 비율 높게 나타나
  - 1인가구의 5.7%는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1인가구의 67.0%는 주로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 1인가구는 일상생활 지원, 중장년과 노년은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을 받는 비율 높게 나타남

표 3-42 | 돌봄서비스

(단위: %)

구분	돌봄서비스 유무		돌봄서비스 유형			
	받고 있음	받고있지 않음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 (옷입기, 씻기, 이동 등)지원	전문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전체	5.7	94.3	67.0	9.9	23.1	
성별	남성	3.7	96.3	36.7	23.9	39.4
	여성	8.0	92.0	83.7	2.1	14.1
세대별	청년	1.9	98.1	22.4	66.6	11.0
	중장년	1.2	98.8	65.7	15.6	18.7
	노년	21.9	78.1	74.4	0.0	25.6
소득 수준별	200만원 이하	12.1	87.9	70.2	2.3	27.5
	201-300만원 이하	1.8	98.2	78.5	21.5	0.0
	301-400만원 이하	1.5	98.5	0.0	100.0	0.0
	401만원 이상	0.6	99.4	0.0	100.0	0.0

주: 돌봄서비스 유형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61명을 대상으로 질문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1인가구 중 일상생활 돌봄 제공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1.5%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1인가구 중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98.5%이며,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인력의 도움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관 등의 생활지원 도움인력(38.0%) 순임

표 3-43 | 일상생활 돌봄 제공자(주된 돌봄 제공자)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개인간병인 이나 가사 도우미(민간)	공공서비스 인력	생활지원 도우미인력			
전체	98.5	5.7	7.9	1.4	2.2	43.3	38.0	1.5	
성별	남성	100.0	16.0	22.3	0.0	6.2	55.5	0.0	0.0
	여성	97.6	0.0	0.0	2.1	0.0	36.6	58.9	2.4
세대별	청년	100.0	33.4	49.4	0.0	17.2	0.0	0.0	0.0
	중장년	82.3	16.2	0.0	15.6	0.0	50.5	0.0	17.7
	노년	100.0	0.0	2.1	0.0	0.0	49.5	48.4	0.0

주: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61명을 대상으로 질문

○ 중장년 1인가구,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높아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1인가구의 51.4%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3.3%는 부족하다고 인식함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상생활 돌봄이 부족한 이유<sup>1)</sup>로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3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34.5%),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어서(27.2%) 순임
- 중장년 1인가구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67.1%)를 가장 큰 부족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일상생활 돌봄이 부족한 이유에 응답한 사례 수는 총 8명임

표 3-44 | 돌봄 충분성

(단위: %)

구분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전체	13.3	1.5	11.8	35.3	51.4	42.4	9.0	
성별	남성	18.3	4.3	14.0	33.5	48.2	48.2	0.0
	여성	10.5	0.0	10.5	36.2	53.2	39.3	14.0
세대별	청년	17.2	0.0	17.2	32.3	50.6	50.6	0.0
	중장년	47.4	17.6	29.8	52.6	0.0	0.0	0.0
	노년	8.9	0.0	8.9	33.8	57.3	45.8	11.5

주: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61명을 대상으로 질문

### □ 가족 돌봄

#### ○ 비동거 가족을 돌보는 1인가구 비율은 5.9%

- 비동거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는 1인가구 비율은 5.9%이며, 돌보고 있는 가족은 부모가 62.4%로 가장 높고 손주(14.3%), 자녀(13.0%) 순임
- 여성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는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학생 포함) 유형에서 가족을 돌보는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부모를 돌보고 있는 비율은 52.7%임

표 3-45 | 가족 돌봄

(단위: %)

구분	가족돌봄 여부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돌보지 않음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손주	자녀	기타	
전체	5.9	94.1	62.4	4.4	10.6	14.3	13.0	2.6	
성별	남성	5.6	94.4	64.5	5.2	10.5	7.7	17.3	2.6
	여성	6.3	93.7	60.0	3.4	10.7	21.3	8.4	2.5
세대별	청년	4.2	95.8	51.3	16.3	23.1	14.8	0.0	0.0
	중장년	8.5	91.5	75.3	0.0	7.4	2.9	19.0	2.0
	노년	3.7	96.3	24.2	0.0	0.0	67.2	11.5	10.6
직업	관리전문직	5.1	94.9	80.4	0.0	0.0	11.9	24.0	0.0
	화이트칼라	5.4	94.6	75.9	0.0	10.8	7.3	5.9	0.0
	블루칼라	8.3	91.7	52.0	8.3	20.9	17.2	12.0	3.8
	기타(학생포함)	15.3	84.7	52.7	0.0	0.0	34.0	13.3	0.0

주: 돌보고 있는 가족은 중복응답이며, 비동거 가족을 돌본다고 응답한 64명을 대상으로 질문

-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가족 부양, 노년 1인가구는 자녀, 손자녀 양육 때문에 비동거 가족을 돌보고 있어
  - 비동거 가족을 돌보는 이유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았고, 양육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22.5%),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20.7%) 순임
  -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노년 1인가구는 양육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6 | 비동거 가족 돌봄 이유

(단위: %)

구분		양육이 필요한 가족(자녀, 손자녀 등)이 있어서	부양해야 할 가족(부모, 조부모 등)이 있어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집안일(가사)을 위한 돌봄이 필요해서	외출이나 이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타
전체		22.5	40.5	20.7	7.9	5.8	2.7
성별	남성	21.8	42.4	24.8	4.9	6.0	0.0
	여성	23.3	38.4	16.3	11.0	5.5	5.5
세대별	청년	15.4	52.7	21.8	0.0	10.1	0.0
	중장년	19.1	43.6	19.4	10.7	2.7	4.4
	노년	53.7	0.0	24.2	10.6	11.5	0.0

주: 비동거 가족을 돌본다고 응답한 64명을 대상으로 질문

□ 생활비 부족 경험과 해결방법

-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1인가구의 7.8%는 공적,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해
  - 1인가구 10명 중 4명은 생활비 부족경험이 있음
  - 생활비가 부족할 때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을 해약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또는 친지에게 빌린다(38.1%),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31.1%) 순임
  -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7.8%였으며, 남성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7 | 생활비 부족 경험과 해결방법(1+2순위)

(단위: %)

구분		생활비 부족 경험		해결방법					
		있음	없음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가족 또는 친지에게 빌린다	은행 대출이나 마이뉴스 통장 이용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기타	해결하지 못함
전체		42.0	58.0	46.8	38.1	31.1	16.1	13.9	7.8
성별	남성	44.7	55.3	39.8	34.3	35.1	15.8	17.8	10.0
	여성	38.7	61.3	56.3	43.4	25.7	16.4	8.5	4.7
세대별	청년	45.0	55.0	46.5	42.4	30.3	15.0	13.8	6.2
	중장년	44.3	55.7	47.8	27.3	37.7	12.6	15.3	8.5
	노년	31.5	68.5	44.5	58.4	14.4	29.0	10.1	9.8

주: 해결방법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451명을 대상으로 질문함  
기타 응답으로는 공적지원, 복지관이나 민간단체를 후원 이용, 사채 이용 등을 포함함

#### □ 생활비 지원 수급 여부와 지원 목적

##### ○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때문에 생활비 보조 받아

- 1인가구의 23.4%는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목적은 주거비, 학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활비 보조가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비(42.6%), 의료비(11.9%) 순임
-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일반적인 생활비 보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8 | 생활비 지원 수급 여부 및 생활비 지원받는 목적(1+2순위)

(단위: %)

구분		생활비 지원 수급 여부			생활비 지원받는 목적(1+2순위)						
		정기적 생활비 보조 있음	비정기적 생활비 보조 있음	생활비 보조가 없음	주거비	학비	학원비	의료비	돌봄 서비스 비	생활비 보조	기타
전체		10.1	13.3	76.7	42.6	11.3	11.7	11.9	6.3	49.3	3.9
성별	남성	9.1	10.0	81.0	51.0	19.9	17.9	10.5	5.2	36.0	4.6
	여성	11.3	17.2	71.6	35.9	4.4	6.7	13.1	7.3	59.8	3.4
세대별	청년	16.0	16.0	67.9	59.7	17.4	18.6	8.0	3.8	35.5	4.9
	중장년	3.4	7.5	89.2	42.8	11.8	10.8	12.1	9.0	45.4	7.3
	노년	13.0	20.1	66.9	12.0	0.0	0.0	18.8	9.1	76.4	0.0

주: 생활비를 수급받은 251명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목적에 대해 질문함

□ 결핍 경험

○ 1인가구의 다차원 결핍율은 1.0%

- 1인가구의 8.9%가 공교육비 미납을 경험하였으며, 9.9%가 신용유의자 상태 경험, 13.2%가 주거비 지불 어려움 경험, 11.4%가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11.7%가 병의원 방문 어려움을 경험함
-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공교육비 미납, 신용유의자 상태 경험 등 5개 영역에서 결핍 경험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에 비해 결핍 경험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5개 영역 모두를 경험한 다차원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49 | 결핍 경험

(단위: %)

구분		공교육비 미납 경험	신용유의자 상태 경험	주거비 지불 어려움 경험	냉난방 유지 어려움 경험	병의원 방문 어려움 경험	다차원 결핍율
전체		8.9	9.9	13.2	11.4	11.7	1.0
성별	남성	10.9	14.2	17.2	13.3	13.5	1.7
	여성	5.6	4.8	8.5	9.1	9.5	0.2
세대별	청년	7.9	8.6	12.8	11.1	11.0	1.0
	중장년	10.6	13.7	16.6	13.7	14.8	1.6
	노년	6.1	4.3	6.8	7.2	6.3	0.0

주: 공교육비 미납 경험은 비해당을 제외한 462명을 대상으로 조사  
다차원 결핍은 5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경험한 비율

## 5. 주거

### □ 주택 유형

- 1인가구 3명 중 1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중장년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
  - 1인가구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30.0%로 가장 높고, 아파트(27.0%), 연립/다세대 주택(20.3%), 오피스텔(13.7%) 순으로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0 |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일반/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상가, 공장, 여관 등)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전체	30.0	4.0	27.0	20.3	1.3	13.7	3.2	0.6	
성별	남성	30.3	3.8	25.2	20.9	1.2	13.1	5.0	0.5
	여성	29.6	4.3	29.3	19.5	1.4	14.3	1.0	0.7
세대별	청년	26.9	2.4	17.5	24.6	1.3	21.8	4.6	1.0
	중장년	27.6	3.9	37.0	15.2	0.5	12.5	3.0	0.2
	노년	40.7	7.2	24.0	22.9	2.9	1.0	0.9	0.5

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포함

### □ 거주지 점유 형태

- 여성 1인가구,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 안정성 높아져
  - 1인가구의 거주지 점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가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세(32.9%), 자가(21.5%)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중장년 1인가구는 전세, 노년 1인가구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 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1 | 거주지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주거 안정성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공공 임대 주택	무상	기타	
	자가	전세								
전체	54.4	21.5	32.9	33.0	3.4	0.4	7.0	1.6	0.2	
성별	남성	50.1	18.9	31.2	36.6	4.9	0.6	6.3	1.3	0.3
	여성	59.5	24.5	35.0	28.7	1.6	0.2	7.7	2.0	0.2
세대별	청년	40.9	7.2	33.7	47.9	2.8	0.3	6.0	2.1	0.0
	중장년	60.5	27.9	32.6	27.9	4.2	0.6	4.8	1.6	0.3
	노년	66.6	34.4	32.2	16.1	2.7	0.0	13.2	0.9	0.4
형성 원인	자발	51.2	16.3	34.9	38.0	3.0	0.1	5.8	1.6	0.1
	비자발	60.5	30.8	29.7	24.6	4.1	0.5	9.0	1.0	0.3

□ 주거비 부담 정도

○ 매월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가구 10명 중 6-7명은 주거비에 부담 느껴

- 매월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가구의 67.9%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1인가구,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함

표 3-52 |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부담되지 않음			보통	부담됨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	매우 부담		
전체	12.4	5.4	7.1	19.7	67.9	43.3	24.6	
성별	남성	12.7	6.4	6.3	24.6	62.7	44.9	17.8
	여성	12.0	3.6	8.4	11.8	76.2	40.6	35.6
세대별	청년	11.9	4.5	7.4	20.7	67.4	46.1	21.3
	중장년	13.2	7.5	5.7	19.2	67.6	40.6	27.0
	노년	12.3	2.1	10.2	16.7	71.0	38.6	32.4

주: 매월 주거비(월세, 사글세)를 지출하는 395명을 대상으로 질문

## □ 세입자 경험 어려움

### ○ 세입자 경험을 한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어려움을 겪어

- 전세 및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입자 경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았고,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렵다(26.5%), 집 주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12.8%)로 나타남
- 세입자가 겪은 어려움은 여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표 3-53 | 세입자 경험(중복응답)

(단위: %)

구분	어려움 경험 있음						어려움 경험 없음	
	어려움 경험 있음	집 주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내가 여성(혹은 남성)이라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렵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전체	60.8	12.8	5.7	7.9	26.5	38.9	39.2	
성별	남성	58.3	12.1	2.5	7.5	24.0	34.0	41.7
	여성	64.1	13.6	10.0	8.5	29.8	45.4	35.9
세대별	청년	66.4	13.0	6.6	8.4	33.5	43.7	33.6
	중장년	59.1	14.9	5.8	8.4	23.0	37.2	40.9
	노년	48.1	6.2	2.9	5.2	14.1	28.8	51.9

주: 세입자 경험이 있는 750명을 대상으로 질문함

## □ 주거선택 요인

### ○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노년 1인가구는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을 선호해

- 1인가구의 주거 선택 요인은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43.2%),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39.6%), 주택상태가 좋은 곳(29.0%) 순
- 남성 1인가구,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여성 1인가구는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에 대한 선호가 높음. 노년 1인가구는 거주 경험이 있는 곳,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함

- 남성 1인가구는 주택에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 1인가구는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4 | 주거 선택 요인(1+2순위)

(단위: %)

구분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주택 상태가 좋은 곳	거주 경험이 있는 곳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주택에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	기타	
전체	43.2	39.6	29.0	19.7	18.8	18.5	7.8	7.5	4.7	
성별	남성	49.6	39.2	28.8	17.2	19.2	13.4	10.4	3.7	4.4
	여성	35.5	40.2	29.3	22.8	18.3	24.6	4.7	12.0	5.0
세대별	청년	54.2	41.5	35.1	7.7	12.8	11.2	8.7	8.2	5.5
	중장년	44.3	37.8	27.4	17.1	24.2	13.4	9.5	9.0	5.3
	노년	20.3	39.9	21.1	47.4	18.6	42.7	2.4	3.1	1.9

주: 기타: 서울로 접근이 용이한 곳 등

□ 주택 선택 어려움

○ 1인가구 10명 중 8명은 주택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

- 1인가구의 82.8%는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마련이 53.2%로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이 부족해서(39.7%), 주택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서(21.9%) 순으로 나타남

표 3-55 | 주택 선택 어려움(1+2순위)

(단위: %)

구분	어려운 점 있었음							어려운 점 없었음	
	주택 구입 또는 임대비용 마련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주택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부족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	기타			
전체	82.8	53.2	39.7	21.9	17.0	14.7	0.3	17.2	
성별	남성	87.6	54.0	44.2	22.5	17.4	15.9	0.5	12.4
	여성	77.1	52.3	34.4	21.2	16.5	13.4	0.2	22.9
세대별	청년	93.8	55.7	43.4	25.5	20.5	18.4	0.2	6.2
	중장년	86.1	57.8	38.9	21.0	18.3	16.8	0.4	13.9
	노년	55.6	39.1	34.7	17.3	7.8	3.8	0.4	44.4

#### □ 주거 불안 요인

##### ○ 1인가구 10명 중 3-4명은 주거 불안 경험해

- 1인가구의 36.7%는 최근 1년간 주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주거 불안 요인은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서가 1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증금 반환(8.6%) 순임
- 청년 1인가구는 주거 불안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주 요인은 보증금 반환 위험 때문으로 나타남

표 3-56 | 주거 불안 요인(1+2순위)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보증금 반환 위험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추가 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 확보 곤란	3개월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기타			
전체	36.7	10.6	8.6	8.4	6.6	5.6	5.2	4.5	8.2	63.3	
성별	남성	39.1	10.5	9.6	7.5	8.3	5.2	7.4	5.9	9.5	60.9
	여성	33.8	10.8	7.4	9.5	4.5	6.0	2.6	2.8	6.8	66.2
세대별	청년	45.0	13.8	14.7	9.6	6.4	3.4	6.7	6.1	6.7	55.0
	중장년	34.5	8.2	7.2	8.6	7.2	6.5	4.4	3.1	9.7	65.5
	노년	25.9	9.7	0.0	5.7	5.5	7.5	4.2	4.4	8.1	74.1

주: 기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등

□ 거주지 안전성

- 1인가구 10명 중 5-6명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안전하다고 인식
  - 여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높게 나타남
  - 구별로는 영통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팔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57 | 거주지 안전성

(단위: %)

구분	불안			보통	안전			
	매우 불안	약간 불안	대체로 안전		매우안전			
전체	12.0	2.1	9.9	31.3	56.7	44.8	11.8	
성별	남성	9.2	1.7	7.5	32.5	58.3	42.5	15.7
	여성	15.3	2.5	12.8	29.9	54.8	47.6	7.2
세대별	청년	15.9	2.2	13.7	26.2	57.9	43.0	14.9
	중장년	12.3	2.5	9.8	35.3	52.3	42.1	10.3
	노년	4.1	1.0	3.1	32.5	63.4	54.0	9.4
구별	권선구	11.8	2.4	9.4	31.4	56.8	45.9	10.9
	영통구	10.4	1.0	9.3	23.7	65.9	52.5	13.4
	장안구	12.3	2.8	9.4	40.2	47.5	36.3	11.3
	팔달구	14.1	2.4	11.8	33.2	52.7	41.2	11.5

-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원인은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 현재 거주지가 불안한 이유는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 36.0%로 가장 높고,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23.6%),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23.3%)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 2명 중 1명은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현재 주거지가 불안하다고 느꼈으며,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으로 불안하다는 이유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와 영통구 거주 1인가구는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팔달구 거주 1인가구는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때문에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8 | 거주지 불안 원인(1+2순위)

(단위: %)

구분	CCTV, 출입구 보안 시설, 방범창 등 안전 시설 미비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비상 시 대처 하기가 어려워서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 등, CCTV 등)	주택 관리인의 부재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남녀 공용 주거로 인한 불안감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	기타	
전체	36.0	23.6	23.3	21.8	17.2	16.4	15.6	11.2	8.1	3.8	
성별	남성	16.0	22.4	24.3	12.8	26.7	22.8	19.9	5.2	13.5	7.0
	여성	50.3	24.5	22.5	28.4	10.4	11.7	12.6	15.5	4.3	1.5
세대별	청년	40.3	25.2	16.7	24.3	15.7	16.9	12.6	14.4	10.9	0.0
	중장년	29.8	21.6	31.1	22.6	19.7	13.6	18.1	9.4	4.8	6.7
	노년	44.6	24.7	20.9	0.0	12.2	29.9	22.2	0.0	9.7	12.3
구별	권선구	27.9	12.3	24.1	18.3	25.5	13.7	11.2	7.5	9.9	6.3
	영동구	27.5	24.9	33.2	23.9	15.2	12.9	10.9	25.5	9.5	2.5
	장안구	53.2	27.0	12.0	30.2	10.0	26.1	21.9	3.2	6.4	3.0
	팔달구	39.2	32.1	21.8	16.9	15.8	14.8	20.2	7.7	6.3	2.9

주: 현재 거주지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129명을 대상으로 질문

#### □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 청년 1인가구와 남성 1인가구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 1인가구의 27.8%는 현재 주거지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축과 불편함을 느낀 주요 이유는 거주지의 점유형태(월세, 사글세 등) 때문(14.4%)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축과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안구(34.8%)와 팔달구(34.1%)에 거주한 1인가구가 현재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59 |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중복응답)

(단위: %)

구분	경험함				경험한 적 없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거주지의 점유형태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상·하수도 등 주거내부 시설이 낙후되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전체	27.8	11.6	14.4	6.8	72.2	
성별	남성	29.6	12.4	17.5	6.7	70.4
	여성	25.7	10.6	10.6	7.0	74.3
세대별	청년	31.7	12.5	15.7	10.1	68.3
	중장년	27.6	11.8	15.3	5.0	72.4
	노년	21.2	9.5	9.9	4.5	78.8
구별	권선구	23.4	12.0	12.6	3.9	76.6
	영통구	22.7	8.6	12.8	4.3	77.3
	장안구	34.8	11.1	18.0	12.8	65.2
	팔달구	34.1	15.5	15.3	8.4	65.9

□ 공유주택

○ 1인가구의 69.5%는 공유주택 인지하고 있어

- 1인가구의 69.5%는 공유주택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유주택의 종류, 주거형태, 신청방법, 비용 등까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임
- 남성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의 공유주택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 10명 중 1명은 공유 주택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표 3-60 | 공유주택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알고 있음	들어본 적만 있음			
전체	69.5	6.5	22.1	41.0	30.5	
성별	남성	72.8	8.1	23.3	41.4	27.2
	여성	65.7	4.5	20.7	40.5	34.3
세대별	청년	79.6	10.9	29.5	39.3	20.4
	중장년	74.1	5.0	22.1	47.0	25.9
	노년	41.5	1.4	8.6	31.5	58.5

- 청년 1인가구 10명 중 2명은 공유주택에 거주 의향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인가구의 18.9%는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공유 주택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3-61 | 공유주택 거주 의향

(단위: %)

구분		거주 의향 있음	거주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18.9	54.1	26.9
성별	남성	20.1	55.2	24.7
	여성	17.5	52.8	29.6
세대별	청년	21.5	58.2	20.3
	중장년	18.2	54.4	27.4
	노년	15.9	46.0	38.2

- 공유주택 거주 파트너로 1인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 공유주택 거주 파트너의 성별은 상관없음(42.1%), 세대는 청년(44.1%), 가구유형은 1인가구(72.7%), 반려동물이 없는 가구(53.3%)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1인가구, 반려동물 있는 가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일수록 동년배와 거주하고 싶어함

표 3-62 | 공유주택 거주 파트너

(단위: %)

구분	성별			세대별				가구유형별				반려동물			
	동성	이성	상관 없음	청년	중장년	노년	상관 없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미성년 자녀 없음)	다인 가구 (미성년 자녀 있음)	상관 없음	반려 동물 있는 가구	반려 동물 없는 가구	상관 없음	
전체	37.3	20.6	42.1	44.1	25.3	12.1	18.5	72.7	10.8	3.9	12.6	15.4	53.3	31.3	
성별	남성	22.8	27.8	49.4	48.9	28.3	4.3	18.5	68.3	11.4	4.9	15.4	17.3	53.7	29.1
	여성	57.0	10.7	32.2	37.4	21.2	22.7	18.6	78.6	10.0	2.6	8.9	12.9	52.8	34.3
세대별	청년	50.0	20.9	29.1	82.6	5.8	1.5	10.1	75.6	14.1	3.5	6.8	21.1	50.1	28.8
	중장년	28.0	25.2	46.8	22.1	50.7	4.9	22.3	74.1	9.5	3.6	12.7	14.9	50.8	34.4
	노년	27.7	8.8	63.5	0.0	13.7	55.6	30.7	61.9	5.7	5.4	27.0	2.5	67.3	30.2

○ 공유주택 거주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낮은 주거비용

- 공유주택 거주 시 필요한 점으로는 낮은 주거비용이 57.1%로 가장 높았고,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52.9%),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20.4%) 순임
- 여성 1인가구는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청년 1인가구는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중장년 1인가구는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노년 1인가구는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3 | 공유주택 거주 시 필요한 점(1+2순위)

(단위: %)

구분	낮은 주거비용 (월세, 보증금 등)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교통이 편리한 위치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	편의시설 (편의점, 빨래방, PC방)과 근접한 위치	
전체	57.1	52.9	20.4	17.6	15.9	11.4	9.2	4.1	
성별	남성	59.2	47.5	18.8	19.5	18.9	10.9	7.3	5.5
	여성	54.3	60.2	22.6	14.9	11.9	12.0	11.8	2.2
세대별	청년	57.6	54.9	19.3	8.5	24.2	7.4	10.0	4.4
	중장년	61.0	51.0	19.5	21.5	7.9	17.6	6.9	3.0
	노년	46.5	52.3	25.5	30.7	14.3	6.5	12.9	5.9

주: 공유주택에 거주의향이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질문

## 6. 안전

### □ 범죄 안전 시설

-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개인이 설치하는 범죄 안전 시설 설치 비율 높게 나타나
  - 범죄 안전 시설과 관련하여 외시경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고, 특수 잠금장치(52.0%), 방범창(40.0%)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외시경 등 개인이 설치하는 범죄 안전시설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파트의 범죄 안전 시설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안전 시설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64 | 범죄 안전 시설(있다 비율)

(단위: %)

구분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쇠창살)	외시경	출입카드	경비원
전체		52.0	40.0	53.9	31.1	35.9
성별	남성	48.4	35.2	52.6	32.7	33.9
	여성	56.3	45.7	55.6	29.3	38.3
세대별	청년	45.3	32.7	53.8	33.6	35.6
	중장년	51.6	38.6	59.1	34.2	43.0
	노년	65.3	56.3	43.3	20.1	21.7
주택 유형	단독주택	50.4	41.4	37.2	12.9	3.6
	아파트	60.9	48.3	77.3	55.9	85.7
	연립/다세대 주택	55.5	38.6	46.1	15.6	2.5
	그 외(오피스텔, 고시원 등)	38.4	26.8	59.0	45.4	58.8

주: 외시경: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밖을 볼 수 있는 렌즈

### □ 범죄 위험 장소

- 1인가구는 동네에서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귀갓길을 꼽아
  - 1인가구는 동네에서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를 귀갓길(46.9%)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방치된 공간(30.5%), 거주하는 건물 외부 공간(19.9%), 거주하는 건물 내부 공간(15.6%) 순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방치된 공간(공터, 공사장, 빈 건물), 여성 1인가구는 여가 공간(운동장,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에서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함

- 권선구와 팔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동네에서 범죄를 겪을 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권선구 1인가구는 상업시설 밀집지역, 팔달구 1인가구는 여가공간에서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5 | 범죄 위험 장소(1+2순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귀갓길	방치된 공간	거주하는 건물 외부 공간	거주하는 건물 내부 공간	상업시설 밀집지역	여가 공간	집안			
전체	81.6	46.9	30.5	19.9	15.6	14.3	10.9	6.1	18.4	
성별	남성	79.2	38.6	32.8	20.6	14.9	14.8	8.4	5.3	20.8
	여성	84.5	56.9	27.7	19.1	16.4	13.7	13.8	7.0	15.5
구별	권선구	85.2	50.8	35.6	14.6	13.7	16.6	11.0	5.0	14.8
	영통구	81.2	44.6	33.2	20.1	12.0	14.4	11.4	6.9	18.8
	장안구	74.0	40.3	24.3	24.2	22.5	9.2	6.3	6.8	26.0
	팔달구	84.5	51.4	25.8	22.6	16.3	15.8	14.5	5.5	15.5

□ 노출된 범죄 유형

○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

- 1인가구의 63.5%는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14.4%), 사기죄(13.7%), 성희롱·성폭행(13.3%) 순임
- 남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사기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1인가구는 성희롱·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의 약 18배로 나타남

표 3-66 | 노출된 범죄 유형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폭행	사기죄	성희롱·성폭행	주거 침입 절도	몰래 카메라	택시, 노상 강도	기타			
전체	63.5	14.4	13.7	13.3	10.5	5.4	3.2	3.2	36.5	
성별	남성	57.1	16.5	19.9	1.5	10.8	2.5	3.6	2.2	42.9
	여성	71.1	11.8	6.3	27.2	10.0	8.8	2.6	4.4	28.9
세대별	청년	69.3	10.0	16.3	22.5	8.1	6.3	2.2	4.1	30.7
	중장년	64.4	15.3	15.6	9.3	12.3	6.3	4.2	1.3	35.6
	노년	51.1	20.4	4.9	4.5	11.0	1.7	2.8	5.6	48.9
구별	권선구	69.1	18.5	16.6	10.7	14.3	3.9	3.9	1.2	30.9
	영통구	62.5	14.7	13.9	17.8	5.8	5.7	2.0	2.4	37.5
	장안구	51.2	8.4	7.2	12.2	11.8	6.8	3.8	1.0	48.8
	팔달구	69.2	14.1	15.6	11.5	10.3	5.4	3.3	9.0	30.8

#### □ 범죄 대처 조치와 행동

- 1인가구의 65.0%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행동을 하고 있어
  - 1인가구의 65.0%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행동을 하고 있으며, 범죄 대처를 위한 조치와 행동은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45.0%),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26.2%),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10.4%)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범죄 대처 조치와 행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거나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밤거리 불안도가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체력 단련을 하거나 호신술 등을 배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7 | 범죄 대처 조치와 행동(중복응답)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함	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님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룸	치안 시설 위치를 파악해 둠	체력 단련을 하거나 호신술 등을 배움	CCTV나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님	기타			
전체	65.0	45.0	26.2	10.4	9.5	9.1	6.4	6.0	7.0	35.0	
성별	남성	55.5	32.8	16.8	4.8	7.9	11.6	6.7	4.0	6.1	44.5
	여성	76.4	59.5	37.4	17.0	11.4	6.2	6.2	8.4	8.1	23.6
세대별	청년	70.2	40.7	31.2	11.8	11.5	13.6	7.0	9.5	8.8	29.8
	중장년	64.8	46.8	28.0	8.0	10.5	8.0	7.3	4.0	6.2	35.2
	노년	56.1	49.0	13.3	12.9	3.8	3.2	3.6	3.5	5.4	43.9

## 7. 건강과 건강행동

### 1) 건강상태

#### □ 주관적 신체 건강

##### ○ 1인가구의 38.6%는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

- 1인가구의 38.6%는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건강이 양호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의 48.3%는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노년 1인가구는 30.6%가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함

표 3-68 | 주관적 신체건강

(단위: %)

구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전체	22.5	2.9	19.6	38.9	38.6	31.4	7.2	
성별	남성	20.8	3.4	17.4	40.2	39.0	29.4	9.5
	여성	24.4	2.2	22.2	37.5	38.1	33.7	4.4
세대별	청년	19.0	1.5	17.5	32.7	48.3	34.3	14.1
	중장년	22.6	4.4	18.2	43.6	33.8	30.1	3.7
	노년	28.5	2.3	26.3	40.9	30.6	28.7	1.9

#### 참고

구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서울(2021)	3.4	0.0	3.3	23.5	73.1	53.0	20.1

#### □ 신체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

##### ○ 노년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아

- 1인가구의 82.1%는 신체활동을 하며, 신체활동(운동, 여가활동)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동네 공원 또는 무료 개방 운동시설이 31.0%로 가장 높고, 집(24.4%), 사설 운동시설(22.8%)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사설 운동시설을 이용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동네 공원 또는 무료 개방 운동시설을 이용함
- 노년 1인가구의 3명 중 1명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달구 거주 1인가구가 신체활동을 안한다는 비율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9 | 신체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

(단위: %)

구분	신체활동을 함						신체활동을 안함	
	집	지역복지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	동네 공원 또는 무료개방 운동시설	사설 운동시설 (유료 헬스클럽)	기타			
전체	82.1	24.4	3.2	31.0	22.8	0.8	17.9	
성별	남성	82.9	25.7	3.4	27.7	25.1	1.0	17.1
	여성	81.2	22.8	2.9	34.9	20.0	0.5	18.8
세대별	청년	87.2	27.2	2.8	18.7	38.4	0.0	12.8
	중장년	83.4	28.0	2.5	33.7	17.5	1.8	16.6
	노년	70.0	11.7	5.3	48.2	4.9	0.0	30.0
구별	권선구	83.8	27.3	4.3	33.3	18.5	0.3	16.2
	영통구	84.2	21.8	3.7	29.2	29.1	0.5	15.8
	장안구	85.4	28.6	2.9	33.9	19.6	0.4	14.6
	팔달구	73.9	20.0	1.3	27.6	22.8	2.1	26.1

□ 신체활동 동반자

○ 1인가구 10명 중 6-7명은 혼자서 신체활동을 하고 있어

- 1인가구의 69.7%는 신체활동을 혼자하며, 다음으로 친구(13.4%), 이웃(7.2%), 모임이나 동호회 회원(5.8%)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이웃과 신체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남성 1인가구(2.7%)의 약 5배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 1인가구는 이웃과 신체활동을 한다는 비율(33.1%)이 전체 평균(7.2%)의 약 5배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는 혼자서 신체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0 | 신체활동 동반자

(단위: %)

구분		혼자	친구	이웃	모임이나 동호회 회원	가족	반려동물	기타
전체		69.7	13.4	7.2	5.8	2.0	1.4	0.6
성별	남성	71.5	13.8	2.7	8.6	1.6	1.1	0.7
	여성	67.6	12.8	12.7	2.4	2.3	1.7	0.4
세대별	청년	72.3	15.3	1.5	6.1	1.8	2.5	0.6
	중장년	75.6	11.6	2.1	7.1	2.1	0.7	0.7
	노년	49.3	13.2	33.1	1.8	2.0	0.7	0.0

주: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883명 대상 질문

#### □ 신체활동 하지 않는 이유

- 청년 1인가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중장년 1인가구는 시간이 부족하고 같이 신체활동을 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1인가구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26.0%),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18.8%)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같이 신체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신체활동을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1 | 신체활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하지 싫어서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신체활동을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같이 신체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체	32.5	26.0	18.8	6.3	6.2	5.5	3.8	0.9
성별	남성	33.6	15.5	23.4	5.9	7.2	5.4	1.8
	여성	31.3	37.4	13.9	6.6	5.0	2.1	0.0
세대별	청년	42.8	22.7	9.4	7.6	8.7	1.7	0.0
	중장년	31.0	29.8	10.6	5.0	7.3	6.0	2.3
	노년	26.1	24.2	35.8	6.7	2.9	1.3	3.0

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2명 대상 질문

□ 만성질환 유병율

○ 1인가구 3명 중 1명은 만성질환 가지고 있으며, 세대별 격차 커

-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35.6%이며 여성 1인가구의 만성 질환 유병율이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의 17.2%, 중장년 1인가구의 32.9%, 노년 1인가구의 75.4%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함

표 3-72 | 만성질환 유병율

(단위: %)

구분	질병 있음	질병 없음
전체	35.6	64.4
성별	남성	30.7
	여성	41.5
세대별	청년	17.2
	중장년	32.9
	노년	75.4

참고		
구분	있음	없음
서울(2021)	21.3	78.7

○ 1인가구의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높아

- 1인가구의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46.1%로 가장 많았고, 기타 만성질환(16.1%), 당뇨병(12.1%), 이상지질혈증(8.0%) 순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 1인가구는 고혈압, 갑상선질환,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3 | 진단받은 만성질환

(단위: %)

구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암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갑상선질환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골관절염·골다공증	기타 만성질환	
전체	46.1	12.1	8.0	2.7	1.0	1.9	1.7	5.4	1.8	0.3	3.0	16.1	
성별	남성	37.1	20.1	10.9	3.4	1.5	2.8	1.0	3.9	2.2	0.6	2.0	14.5
	여성	54.0	5.1	5.5	2.0	0.5	1.1	2.3	6.6	1.6	0.0	3.9	17.5
세대별	청년	8.3	3.0	5.8	3.6	0.0	1.9	3.9	11.2	4.1	0.0	2.4	55.8
	중장년	31.1	21.3	13.9	3.1	1.2	1.2	1.8	4.9	2.8	0.0	3.8	14.8
	노년	75.6	7.6	3.6	1.9	1.3	2.5	0.7	3.3	0.0	0.6	2.5	0.5

주: 만성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383명 대상 질문

□ 음주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음주율 높게 나타나

- 1인가구의 77.9%가 최근 1년간 음주를 한 경험이 있었음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음주율이 높으며, 일주일에 4번 이상 음주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4 | 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음주						비음주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1번 정도	한달에 2-4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체	77.9	21.0	14.7	23.4	13.1	5.6	22.1	
성별	남성	85.2	18.8	16.5	26.1	16.1	7.7	14.8
	여성	69.2	23.7	12.6	20.2	9.4	3.2	30.8
세대별	청년	92.3	25.8	18.9	28.8	11.1	7.7	7.7
	중장년	78.6	20.1	12.1	23.5	17.0	5.9	21.4
	노년	49.7	14.1	12.4	13.5	8.5	1.2	50.3

○ 고위험 음주율

-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함
- 고위험 음주율은 6.1%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1인가구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5 |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고위험 음주율
전체		6.1
성별	남성	9.0
	여성	2.9
세대별	청년	8.6
	중장년	6.7
	노년	0.5

□ 주관적 정신건강

○ 1인가구의 10명 중 4명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

- 1인가구의 43.1%는 정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76 | 주관적 정신건강

(단위: %)

구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대체로 건강	매우 건강
전체		20.3	4.2	16.0	36.6	43.1	34.1	9.1
성별	남성	19.2	4.5	14.7	37.5	43.3	33.1	10.2
	여성	21.6	4.0	17.6	35.4	43.0	35.1	7.8
세대별	청년	19.4	5.0	14.5	31.9	48.7	34.7	14.1
	중장년	21.4	5.2	16.1	39.1	39.5	32.3	7.2
	노년	19.6	0.9	18.8	40.0	40.4	36.5	3.8

### □ 우울증

#### ○ 청년 1인가구의 우울 상태 높아

- 1인가구의 71.2%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정상)이며, 1인가구의 28.8%는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청년 1인가구의 우울증 치료 필요 비율은 33.6%로 중장년, 노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7 | 우울증

(단위: %)

구분		정상	우울증 치료 필요			
				치료 고려	치료 요함	적극 치료
전체		71.2	28.8	19.5	6.8	2.4
성별	남성	71.5	28.5	20.1	6.6	1.9
	여성	70.9	29.1	18.8	7.2	3.1
세대별	청년	66.4	33.6	21.5	8.3	3.7
	중장년	72.4	27.6	18.1	7.5	2.0
	노년	77.8	22.2	18.5	2.7	1.0

### 참고

구분		정상	우울증 치료 필요			
				치료 고려	치료 요함	적극 치료
서울(2021)		92.4	7.6	5.0	2.4	0.2

□ 자살 생각

-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자살 생각 비율 높게 나타나
  -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1인가구 비율은 21.2%이며, 상대적으로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에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29.3%), 진로나 직장 문제 때문에(7.9%) 순임
  - 청년 1인가구는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8 | 자살 생각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진로나 직장 문제 때문에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학업,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기타		
전체	78.8	21.2	38.3	29.3	7.9	7.8	7.5	5.6	1.2	2.2	
성별	남성	81.1	18.9	43.7	27.3	7.8	7.8	9.2	3.2	0.0	1.1
	여성	76.1	23.9	33.2	31.2	8.1	7.9	6.0	8.0	2.4	3.3
세대별	청년	76.0	24.0	29.7	30.6	12.5	2.7	11.3	6.0	2.0	5.2
	중장년	76.5	23.5	45.3	28.5	5.6	8.2	4.9	6.7	0.8	0.0
	노년	88.6	11.4	41.9	27.8	0.0	25.8	4.5	0.0	0.0	0.0

주: 자살 생각 이유는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228명을 대상으로 분석

- 1인가구 자살 생각이 들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고 있어
  - 1인가구는 자살 생각을 했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1인가구는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9 | 자살 극복 방법

(단위: %)

구분		가족들의 도움을 극복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기타
전체		7.4	12.8	10.7	66.7	2.4
성별	남성	9.0	13.9	9.6	66.3	1.1
	여성	5.8	11.9	11.6	67.1	3.6
세대별	청년	7.2	18.2	8.0	65.0	1.6
	중장년	8.2	9.1	12.8	66.2	3.7
	노년	4.7	8.3	11.8	75.2	0.0

주: 자살 극복 방법에 대해 응답한 209명을 대상으로 분석

### □ 외로움

#### ○ 1인가구의 62.4% 외로움 경험

- 1인가구 중 62.4%는 외로움을 경험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 이혼/별거 상태인 1인가구의 외로움 경험 비율 높게 나타남

표 3-80 | 외로움

(단위: %)

구분		경험	비경험
전체		62.4	37.6
성별	남성	62.2	37.8
	여성	62.7	37.3
세대별	청년	56.5	43.5
	중장년	66.4	33.6
	노년	65.3	34.7
혼인 상태별	기혼	48.1	51.9
	미혼	61.4	38.6
	이혼	68.5	31.5
	별거	82.8	17.2
	사별	64.6	35.4

#### ○ 1인가구는 외롭다고 느낄 때 취미활동이나 오락활동을 해

- 1인가구는 외롭다고 느낄 때 취미활동을 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락활동(33.7%), 친목모임(29.1%), 신체활동(22.2%) 순임

- 1인가구 10명 중 1명은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는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외로울 때 취미활동을 하며, 노년 1인가구는 친목모임을 주로 함

표 3-81 | 외로움 대처 방법(1+2순위)

(단위: %)

구분	오락 활동	취미 활동	신체 활동	친목모임	혼식, 혼주	종교 활동	외부 기관 요청	기타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전체	33.7	37.5	22.2	29.1	21.6	5.3	0.5	2.1	14.3	
성별	남성	41.1	37.2	26.0	22.8	23.5	5.4	0.7	1.5	10.6
	여성	25.0	37.8	17.7	36.6	19.3	5.2	0.3	2.9	18.8
세대별	청년	39.4	41.6	24.4	27.8	22.5	4.7	1.1	1.6	7.9
	중장년	32.8	39.3	24.7	26.0	24.4	5.2	0.2	2.2	12.5
	노년	25.2	26.1	13.1	37.9	14.2	6.7	0.0	2.9	30.1

## 2) 식생활

### □ 먹거리 안정성

#### ○ 1인가구의 85.6%는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 1인가구의 85.6%는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먹거리 안정성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먹거리 불안정성은 14.4%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먹거리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82 | 먹거리 안정성

(단위: %)

구분	먹거리 안정성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함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함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음				
전체	85.6	47.4	38.2	11.2	3.2	
성별	남성	82.2	39.8	42.4	14.2	3.6
	여성	89.7	56.5	33.2	7.6	2.7
세대별	청년	87.4	44.6	42.9	10.2	2.3
	중장년	84.0	42.6	41.4	11.2	4.9
	노년	85.7	62.6	23.2	12.9	1.4

-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는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는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가 31.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30.8%),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29.2%)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질환, 체중조절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83 |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1+2순위)

(단위: %)

구분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음식 조리방법을 몰라서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질환, 체중조절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이 필요해서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조리공간과 조리기구가 없어서	기타	
전체	31.7	30.8	29.2	19.8	16.6	13.2	6.5	6.1	8.4	
성별	남성	33.2	29.3	29.5	24.4	18.4	10.9	4.9	8.0	7.0
	여성	29.2	33.2	28.7	12.9	13.8	16.8	8.9	3.2	10.7
세대별	청년	38.4	36.3	30.4	14.6	18.3	8.7	5.0	5.7	6.9
	중장년	26.5	25.1	27.5	23.8	13.8	17.6	7.8	7.5	7.1
	노년	27.5	33.2	30.9	23.0	21.1	12.4	6.7	2.2	18.5

주: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411명을 대상으로 조사

○ 1인가구의 먹거리 불안정 주 이유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 먹거리 불안정 이유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32.1%),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19.4%) 순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음식 조리방법을 몰라서 먹거리가 안정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00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1인가구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 먹거리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301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1인가구는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먹거리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함

표 3-84 | 먹거리 불안정 이유(1+2순위)

(단위: %)

구분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음식 조리방법을 몰라서	질한, 체중조절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이 필요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
전체		54.0	32.1	19.4	14.7	11.1	10.4	7.8	8.6
성별	남성	49.2	31.0	21.7	13.0	12.7	7.8	11.5	8.5
	여성	63.9	34.6	14.8	18.2	7.7	15.8	0.0	8.7
세대별	청년	57.8	38.4	6.4	9.4	6.1	5.8	7.5	12.2
	중장년	50.5	24.5	27.6	13.3	15.1	16.9	4.5	5.8
	노년	55.8	39.7	21.7	26.3	9.8	2.8	15.8	9.0
소득 수준별	200만원 이하	57.5	30.7	16.9	16.1	12.3	10.1	8.5	7.7
	201-300만원 이하	56.2	27.4	25.4	15.4	10.9	11.2	0.0	11.6
	301-400만원 이하	44.2	44.7	12.9	7.4	4.1	4.5	20.9	11.1
	401만원 이상	22.6	41.0	41.8	10.6	12.6	25.7	0.0	0.0

주: 먹거리 불안정을 경험한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

□ 식사 해결방법

-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배달음식으로 끼니 해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 1인가구는 혼자 식사할 때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달음식(30.4%), 가정 간편식 이용(23.8%), 편의점 음식(15.6%)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는 음식점에 방문하여 식사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년 1인가구는 빵,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3-85 | 식사 해결방법(1+2순위)

(단위: %)

구분	직접 음식 조리	배달 음식	가정 간편식 이용	편의점 음식	포장 후 집에서	빵, 샌드 위치	음식점 방문 식사	직장, 학교 식당	식사 거름	기타	
전체	58.7	30.4	23.8	15.6	15.5	14.7	12.8	6.1	3.5	0.8	
성별	남성	47.9	34.8	23.9	19.4	16.5	10.9	16.3	8.5	2.9	0.5
	여성	71.6	25.0	23.6	11.1	14.3	19.2	8.7	3.3	4.2	1.1
세대별	청년	43.9	43.4	23.8	21.5	16.7	10.2	10.6	8.1	2.4	0.7
	중장년	57.3	28.9	23.6	15.4	15.6	13.8	16.1	6.8	4.3	0.7
	노년	89.1	9.1	23.8	5.2	13.0	24.8	10.3	0.9	3.8	1.0

□ 결식 이유

- 1인가구는 주로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며,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이유, 여성 1인가구는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거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1인가구는 주로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자 먹기 싫어서(8.6%), 다이어트를 위해서(7.6%), 경제적 이유로(6.3%) 순임
  -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이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식사를 못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혼자 먹기 싫어서 식사를 거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86 | 결식 이유

(단위: %)

구분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혼자 먹기 싫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경제적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장 보는 것이 번거로워서	기타	거른 적 없음
전체		44.7	8.6	7.6	6.3	5.8	5.6	6.8	14.6
성별	남성	39.6	9.0	5.3	8.7	8.1	5.2	9.4	14.8
	여성	50.8	8.2	10.3	3.4	3.2	6.0	3.7	14.4
세대별	청년	47.4	2.9	8.1	9.7	8.9	6.1	6.8	10.1
	중장년	40.0	11.2	8.2	5.4	5.5	4.6	8.4	16.6
	노년	49.5	13.7	5.4	1.8	0.8	6.7	3.5	18.6

## 8. 사회적 관계망

### □ 소통 빈도

- 1인가구의 18.4%는 하루에 한번 가족, 친구, 이웃과 대면으로 소통해
  - 1인가구 4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고 있음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하루에 한번 이상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월 1회 미만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87 | 소통 빈도(대면)

(단위: %)

구분		하루에 한번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월 1회 미만
전체		18.4	24.0	25.7	10.3	10.4	11.2
성별	남성	12.3	23.6	26.0	10.7	12.6	14.7
	여성	25.7	24.4	25.3	9.9	7.8	7.0
세대별	청년	16.9	24.0	27.1	12.0	12.3	7.8
	중장년	14.4	20.3	27.3	10.7	11.4	16.0
	노년	29.6	31.5	19.8	6.5	5.2	7.4

- 1인가구의 43.9%는 하루에 한번 가족, 친구, 이웃과 비대면(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소통해
  - 1인가구의 43.9%는 하루에 한번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22.7%는 2-3일에 한번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하루에 한번 비대면으로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월 1회 미만 가족, 친구, 이웃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88 | 소통 빈도(비대면)

(단위: %)

구분		하루에 한번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월 1회 미만
전체		43.9	22.7	17.6	5.2	3.1	7.5
성별	남성	36.6	25.8	18.1	6.3	3.1	10.1
	여성	52.5	19.0	17.1	4.0	3.0	4.4
세대별	청년	52.7	19.8	17.2	4.9	2.3	3.1
	중장년	37.4	24.5	15.9	6.0	4.0	12.2
	노년	41.0	24.5	21.9	4.1	2.7	5.8

#### □ 소통의 장점

-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은 안부(건강)를 확인하고 답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
  - 1인가구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안부(건강)를 확인하고 답소를 나누는다는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미, 여가활동을 함께 즐긴다(28.1%),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23.4%)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일상생활 도움, 청년 1인가구는 취미, 여가활동을 함께 즐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89 | 소통 장점

(단위: %)

구분		안부(건강) 확인 및 답소나눔	취미, 여가활동을 함께 즐긴다	일상생활 도움	경제적 도움	사회 및 기타 활동을 함께한다	돌봄	주거환경 개선	기타
전체		82.6	28.1	23.4	13.8	5.6	3.2	3.2	1.4
성별	남성	78.4	29.6	20.3	15.4	5.7	3.2	4.0	1.9
	여성	87.5	26.3	27.1	12.0	5.5	3.2	2.2	0.9
세대별	청년	77.9	35.8	22.2	13.2	2.8	3.5	3.9	0.9
	중장년	82.1	27.5	18.2	11.2	6.7	2.6	3.2	2.4
	노년	92.2	14.9	36.2	20.4	8.5	4.0	2.0	0.4

□ 사회적 고립

○ 1인가구 5명 중 1명은 고립되어 있어

- 1인가구의 20.5%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남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비율 높게 나타남

표 3-90 | 사회적 고립

(단위: %)

구분		사회적으로 고립됨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음
전체		20.5	79.5
성별	남성	22.3	77.7
	여성	18.3	81.7
세대별	청년	14.1	85.9
	중장년	21.0	79.0
	노년	31.2	68.8

주: 사회적 고립은 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2)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3)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라는 3가지 문항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 은둔 경험

○ 1인가구의 6.2%는 은둔 경험해

- 1인가구의 6.2%는 최근 6개월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200만원 미만의 1인가구의 은둔경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1 | 은둔 경험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6.2	93.8
성별	남성	7.0	93.0
	여성	5.3	94.7
세대별	청년	6.5	93.5
	중장년	8.5	91.5
	노년	0.9	99.1
소득 수준별	200만원 이하	9.3	90.7
	201-300만원 이하	4.0	96.0
	201-400만원 이하	4.4	95.6
	401만원 이상	4.5	95.5

## □ 은둔 원인

- 1인가구의 46.7%는 자발적 선택으로 은둔을 선택해
  - 1인가구의 은둔 원인은 자발적 선택이 46.7%로 가장 높았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29.7%), 실직(24.7%), 취업 실패(17.2%)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 연령이 높을수록 자발적인 선택으로 은둔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의 1인가구는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은둔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2 | 은둔 원인(중복응답)

(단위: %)

구분	나 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신적 어려움	실직	취업 실패	대인 관계 어려움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장애	임신, 육아, 출산 등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갈등	기타	
전체	46.7	29.7	24.7	17.2	16.6	9.6	1.4	1.2	5.2	
성별	남성	35.4	28.0	26.0	18.4	14.0	9.7	2.3	2.0	8.5
	여성	64.5	32.4	22.7	15.4	20.7	9.3	0.0	0.0	0.0
세대별	청년	46.1	34.2	27.2	17.6	14.5	11.7	3.6	0.0	10.1
	중장년	46.6	23.1	24.2	17.8	18.9	8.6	0.0	2.1	2.1
	노년	55.6	10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수준별	200만원 이하	48.1	38.5	26.4	16.1	21.1	16.3	2.4	0.0	2.4
	201-300 만원 이하	63.3	15.0	18.1	15.8	6.7	0.0	0.0	0.0	12.7
	201-400 만원 이하	36.0	11.3	27.9	24.0	24.8	0.0	0.0	0.0	0.0
	401만원 이상	14.1	29.6	24.4	18.9	0.0	0.0	0.0	13.0	13.1

주: 은둔 경험이 있는 67명을 대상으로 조사

## □ 모임 및 단체활동 경험

- 1인가구의 53.4%는 지난 1년간 모임 또는 단체활동 참여 경험 있어
  - 1인가구의 53.4%는 지난 1년간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 있으며,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참여 경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인가구는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창회/동창모임(21.3%),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동호회(14.5%) 순임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에 참여한 비율이 높고 청년 1인가구는 자원봉사 단체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3 | 모임 및 단체 활동 경험(1+2순위)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동창회/동창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동호회	종교 단체	자원 봉사 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기타		
전체	46.6	53.4	29.3	21.3	14.5	8.0	3.9	1.8	3.2	
성별	남성	43.9	56.1	25.7	23.3	17.5	7.2	6.2	2.8	3.4
	여성	49.8	50.2	33.5	18.8	11.0	8.9	1.2	0.6	2.9
세대별	청년	48.0	52.0	24.2	14.9	17.2	7.4	5.7	1.8	4.5
	중장년	43.7	56.3	28.5	25.3	17.4	7.5	3.3	2.4	2.8
	노년	49.8	50.2	40.2	24.6	3.8	10.0	1.8	0.5	1.4

□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

- 1인가구는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등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높아
  - 1인가구의 31.0%는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다음으로 동창회/동창 모임(22.5%),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동호회(18.2%) 순임
  - 남성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자원봉사단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41.3%는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이 없었고,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4 |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1+2순위)

(단위: %)

구분		친목회/ 친목계/ 지역모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창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와 각종 동호회	자원 봉사 단체	시민 운동 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정당	종교 단체	기타	없음
전체		31.0	22.5	18.2	12.3	3.7	1.8	1.2	5.7	0.2	41.3
성별	남성	28.4	24.1	25.6	12.3	5.2	2.2	2.0	5.6	0.0	36.7
	여성	34.1	20.5	9.5	12.3	1.8	1.2	0.2	5.8	0.4	46.9
세대별	청년	24.1	18.3	21.4	11.4	5.2	2.9	2.1	3.1	0.0	44.1
	중장년	30.1	23.8	23.3	16.3	3.5	1.6	1.0	6.3	0.2	36.3
	노년	45.7	27.3	1.9	5.6	1.2	0.0	0.0	9.0	0.5	46.6

## 9. 여가

### □ 여가활동

○ 1인가구의 주 여가 활동은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

- 1인가구가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여가활동은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이 6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튜브, 블로그, SNS, 인터넷 검색 등(23.3%), 휴식(21.6%)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을 시청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운동활동, 컴퓨터 게임, 운동 경기 관람을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장년 1인가구는 여행, 캠핑을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5 | 여가활동

(단위: %)

구분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	유튜브, 블로그, SNS, 인터넷 검색 등	휴식	운동 활동	컴퓨터 게임	여행, 캠핑	문화 예술 관람	운동 경기 관람	창작적 취미 활동	기타	아무 것도 하지 않음	
전체	62.9	23.3	21.6	17.7	14.0	9.6	9.3	8.3	6.6	8.8	1.8	
성별	남성	54.7	22.1	15.8	22.4	21.8	10.4	11.4	10.8	7.2	6.1	2.0
	여성	72.7	24.6	28.6	12.0	4.6	8.7	6.9	5.2	5.8	12.0	1.5
세대별	청년	42.8	26.8	16.6	21.7	23.0	9.5	12.2	12.9	10.2	6.8	2.0
	중장년	67.4	24.5	18.6	17.7	11.2	12.3	10.2	7.5	6.2	7.1	1.8
	노년	90.9	14.1	37.3	9.9	3.0	4.3	2.3	1.3	0.5	16.1	1.4

### □ 여가활동 동반자

○ 1인가구 2명 중 1명은 혼자서 여가문화 활동을 해

- 1인가구의 56.0%는 혼자서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연인 포함) 34.2%, 가족 4.1%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는 친구와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6 |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구분		혼자서	가족 (친척 포함)	친구 (연인 포함)	직장동료	동호회 (종교단체 등 포함)
전체		56.0	4.1	34.2	2.5	3.1
성별	남성	57.9	3.8	30.5	3.5	4.3
	여성	53.8	4.5	38.5	1.4	1.8
세대별	청년	43.7	3.1	44.4	3.7	5.1
	중장년	63.2	5.5	26.8	2.3	2.2
	노년	64.0	2.9	30.9	0.8	1.4

#### □ 여가시간 충분성

##### ○ 1인가구 3명 중 1명은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

- 1인가구의 30.8%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여성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에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인가구의 27.1%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에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7 |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구분	부족			보통	충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전체		27.1	7.2	19.9	42.1	30.8	6.0	24.8
성별	남성	29.0	7.8	21.2	42.1	28.9	5.0	23.9
	여성	24.8	6.4	18.4	42.2	33.0	7.2	25.8
세대별	청년	35.0	9.3	25.8	35.6	29.4	5.6	23.8
	중장년	28.0	8.3	19.7	47.2	24.8	4.6	20.2
	노년	10.4	0.9	9.6	43.8	45.8	9.9	35.9

## 제3절 유형화 분석

### 1. 분석 개요

#### □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집단을 유형화하는 분석방법

- 집단을 유형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이 있음. 단순히 관찰된 값을 통해 대상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프로파일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이 주목을 받고 있음(황해익 외, 2019)

- 잠재집단분석은 관찰변수들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특성 정보들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기준에 관찰되지 않았던 잠재집단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잠재집단분석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들을 추정하고, 모형검증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기준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

- 최적의 적합 기준은 정보지수, 우도비 검정법, 엔트로피 지수를 조합하여 활용

-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t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값들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함을 의미

- 우도비 검정법을 활용하여 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하며, LMR(Lo-Mendell-Rubin LR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등이 활용됨. 이 때 p값이 유의하면 잠재집단 수가 k개인 모형이 k-1 개인 모형보다 더 적합함을 의미함(Lo et al., 2001)

-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데 이는 추정된 모델이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보여줌. 엔트로피 지수는 0 이상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나며, 값이 클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0.8 이상일 때 잠재집단들이 양호하게 분류되었다고 판단

####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의 13개 영역 삶의질 문항을 기준으로 4개 잠재집단 도출

- 표본크기가 크고 모형이 복잡할수록 정보지수, 우도기 검정법, 엔트로피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경우 수치들의 스크리도표 기울기가 완만해 지는 구간에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김영서·홍세희, 2021)

- 집단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정보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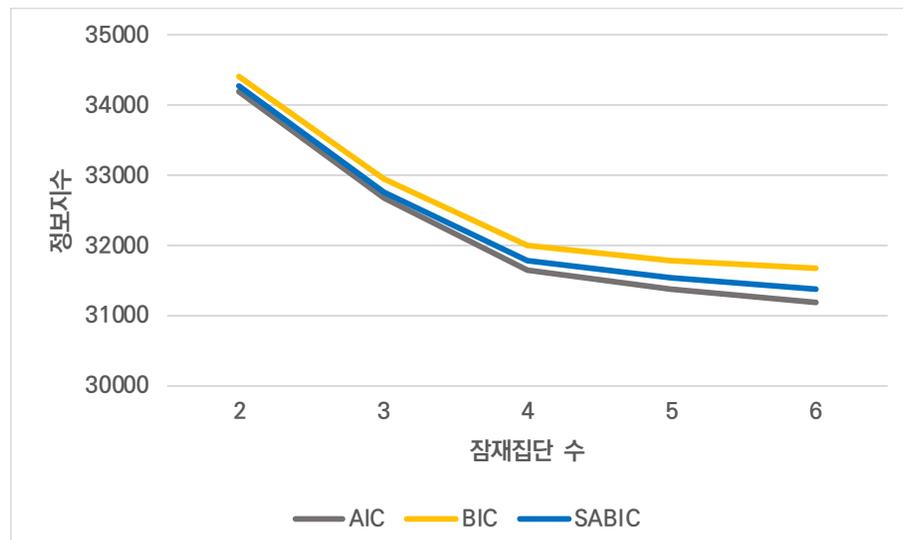
- 우도비 검정에 기반한 BLRT 값은 네 가지 분류 모두 0.50 미만으로 유의
- 엔트로피 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분류의 질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개 집단의 엔트로피 지수는 0.91로 3개와 5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남
-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잠재집단 수가 4개인 모형을 채택

표 3-98 |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구분		잠재집단 수				
		2	3	4	5	6
정보지수	AIC	34204	32668	31653	31379	31190
	BIC	34404	32937	31992	31787	31668
	SABIC	34276	32765	31776	31527	31363
x2	BLRT(p값)	0.01	0.01	0.01	0.01	0.01
분류의 질	Entropy	0.93	0.90	0.91	0.86	0.85
분류율(%)	집단1	0.51	0.35	0.37	0.27	0.28
	집단2	0.49	0.48	0.15	0.10	0.08
	집단3		0.17	0.39	0.07	0.03
	집단4			0.09	0.30	0.06
	집단5				0.27	0.30
	집단6					0.25

주. N=1,075.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그림 3-1 |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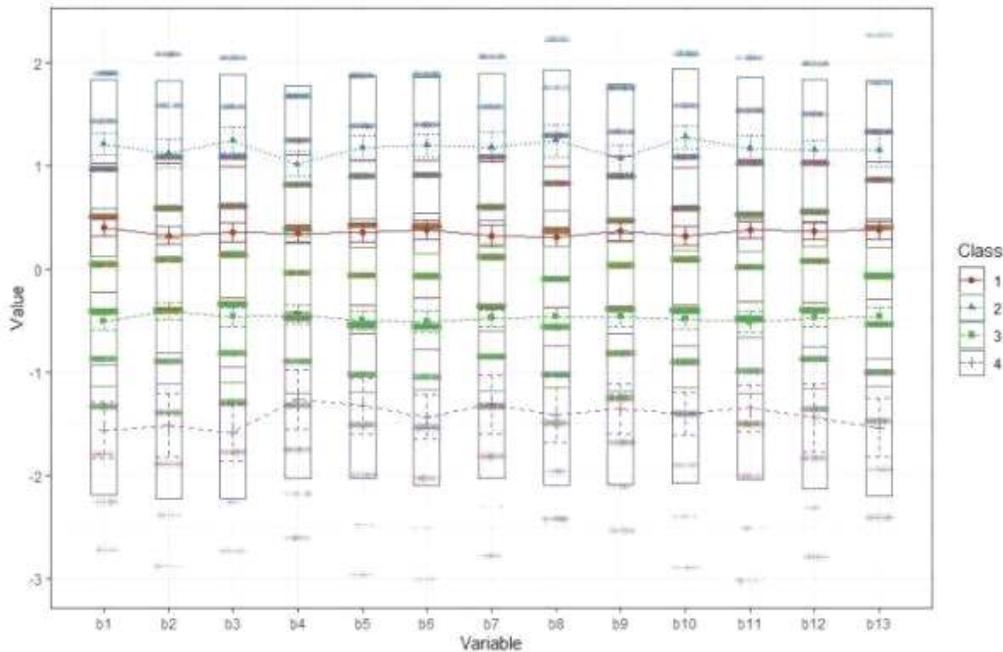


□ 수원시 1인가구의 삶의질 점수에 따라 총 4개의 잠재집단 도출

○ 집단2의 삶의질 점수 가장 높게 나타남

- X축은 삶의 만족도의 13개 영역을 의미하며, Y축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냄. Y축은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삶의질을 11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매우 불만족(0점)-매우 만족(10점)으로 조사한 값을 표준화한 값임. 표준화된 삶의질 점수가 0점이면 평균 수준, 양수일 경우 평균 이상, 음수이면 평균 이하를 의미함
- 그래프는 상자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각 집단 내의 표준 편차를 반영함. 그림을 보면, 집단2의 삶의질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집단1, 집단3, 집단4 순으로 삶의질 점수가 나타남

그림 3-2 | 잠재집단별 삶의질 점수 분포



□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를 통해 4개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

○ 집단간 삶의질 점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267.001$ ,  $p=0.000$ 으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즉 두 개 집단 간에는 삶의질 만족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음
- 쉘페 검증(scheffe test) 결과 4개 집단간 삶의질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2의 삶의질 점수가 83.0점으로 집단1(65.7점), 집단3(48.0점), 집단4(27.8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9 | 집단 간의 삶의 질 차이 검증

(N=1,075)

구분	삶의질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집단	집단1 <sup>a</sup>	404	65.7	4.93	267.001	.000	a, c, d <b
	집단2 <sup>b</sup>	175	83.0	6.61			
	집단3 <sup>c</sup>	402	48.0	5.24			
	집단4 <sup>d</sup>	94	27.8	8.31			

\*p&lt;.05, \*\*p&lt;.01, \*\*\*p&lt;.001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삶의질 문항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잠재집단 도출

- 집단1: 생활안정형 - 주거 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2: 능동행복형 - 삶의질이 가장 높고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3: 잠재위기형 -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집단
- 집단4: 다중결핍형 -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모두가 불안하며 비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 2. 잠재집단 특성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삶의질이 가장 높은 능동행복형은 영통구, 청년, 미혼, 고학력자, 관리전문직 비율 높고, 삶의질이 가장 낮은 다중결핍형은 팔달구, 중장년, 미혼, 이혼, 고졸이하, 블루칼라 비율 높게 나타남
- 삶의질이 높은 능동행복형은 영통구, 생활안정형은 권선구, 잠재위기형은 장안구, 다중결핍형은 팔달구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삶의질이 높은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청년 비율이 높고, 삶의질이 낮은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중장년과 노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 다중결핍형은 미혼 비율이 높으며, 잠재위기형은 사별 비율, 다중결핍형은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삶의질이 높은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대학교 졸업 비율이 높고,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고졸이하 비율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직업이 있으며, 생활안정형은 화이트칼라, 능동행복형은 관리전문직,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블루칼라 비율 높게 나타남

표 3-100 |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사례 수		1,075	404	175	402	94
비율		100	37.6	16.3	37.4	8.7
성별	남성	54.3	54.5	61.7	50.0	58.5
	여성	45.7	45.5	38.3	50.0	41.5
지역	권선구	28.7	32.4	29.7	24.9	26.3
	영통구	29.1	32.2	33.7	26.9	16.8
	장안구	20.6	16.1	13.7	28.4	18.9
	팔달구	21.7	19.3	22.9	19.7	37.9
연령		45.3	42.3	35.0	50.7	53.9
세대	청년	37.5	43.6	62.3	24.4	21.3
	중년	24.2	24.8	21.7	25.9	18.9
	장년	18.0	17.1	9.1	20.9	25.3
	노년	20.4	14.6	6.9	28.6	35.1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혼인 상태	기혼	5.8	5.0	7.4	6.0	5.3
	미혼	63.7	70.5	81.7	53.0	46.3
	이혼	13.2	9.9	7.4	15.7	27.4
	별거	1.6	0.5	0.0	3.2	2.1
	사별	15.8	14.1	3.4	22.1	18.9
학력	고졸이하	46.3	35.6	36.6	56.9	64.9
	대학교 졸업	47.1	56.2	54.9	38.4	30.9
	대학원 졸업	6.6	8.2	8.6	4.7	4.3
직업 유무	있음	70.7	77.7	85.7	62.9	45.7
	없음	29.3	22.3	14.3	37.1	54.3
직업 구분	관리전문직	25.8	27.6	38.7	19.0	7.0
	화이트칼라	36.1	41.6	34.0	30.0	39.5
	블루칼라	32.6	24.1	22.0	46.6	48.8
	기타	5.5	6.7	5.3	4.3	4.7

#### □ 1인가구의 삶과 인식

○ 다중결핍형은 1인가구로 생활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 꼽아

- 혼자 산 기간은 능동행복형이 가장 낮고,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다중결핍형순으로 높아짐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은 자발적 이유로 혼자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중결핍형은 비자발적 이유로 혼자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다중결핍형은 이루고 싶은 가구형태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잠재위기형은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중결핍형은 원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과 공동주택 거주(고령자용 주택 등)하고 싶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인 생활이 좋은 이유는 1순위는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2순위에 대해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직장업무나 학업 등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가족부양 부담이 없다는데 장점을 느껴
- 1인가구 10명 중 8-9명은 1인 생활을 하며 힘든 점을 느끼고 있으며, 다중결핍형에서 힘든 점을 가장 많이 느낌.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다중결핍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힘들어해

- 1인가구의 현재 중요한 관심사 1순위는 건강관리(다이어트, 운동)이며, 2순위는 집단별 차이 있음. 생활안정형은 재테크, 능동행복형은 연애/결혼, 잠재위기형 진로, 다중결핍형은 주거로 나타남
- 삶의질 평균은 58.6점이며, 능동행복형의 삶의질이 8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활안정형(65.7점), 잠재위기형(48.0점), 다중결핍형(27.8점) 순임

표 3-101 | 1인가구의 삶과 인식

(단위: 점, 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삶의질	58.6	65.7	83.0	48.0	27.8	
혼자 산 기간	10.0	8.9	7.0	11.3	15.3	
혼자 산 이유	자발	62.6	70.5	81.8	51.0	42.1
	비자발	36.4	28.5	16.5	48.3	56.8
	기타	1.0	1.0	1.7	0.7	1.1
이루고 싶은 가구 형태	1순위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지금처럼 혼자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2순위	지금처럼 혼자	지금처럼 혼자	지금처럼 혼자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지금처럼 혼자
1인생활 좋은 점 있다 비율	92.2	98.8	98.3	88.6	68.4	
1인생활 좋은 이유	1순위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2순위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가족 부양 부담 없음	가족 부양 부담 없음
	3순위	가족 부양 부담 없음	경제적 여유	경제적 여유	가사 등 집안일 적음	가사 등 집안일 적음
1인생활 힘든 점 있다 비율	91.8	92.1	80.6	95.3	96.8	
1인생활 힘든 이유	1순위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2순위	경제적 어려움	식사해결의 어려움	식사해결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순위	식사해결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식사해결의 어려움	식사해결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있음 비율	81.0	79.5	65.3	87.0	90.5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어려운 이유	1순위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2순위	혼자 아프거나 죽을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	혼자 아프거나 죽을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혼자 아프거나 죽을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
불편한 점 해소 방법	1순위	최대한 혼자 해결	최대한 혼자 해결	가족에게 도움, 친구에게 도움	최대한 혼자 해결	최대한 혼자 해결
	2순위	가족에게 도움	가족에게 도움	-	가족에게 도움,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반려동물 있음 비율		9.9	9.7	9.7	8.7	15.8
관심사	1순위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2순위	진로	재테크	연애/결혼	진로	주거
	3순위	재테크	연애/결혼	진로	재테크	진로, 재테크
반려동물 키울 의사		24.3	26.8	28.3	19.7	26.3

#### □ 소득과 소비

- 능동행복형의 월평균(개인)소득이 가장 높고 다중결핍형이 가장 낮아,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의류/잡화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보건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일자리 있음(비경활, 실업자 제외) 비율은 능동행복형이 85.7%로 가장 높고, 생활안정형(77.7%), 잠재위기형(62.9%), 다중결핍형(45.7%) 순임
  - 생활안정형은 화이트컬러 비율이 가장 높고, 능동행복형은 관리전문직,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블루컬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은 능동행복형이 가장 높고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다중결핍형 순
  -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다중결핍형이 가장 높고 잠재위기형-능동행복형-생활안정형 순
  - 다중결핍형은 필요소득 보다 월평균 소득이 낮고 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2,228,445원)보다 낮은 수준
  - 1인가구 생활비는 생활안정형이 160.2만원으로 가장 높고 능동행복형(158.4만원)-잠재위기형(145.0만원)-다중결핍형(116.8만원)순임
  - 생활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의류/잡화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보건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율은 능동행복형이 가장 높고 다중결핍형의 4.3%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음

표 3-102 | 경제활동

(단위: 만원, %, 만원,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일자리 있음 <sup>2)</sup> 비율		70.7	77.7	85.7	62.9	45.7
직업	관리 전문직	25.8	27.6	38.7	19.0	7.0
	화이트컬러	36.1	41.6	34.0	30.0	39.5
	블루 컬러	32.6	24.1	22.0	46.6	48.8
	기타	5.5	6.7	5.3	4.3	4.7
상용직 비율		55.8	60.8	68.4	49.1	39.6
월평균 소득		259.2	287.9	317.7	226.8	165.8
중위소득 50% 이하		20.4	13.6	14.8	23.4	46.8
생계급여 지급기준 이하		8.8	5.7	6.9	8.2	28.4
필요 소득		218.9	231.9	233.9	208.2	181.2
적정 소득		260.0	275.9	276.7	244.9	225.8
생활비		150.4	160.2	158.4	145.0	116.8
생활비 지출 비중	가정내 식료품비	22.4	21.7	19.3	23.5	26.1
	음식 포장 지출비	13.4	14.2	14.3	13.2	9.1
	주거비	19.7	18.8	20.2	18.9	25.5
	의류/잡화비	7.2	7.9	8.7	6.5	3.8
	교통비	7.0	7.4	7.1	6.7	6.5
	통신비	6.2	5.9	6.0	6.5	6.4
	교육비	1.8	1.6	3.0	1.6	1.6
	보건 의료비	6.1	5.7	4.1	7.1	7.4
	문화 여가비	6.2	7.0	7.0	5.7	3.6
	사적이전	3.4	3.0	3.7	3.7	2.8
	기타	3.7	6.6	6.8	6.6	6.7
노후준비율		22.3	23.5	41.7	16.7	4.3

주: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1인가구 기준(2,228,445원), 생계급여 지급기준(713,102원)

2) 실업자, 비경제활동 제외

## □ 복지

- 다중결핍형은 나의 돌봄과 가족의 돌봄 경험 모두 높고,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 경험은 다중결핍형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능동행복형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신체적 돌봄서비스가 아닌 일상지원(가사활동 등)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다중결핍형은 전문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다중결핍형이 가장 높고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능동행복형 순임
  -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돌보는 이유가 부양해야 할 가족(부모, 조부모)이 있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중결핍형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중결핍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과 생활비 부족 경험이 높게 나타남. 특히 다중결핍형의 10명중 8명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해
  - 생활비가 부족할 때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다중결핍형은 가족, 친지에게 빌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다중결핍형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4.7%로 높게 나타남
  - 가족, 친지, 친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은 경험은 능동행복형이 가장 높았고 주 이유는 주거비 때문으로 나타남
  - 다중결핍형은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주거비 이외에도 의료비를 이유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경제적인 이유로 다차원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다중결핍형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03 | 복지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돌봄서비스 경험		5.8	5.4	3.4	5.0	14.9
돌봄 서비스 유형	1순위	일상지원	일상지원	일상지원, 일상생활	일상지원	전문서비스
	2순위	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	-	전문서비스	일상지원
가족돌봄 경험		5.9	6.4	4.6	5.2	8.5
가족 돌봄 이유	1순위	부양해야할 가족	부양해야할 가족	부양해야할 가족	부양해야할 가족	간병이 필요한 가족
	2순위	양육이 필요한 가족	양육이 필요한 가족	양육이 필요한 가족	양육이 필요한 가족	부양해야 할 가족, 집안일을 위한 돌봄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		9.0	4.0	5.1	9.7	35.1
생활비 부족 경험		41.9	34.2	27.4	47.3	78.9
생활비 부족 해결 방안	1순위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가족, 친지에게 빌림			
	2순위	가족, 친지에게 빌림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가족, 친지에게 빌림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 해약
	3순위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가족, 친지에게 빌림	가족, 친지에게 빌림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해결하지 못함
생활비 보조 경험		23.3	24.3	29.1	22.4	11.7
생활비 보조 이유	1순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생활비 보조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보조
	2순위	생활비 보조	생활비 보조	생활비 보조	주거비	-
다차원 빈곤 경험		1.0	1.0	0.6	0.7	3.2

## □ 주거

- 다중결핍형은 1인가구로 수원시에서 거주한 기간 가장 길며 향후 2년 후에도 수원시 거주 의향 높아
  - 다중결핍형은 수원시에서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며, 향후 2년후에도 수원시에 거주하겠다는 비율은 잠재위기형이 가장 높았고 능동행복형이 가장 낮음
  -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 높음
  -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일반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생활안정형과 잠재위기형은 전세 거주 비율, 능동행복형과 다중결핍형은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거주 비율 높아
  - 주거 선택 시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은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다중결핍형은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주택 선택시 어려운 점은 생활안정형-다중결핍형 모두 주거비 마련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을 꼽아
  - 주거 불안 경험은 다중결핍형이 66.3%로 가장 높았고, 주거 불안 이유로는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생활안정형은 주거불안 경험이 가장 낮았으며, 보증금 반환 위험을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축이나 불편함 경험은 생활안정형이 가장 낮고 다중결핍형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04 | 주거

(단위: 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수원시 거주 시작	2008	2011	2014	2005	2000	
2년 후 수원시 거주 의향	80.5	77.5	77.1	84.3	83.0	
주택 유형	1순위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단독주택	단독주택
	2순위	아파트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3순위	연립/다세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택 점유 형태	1순위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2순위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공공임대주택
	3순위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전세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주거안전성 (자가+전세)		54.4	59.9	50.5	57.7	23.4
주거비 부담 정도		67.9	65.0	59.7	70.8	82.2
주거 선택시 중요한 점	1순위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2순위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점
주택 선택시 어려운 점	1순위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2순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주거 불안 경험		36.7	32.2	35.4	34.8	66.3
주거 불안 이유	1순위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보증금 반환 위험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2순위	보증금 반환 위험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보증금 반환 위험	보증금 반환 위험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 위험
	3순위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 위험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 위험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 확보 곤란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 확보 곤란
주거환경으로 인해 위축이나 불편함 경험		27.8	19.3	22.9	32.7	52.6

## □ 안전

- 모든 집단이 범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귀갓길이라 인식하며 범죄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
  - 범죄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생활안정형-다중결핍형 모두 귀갓길이라고 인식함
  - 노출된 범죄 유형으로 생활안정형은 사기죄, 능동행복형은 성희롱·성폭행,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폭행이 가장 높아
  - 모든 집단이 범죄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음.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잠재위기형이 38.1%로 가장 높아

표 3-105 | 안전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범죄 겪을 가능성 높은 장소	1순위	귀갓길	귀갓길	귀갓길	귀갓길	귀갓길
	2순위	방치된 공간	방치된 공간	거주하는 내부 공간	방치된 공간	거주하는 건물 외부 공간
	3순위	거주하는 건물 외부 공간				
노출된 범죄 유형	1순위	폭행	사기죄	성희롱·성폭행	폭행	폭행
	2순위	사기죄	폭행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3순위	성희롱·성폭행	성희롱·성폭행	폭행	성희롱·성폭행	주거침입절도
범죄나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	1순위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				
	2순위	아무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3순위	범죄피해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범죄피해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 건강과 건강행동

- 능동행복형은 건강상태가 가장 좋으며(주관적 신체건강, 만성질환 있음 비율 가장 낮음), 다중결핍형은 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해
  - 주관적 신체건강은 능동행복형이 69.7%로 가장 높고 다중결핍형의 9.6%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다중결핍형의 59.6%가 만성질환이 있어 만성질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해 능동행복형은 73.7%는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으나 다중결핍형은 14.7%만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잠재위기형이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중결핍형-생활안정형-능동행복형순임
  - 외로움 대처 방안에 대해 생활안정형과 잠재위기형은 오락활동, 능동행복형은 취미활동을 하나 다중결핍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둔 비율은 다중결핍형이 15.8%로 가장 높았으며,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60.0%로 높게 나타남
  - 다중결핍형의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이유는 경제적 이유(56.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순임

표 3-106 | 건강과 건강행동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주관적 신체건강		38.5	45.0	69.7	25.2	9.6
만성질환율		35.6	25.5	16.6	48.4	59.6
주관적 정신건강		43.1	51.1	73.7	28.4	14.7
외로움		62.5	58.9	35.2	75.1	74.7
외로움 대처	1순위	오락활동	오락활동	취미활동	오락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음
	2순위	취미활동	취미활동	오락활동, 취미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음	오락활동
	3순위	친목모임	친목모임	-	취미활동	혼식, 혼주
사회적고립		60.5	51.0	35.4	75.6	84.0
은둔		6.2	5.0	3.4	6.5	15.8
자살생각		21.2	17.1	8.6	21.7	60.0
자살	1순위	경제적 이유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생각 이유	2순위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경제적 이유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자살 극복 방법	1순위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2순위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	가족들의 도움으로 극복
먹거리 불안정		14.4	8.6	5.7	16.2	47.9
혼식 방법	1순위	직접 조리	직접 조리	직접 조리	직접 조리	직접 조리
	2순위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배달 음식	가정간편식
	3순위	가정간편식	가정간편식	가정간편식	가정간편식	편의점 음식

## □ 여가

### ○ 능동행복형을 제외한 3개 집단 모두 정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해

- 능동행복형을 제외한 3개 집단은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휴식을 취함. 능동행복형은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등의 정적인 활동 이외에 운동이나 여행, 캠핑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은 주로 혼자서 하거나 친구와 함께 해
-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능동행복형의 47.2%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안정형-잠재위기형-다중결핍형순임

표 3-107 | 여가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여가 활동 종류	1순위	휴식	휴식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휴식	휴식
	2순위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운동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3순위	컴퓨터 게임	운동	여행, 캠핑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여가 활동 동반자	1순위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2순위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여가시간 충분성		30.8	32.5	47.2	26.2	12.8

□ 사회적 관계망

○ 다중결핍형은 대면/비대면 소통빈도, 단체활동 참여 경험 가장 낮아

- 능동행복형은 가족, 친구, 이웃과 대면 소통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중결핍형은 월1회 미만(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중결핍형을 제외한 3개 집단이 지난 1년 동안 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임
- 4개 집단 모두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 또한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임
- 참여하고 싶은 모임으로 잠재위기형의 55.2%는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를 선택함

표 3-108 | 사회적 관계망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대면 소통	1순위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월1회 미만
	2순위	2-3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비대면 소통	1순위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순위	2-3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
소통의 장점	1순위	안부(건강) 확인 및 담소를 나눈다				
	2순위	취미,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긴다	취미,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긴다	일상생활 도움	경제적 도움	경제적 도움
단체활동 참여 경험		53.6	57.4	69.3	47.8	32.6
단체 활동 종류	1순위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동창회/동창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2순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창회/동창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
	3순위	동창회/동창모임	동창회/동창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창회/동창모임	종교단체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참여 하고 싶은 단체	1순위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친목회/친목계 등
	2순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창회/동창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창회/동창모임
	3순위	동창회/동창모임	자원봉사단체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	동창회/동창모임	자원봉사단체
사회적 관계망	39.5	49.0	64.6	24.4	16.0	

#### □ 정책수요

-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은 주거 지원정책(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 자금 대출)
  - 생활안정형-다중결핍형 모두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주거 지원정책을 응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정책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잠재위기형은 경제적 지원정책(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교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다중결핍형은 안전 정책(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에 대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09 | 정책수요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시급 정책	1순위	주거 지원정책	주거 지원정책	주거 지원정책	주거 지원정책	주거 지원정책
	2순위	경제적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3순위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안전 정책
공유주택 거주 의향		18.9	18.3	22.9	16.7	23.2
공유 주택 거주 위해 가장 필요한 점	1순위	낮은 주거비	낮은 주거비	낮은 주거비	낮은 주거비	낮은 주거비
	2순위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교통이 편리한 위치
	3순위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 마련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
수원시 거주 의향		80.5	77.5	77.1	84.3	83.0
반려동물 보유율		9.9	9.7	9.7	8.7	15.8
반려동물 키울 의사		24.3	26.8	28.3	19.7	26.3
온라인 포털 소옥 이용 경험		3.1	2.7	7.4	1.5	3.2
온라인 포털 소옥 이용 의향		61.8	64.4	61.3	58.5	65.9
정보 습득 경로	1순위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2순위	개인 SNS	개인 SNS	개인 SNS	개인 SNS	수원시 관계기관
	3순위	주변 지인	주변 지인	주변 지인	주변 지인	방송매체

## 제4절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 1. 취약 1인가구 FGI

#### 1) 조사 개요

##### □ 참여자 구성과 모집

- FGI는 청년(20-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각 1그룹씩 구성
  - 청년 1인가구는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의 협조를 받아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방에서 수원으로 와서 1인가구가 된 청년을 선정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수원시 건강가정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적 관계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선정함. 마지막으로 노년 1인가구는 능실복지관의 협조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년을 대상으로 선정함
  - FGI에 최종 선정된 청년그룹은 미취업청년, 취업청년, 가구분리가 안된 학교(또는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방에서 수원으로 와서 1인가구가 된 청년 등의 특성을 가진 4명이며, 중장년 그룹은 미혼, 직장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중장년, (주된 일자리) 퇴직한 중장년(또는 실직상태) 특성을 보인 총 2명임. 노년 그룹은 이혼 또는 사별, 가족과 단절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총 4명이 FGI에 참여

표 3-110 | 수원시 취약 1인가구 FGI 개요

구분	그룹	참여자	그룹특성
청년	1그룹(4명)	배00(남/25세), 양00(여/28세), 신00(남/27세), 이00(남/30세)	- 미취업 청년, 취업청년, 지방에서 수원으로 와서 1인가구가 된 청년 등
중장년	1그룹(2명)	신00(여/45세), 고00(여/52세)	- 미혼중장년,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중장년 등
노년	1그룹(4명)	권00(여/70세), 손00(남/63세) <sup>3)</sup> , 고00(남/74세), 김00(남/73세)	- 이혼 또는 사별한 노인, 가족과 단절된 노인 등

3) 손00는 능실복지관의 협조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장애를 가진 1인가구로 63세이나 노년 그룹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방식

○ FGI는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세대별 1그룹 진행

- 각 회기 당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고, FGI 실시 전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소개, 수행 방법, 비밀보장, 인터뷰 녹음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진행
- 첫 질문으로 언제부터 왜 1인가구로 살고 있는지, 혼자 사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질문하고 장단점으로 나오는 의견 중 주요하게 나타나는 이슈를 가장 먼저 분야별 심층질문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
- 이후 생계와 일, 건강 및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고립, 주거분야, 정책 수요에 대해 질문함
- 모더레이터는 FGI가 끝나기 전 모두에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참여자가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인터뷰 진행

표 3-111 | 수원시 1인가구 FGI 주요 질문 내용

구분	내용
1인가구의 삶	• 언제, 왜 1인가구가 되셨습니까?
	• 1인가구로 살면서 가족들과 교류를 하십니까? 교류하는 가족은 누구이며, 어떤 교류를 하십니까?
	• 1인가구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1인가구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생계와 일	• 현재 하시는 일과 생계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인가구-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 및 식생활	•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 혼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세요? 혼자 식사할 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망	• 1인가구가 되고 사회적 관계망(사람들과의 교류/친교 맺음 등)에 변화가 있었나요?
	• 혼자 생활하게 되시면서 만약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어떤 상황에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 혼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 (평소 교류하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립	• 귀하는 언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귀하는 수원시가 1인가구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를 활용한 말벗 서비스 등은 외로움이나 고립 해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AI 서비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좋은 점과 나쁜 점(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li> <li>• 1인가구여서 주거정책에서 불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li> </ul>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수원시가 어떤 것을 지원해줬으면 하시나요?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li> </ul>

## 2) 세대별 분석 결과

### □ 청년(20-34세) 1인가구 FGI 분석결과

#### ○ 1인가구의 삶

- 청년 1인가구의 주 형성 원인은 직장(구직)으로 인한 자발적 독립

“구직활동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분야가 수도권이 풀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

“직장 때문에 충청도에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배○○)

-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장점으로 자유롭고, 자립심이 강해지며, 인테리어 등 온전히 자신의 취향대로 살 수 있는 것, 직장과 가까워 피로감이 경감되는 것 등을 언급함

“1인가구로 좋은 점은 자유로움이 가장 커요”

(이○)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관리부터 가구 배치까지 제 선호에 따라 바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신○○)

“회사 옆에 사는데 자유로워서 일에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서 피로도가 적어요.”

(양○○)

“혼자 사는 장점은 자유인 것 같아요”

(배○○)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의 단점은 외로움과 혼자 하는 식사,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정보 부족, 금전적 어려움 등임

“혼자 사는 단점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취를 했을 때는 시간적 부담이 덜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는데 수원은 연고가 없는 도시라서 특히 3개월 정도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신○○)

“혼자 살며 조금 불편한 점은 식사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양○○)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 교통 정보나 주소지를 옮기는 것 등 정보의 무지가 가장 제일 큰 단점으로 다가왔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학업과 생계를 다 해야 하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 여유가 부족해서 밥을 거의 일주일동안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지냈어요.”

(배○○)

- 청년 1인가구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는 ‘주거’와 ‘일자리’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정된 급여입니다.”

(이○)

“저는 청년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

“전 주거환경이요 주거가 안정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 소득만으로 생활하기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

“주거가 안정화 되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주거가 안정되면 결혼 자금도 충분히 모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차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로요 집이 가장 큰 목표인데 너무 크니까 주거가 해결되면 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 생계와 일

- 청년 1인가구는 모아놓은 돈이나 아르바이트, 지원금,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비 마련

“저는 이전에 일을 해서 저축해둔 돈과 가끔 지인 분들 도와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

“주요 생활비는 이전에 모아둔 금액과 ‘청년도전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주요 수입이고, 그 외에는 자격증 환급이나 면접수당 신청해서 받는 방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감사하게도 가족들의 금전적인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

“저는 전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살고, 아르바이트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 청년 1인가구는 노후준비 보다는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위주로 저축

“최소한으로 저축을 하고 있어요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급하게 나갈 수 있는 돈이 있겠구나 싶어서 저축을 하지만 노후 준비까지는 아닙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살려면 거의 40-50세까지는 걸리는데 안정이 되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

“일단 지금 소득이 없어서 저축은 하지 않아요”

(양○○)

“만약 노후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고정적인 급여가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취업준비만 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

“당장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먼 이야기인데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한다는 건 저희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습니다.”

(이○)

#### ○ 건강 및 식생활

-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지만 식사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 식사 해결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배달 음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해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저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살게 되면서 주로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도 소홀하게 되요”

(신○○)

“저는 건강관리는 딱히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외식업 쪽에서 일 했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운동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운동을 미루곤 했는데 지금은 쉬면서 주 2회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배달시켜놓고, 간단하게 간편식 위주로 먹었어요 영양제로 보충하고요”

(양○○)

“저는 식욕이 별로 없어서 밥을 잘 안 먹는 습관이 있어요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영양이 엄청 부족했다가 이제 직장 구하고 나서 강제로 점심에 밥을 먹잖아요 저녁때도 먹고 들어가고 있고, 필수영양제도 먹고 운동은 취미라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배○○)

- 청년 1인가구의 건강 지원 사업으로 운동 및 요리 프로그램 확대 원함

“저는 요리를 하지 않는데 요리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더 확대가 된다면 저처럼 요리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간단한 거라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요리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되면 해 먹는 버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운동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 모아놓고 클래스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원하는 운동에 등록하면 부분적으로 금전적인 지원 방식이라든가 좀 더 자발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이 있다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참여 전후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애 1번이라도 지원 해 주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

○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망

- 청년 1인가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래와 교류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

“저는 가족과는 매일 연락하는 편이고, 해외에서 조금 살다 와서 한국에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전 직장 동료 분들과 주 2회 정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 청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센터에 와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양○○)

“저는 수원에서 5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수원시 청년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전혀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저 혼자 이겨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 불안이 컸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또래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의지 할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

(신○○)

○ 고립

-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아프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만날 사람이 없을 때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고립되었다고 느낌

“저는 혼자 살다보니 주말 같을 때 가끔 일이 힘들어서 하루를 쉴 때도 있지만 쉴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립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하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집을 정리하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고립감을 느꼈어요”

(이0)

“제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상황은 한 번씩 울적한 기분이 들 때 가족도 보고 싶고,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고립감을 느껴요.”

(신00)

“집에 혼자 있을 때 날씨도 너무 좋은데 만날 사람은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을 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양00)

### ○ 주거

- 청년 1인가구는 주거 정책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 SNS, 영상매체(유튜브) 통해 얻음

“네이버에서 ‘청년주택’ 등을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전문적인 사이트에서 보지는 않아요. 네이버 내용 체크해서 제가 해당되는지 소득분위 보고 판단해요.”

(배00)

“집을 구할 때는 네이버나 SNS를 많이 활용했어요. 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해 놓으면 새로운 공고나 정보가 있을 때마다 올려주셔서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검색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정책들 활용해요.”

(양00)

“저는 무직 취업준비생 입장이라 보증금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서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알아내서 거기에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00)

“저는 공인중개사 어플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공인중개사에 연락해서 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맞는 매물이 있으면 보러 갔어요.”

(이0)

-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있음

“주거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했어요. 저는 모아둔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전 재산인 큰돈이에요. 전세덕분에 주거비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만큼 본가에 살면서 영위했던 삶이랑 혼자 살면서 영위했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화장실에 앉으면 벽에 무릎이 닿았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 청소를 못할 정도로 되게 낙후된 집이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나중에는 진짜 집을 가질거다.’라는 생각이 원동력이 됐어요.”

(이0)

○ 정책수요

-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정책 필요

“문화적 지원이요. 솔직히 저희 세대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생애 한 번이라도 안 겪어 본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O)

“여가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일하고 집만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쉬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도예 프로그램같이 온전한 나만의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요즘 청년들이 워라밸을 많이 따지긴 하지만 일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양OO)

- 보장된 이사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가능한 이사 지원 정책 필요

“이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인데요. 이사과정에서 용달 사기꾼을 만나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준비할 것도 많은데 결국에 용달차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근데 부를 사람도 미평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머니의 조그만 자차에 실어서 한 3번에 걸쳐서 옮겼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수원시 자체에서 보장된 용달 기사 분들을 매칭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OO)

- 공감대 형성을 위한 또래 관계 프로그램,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막연하게 심리 상담을 받게 해준다든가,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 상황과 달라요. 그분들이 아무리 공감을 해주셔도 그분들이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또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거기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신OO)

- 무료 건강검진 항목 확대 등 의료비 지원 정책 필요

“혼자서 언제 아플지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 약간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 되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요. 사실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무조건

고령자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2년에 1번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양○○)

#### □ 중장년(35-64세) 1인가구 FGI 분석결과

##### ○ 1인가구의 삶

- 중년 1인가구 형성원인은 참여자 모두 미혼으로 혼자 산 기간 10년 이상

“완전히 혼자 독립해서 산 기간은 32살 때부터 13년 됐어요.”

(신○○)

“저는 2014년부터 10년 됐어요.”

(고○○)

- 중년 1인가구의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원 가족과 교류

“가족과 왕래는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동생들과 명절 외에는 왕래를 잘 안 해요 명절 때도 코로나 때 거의 못 보다가 최근 1-2년 사이에 명절 때 가서 봤지 실질적으로 본 적은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많게 본다면 솔직히 3-4번이요”

(신○○)

“저는 명절 때나 생일 같이 특별한 날 있으면 연락해요”

(고○○)

- 중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장점으로 기부나 봉사 등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꼽았고, 식사와 주거, 외로움을 단점으로 언급함

“혼자 사는 좋은 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불편한 건 밥 해 먹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뭔가를 신경 써서 뭘 해먹을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시켜 먹든가 아니면 그냥 끼니만 때우죠 친구 만나야 나가서 같이 밥을 먹든가 그런 거예요”

(고○○)

“혼자 사는 좋은 점은 시간적 자유로움 그리고 기부나 봉사요 왜냐하면, 솔직히 옆에 누군가 있으면 기부나 봉사도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단점은 주거 불편, 또 외로움이요 왜냐하면,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누구한테나 전화해서 쉽게 소통하기가 쉽지도 않고, 솔직히 지금 옆에 딱 누가 없으니까. 반려동물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

○ 생계와 일

-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 여성 1인가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교육이나 일자리 연계 정책 필요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 들어갔어요 ...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참으면서 다녀요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요 나이가 딱 50살 넘으니까 갈 데가 너무 없어요 식당 말고는 할 게 없고,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건 하루 종일 서서 하기도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고○○)

“저는 학교에서 돌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250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것저것 수당을 더한 거고, 이게 여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기본적으로 1인당 한 300에서 350은 있어야지 내 노년에 병원을 가거나 문화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놔야겠다 생각해서 은행도 직접 찾아가고, 관리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요 만약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밖에 나온다 하면 진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단 얘기인데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저를 써줄 수 있는 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컴퓨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중년층에 맞는 자격증들이 좀 나와서 꽃꽂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행사에 가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중년에 가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해서 그 자격증으로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

- 중장년 1인가구는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등으로 노후 준비

“저는 노후를 항상 생각해요 저는 형제도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상황이고, 그냥 죽어도 그 뿐이고요 진짜 조카들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모르는 일 이잖아요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생활비, 간병비 보험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혼자 있고, 자기도 없고, 보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다면 정말 TV에서 나오는 쪽방촌 그런 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저는 저축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신○○)

“저도 비상금을 모아요 보험은 들어 있으니까요”

(고○○)

○ 건강 및 식생활

- 중년 1인가구는 식생활 관련 불편함은 없지만 음식량 조절이 어렵고, 버리는 음식이 많아 주로 사먹거나 직장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공유 주방이나 공동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

“저는 40대가 된 후부터 되도록 배달 보다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단점이 음식량 조절이 안 되고, 처리가 너무 불편해요 요리를 너무 조금씩 하면 양이 너무 적고, 재료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배달시키면 대부분 다 먹지도 않고 버려요 저는 거의

직장에서 제대로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

(신○○)

“저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공유 주방도 써보고 밀키트 요리도 해봤어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배우긴 했는데 혼자서 무슨 스페인 요리를 해먹을 것이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서 먹고요 ... 동아리 모임 했을 때 요리 프로그램을 2번 했었는데 그게 너무 괜찮았어요 공유주방 빌려서 강사님이 오시고, 우리가 같이 요리 해서 나눠가고 했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맞으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빠졌는데, 그 프로그램이 괜찮았어요”

(고○○)

“행정부지센터 기준으로 해서 요리프로그램들을 좀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반찬을 구매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만들기도 애매모호해요 여기 1인 프로그램 1인 가족 그게 있더라고요 거리만 맞으면 요리프로그램 해봤을 거예요 네이버가 아무리 잘 알려져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

#### ○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망

- 중년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음

“모르는 사람은 만나는 것도 무섭고, 또 막상 친구나 지인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지내요”

(고○○)

“사회적 관계망이 너무 좁아졌다고 생각해요 20대에는 어울릴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각자 가정이 생기니 관계망이 좁아지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이든지, 아니면 비혼주의든지 아니면 애들 시집 장가 간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보다도 오히려 어리거나 많거나 이런 수준의 관계망인데 그것도 일부니까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누구랑 얘기해도 와 닿는 게 없고 겉도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삶의질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

- 갑자기 돈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가족 외에는 도움 받을 곳 없음

“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부모님께 연락해요.”

(고○○)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연락할 수 없고, 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으니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랑 돌아가시고 나니 차이가 많이 나요 지인들한테 말해도 걱정은 해주지만 그것뿐이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고 외로워요”

(신○○)

- 혼자 다치거나 아플 때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연결되지 않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 형성 및 돌봄 지원 정책 필요

“저는 아프면 제일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쉽게 조퇴를 쓰고 나올

수는 없는 직종이라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연락 주고받고 안 부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관계 형성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신○○)

○ 고립

- 중년 1인가구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고립감을 느낌

“몇 년 전에 회사에서 감사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되고 옆에서 상담해 줄 사람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혼자 스스로 찾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외톨이고 고립이 많이 됐구나. 정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구나.’ 싶어서 성당을 다니게 된 계기도 그거였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수록 고립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아파서 나갈 수가 없는데 자동차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왔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럴 때 고립감을 느꼈어요.”

(고○○)

○ 주거

- 중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느낌

“솔직히 청약 신청 한 지 오래됐고, 1순위인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에서 일반 가정들하고 경쟁이 안 되고 순위가 뒤로 넘어가거든요. 이미 대상조건은 20년 전에 넣어서 채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약 받기 쉽지가 않고 솔직히 외별이기 때문에 혼자 보면서 집 장만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인데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혜택은 없고 반면에 세금을 또 많이 내거든요. 다가구보다도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그렇다고 혜택을 많이 받지도 않고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를 이야기 했어요. 솔직히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이지 대부분 전세나 월세 이런 식일 거예요.”

(신○○)

- 점유형태는 월세와 전세이고, 오래 된 집에 살고 있지만 교통이나 공원 시설 등 거주 환경은 좋은 편임

“저는 월세에 살아요. 집은 오래 돼서 누수가 좀 있는데 중간이라서 교통이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팔달산과 매교천이 있어요.”

(고○○)

“저는 주택 전세에 살아요. 사는 곳의 공원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5분 안에 웬만한 공원들이 다 연결 되어 있고, 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다 있고, 교통도 서울과 어디든 다 가는 곳 있고, 직장도 근거리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신○○)

- 중년 1인가구를 위한 부동산 안전 계약 교육 필요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어야지 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1인가구는 나이가 많은 적은 집 갖기가 워낙 힘들고 월세나 전세도 요즘엔 불법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쉽게 계약도 못할 노릇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인터넷 정보도 한계가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약할 때 주의 사항들을 용지로 정리해 주면 따라 하기가 쉽거든요. 방송에서는 들어도 듣고 나면 흘러가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은 더 어려울 거예요.”

(신○○)

#### ○ 정책수요

- 1인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1인가구 동아리 프로그램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시에서도 1인가구 사업 생겼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만 하더라고요 따로 따로 더 나오면 좋겠어요”

(고○○)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리, 문화, 독서, 산책 등 다양화 되고, 홍보도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

- 1인가구 프로그램 및 지원 자격 등에 대한 홍보 확대

“구체적인 지원이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돌봄도 그렇고, 반려견 지원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참 애매모호해서 답답하더라고요 지원조건 등이 확실하게 되어있고, 이런 내용들을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청이나 구청 사이트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 플랜카드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정된 사이트에서 한 번에 지원 정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

#### □ 노년(65세 이상) 1인가구 FGI 분석결과

##### ○ 1인가구의 삶

-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 1인가구는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1인가구 형성 계기는 모두 이혼으로 2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음

“1인가구 된 계기가 옛날에 한 50대에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혼자서 계속 지내다가 수급자가 됐고 혼자 산 지 한 20년쯤 됐어요.”

(고○○)

“저는 딸 결혼시킨 뒤로 혼자 살았고, 한 25-27년쯤 됐어요.”

(권○○)

“저는 21살에 결혼해서 20대 후반에 이혼을 했어요. 지금 3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손○○)

“저도 이혼을 했고 혼자 산지 23년 정도 됐어요.”

(김○○)

- 노년 1인가구는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외로움과 장애가 있는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 시 이동이나 화장실 사용 등의 생활 불편함이 있음

“나 같은 사람은 나라에서 먹을 것과 생활할 것은 조금씩 주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보다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로운 것도 문제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이려고 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 어쩔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

“다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부모가 안 계시고 형제들도 없고 혼자니까 명절 같은 때 괜히 싫고 외로워요. 특히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요.”

(손○○)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고, 자식들이 없으니까 외롭고, 또 70살이 넘어가니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다보니 술마시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김○○)

“저는 휠체어를 타니까 애로사항이 넘어졌을 때 혼자 못 일어나요. 이제는 조금씩 요령이 생겼지만 처음에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느라 애먹었어요.”

(고○○)

### ○ 생계와 일

- 외식비, 의복비, 교통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있음

“수급비가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해줄려면 한 번은 나가서 고기도 사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엄두를 못내요. 그리고 병원 갈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택시는 장애인 3급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하늘의 별따기이고, 대부분 거동이 힘든 분들은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큰 병이니까 대형 병원에 가야되는데 거리도 워낙 멀어서 하루에 몇 만원 이에요. 그리고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멋있는 옷 입고 싶으면 나도 입고 싶은데 옷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손○○)

“물가가 비싸서 고기 사먹기가 힘들고 외식은 엄두가 안나요. 언니들도 병원만 가시고 불일만 보셔도 차비가 7-8만원 든대요. 그런데 식사라도 따로 먹고 싶어서 사먹으러 가면 90만원 보다 더 나가게 생겼어요.”

(권○○)

“누구하고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싶어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김○○)

- 근로로 인한 수입발생 시 수급비 지원이 삭감되어 일을 할 수 없음. 최저생계비 기준만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필요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끊겨요 최저생계비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2-3시간만 일을 해서 20-30만원만 받아서 100만원만 맞출 수 있도록 해 줘도 좋겠어요.”

(손○○)

“저도 찬성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급자가 된 경우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3-4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수급비에서 까서 줘요. 그래서 부업도 안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권○○)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30-40만원만 더 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수급비 탈락하거나 깎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 제공이 되면 좋겠어요.”

(권○○)

#### ○ 건강 및 식생활

- 참여자 모두 질병, 장애로 신체적 어려움은 있으나, 식생활은 재가방문요양서비스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있음

“저는 요양보호사님이 2시부터 5시까지 오시는데 점심은 여기 복지관에서 먹고 저녁은 요양보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가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고○○)

“저는 팔이 불편해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2번 정도 식판을 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으로 도시락을 갖다 줘요.”

(김○○)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음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해주고 잘 보살펴줘서 식사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권○○)

#### ○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망

- 치매 예방, 문화 프로그램 등은 종합복지관 등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실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외로움 발생. 특히 밤에 가장 외롭고, 응급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으로 불안감이 높음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댄스도 하고, 만드는 것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끼지를 못해요.”

(권○○)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동네를 안 나오면 얼굴을 못 봐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오는 사람도 좀 있고 한데 겨울에는 나오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면 나오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니까 넘어졌을 때 혼자 못 일어나요. 혼자 누워있으면 밤이 제일 불안하고 화재 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해요.”

(고○○)

○ 고립

-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롭다고 느끼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시 화초 키우기, 컴퓨터 게임, TV보기 등을 하며 주로 혼자 하는 일 위주로 함

“저는 할 게 너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초 키워요”

(권○○)

“저는 누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 할 상대가 없으니까. 요양사가 잠깐 왔다 가면 혼자니까 대화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TV 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손○○)

“저도 묘목은 몇 개 있어요 꽃도 심어놓고 내가 잘 못하지만 요양사분이 해주시죠”

(고○○)

“저는 고무나무를 키우는데 엄청 잘 자라요 지금 3년 정도 키웠어요”

(김○○)

“저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TV도 보고 컴퓨터 고스톱 같은 게임을 해버려요 그런데 노트북이 11년이 되어서 파워가 낡아서 노트북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힘드네요”

(고○○)

- AI를 활용한 고독사 방지사업이 지원되면 이용 의사 있음

“저는 로봇을 공짜로 제공 해 준다면 하고 싶어요 전기세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나는 근데 죽은 다음에라도 다음세대 외로운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권○○)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발표만 났지 언제 될지 몰라요”

(권○○)

○ 주거

- 취약 1인가구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임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2016년도에 와서 8년 정도 됐어요.”

(권○○)

“저도 여기 입주할 때부터 와서 8년째일 거예요.”

(손○○)

“저도 여기 와서 한 4번 갱신을 했으니 8년 정도 됐어요.”

(고○○)

- 주거비 보다는 난방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감 있음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노인들이 도시가스와 중앙난방식 자체를 몰라요 중앙난방은 온기만 느껴지지 바닥이 뜨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춥다고 느껴져서 따뜻할 때까지 계속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 이렇게도 나와요”

(손00)

“전기요금 지원 해준다고 하지만 조금씩만 해줘서 그래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사 오고 난 후 난방을 아예 안틀어요.”

(권00)

○ 정책수요

- 비상상황 발생 시 119로 연결되는 가정용 안심벨 사업 필요

“저는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졌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기어서 안방까지 가서 전화기를 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 비상벨을 신청해줘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벨을 누르면 바로 119에서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고00)

- 노년기 1인가구는 질병 등으로 대형병원 진료가 많아 이동 시 비용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 필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월 8-10만원은 교통비가 들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관 리비와 임대료 지급하고 60만원 남는데 그 중 10만원이 교통비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플 때 빼고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돈이거든요.”

(권00)

-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설계 및 저층 입주를 위한 업무지침 개선 필요

“임대주택은 장애가 있다고 저층에 거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 휠체어를 타는데 이동이 어려워서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화재경보가 울렸는데 승강기를 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권00)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입주 때 저층으로 배정해 주면 좋겠어요.”

(김00)

-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 어르신과 같이 인지가능이 저하되고 판단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현재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00)

## 2. 1인가구지원센터 담당자 FGI

### 1) 조사개요

#### □ 심층인터뷰 대상자 선정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 한 총 4개 기관 인터뷰 실시
  - 1인가구지원센터 중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센터장과 팀장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특성 파악
  -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독립형)와 다른 통합형 지원센터를 소개받아 송파구와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인터뷰 함
  - 1인가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과 1인가구 지원 사업 담당팀원 인터뷰를 통해 수원시 1인가구의 주요 특성 파악

표 3-112 |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참석자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3.29.	인터뷰이: 엄준(서초1인가구지원센터장), 김지훈(복지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24.04.19. 2024.06.24.	인터뷰이: 곽은정(교육문화팀장), 이혜민(1인가구담당팀원)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송파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5.10.	인터뷰이: 김하정(1인가구지원센터 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	2024.05.17.	인터뷰이: 고선(1인가구지원센터 총괄팀장) 인터뷰어: 박민진, 김재이

#### □ 심층인터뷰 방식과 내용

- 심층인터뷰는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이(interviewee)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진행함
- 질문은 크게 6가지로 구성하여 1인가구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인력과 예산, 공간 활용,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이용자 특징과 만족도,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함

표 3-113 | 기관인터뷰 주요 질문

구분	내용
공통질문	•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인가구지원센터 인력은 몇 명입니까?
	• 1인가구지원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은 어떻게 구성 및 활용되고 있습니까?
	•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이용자 특성은 무엇입니까?
	•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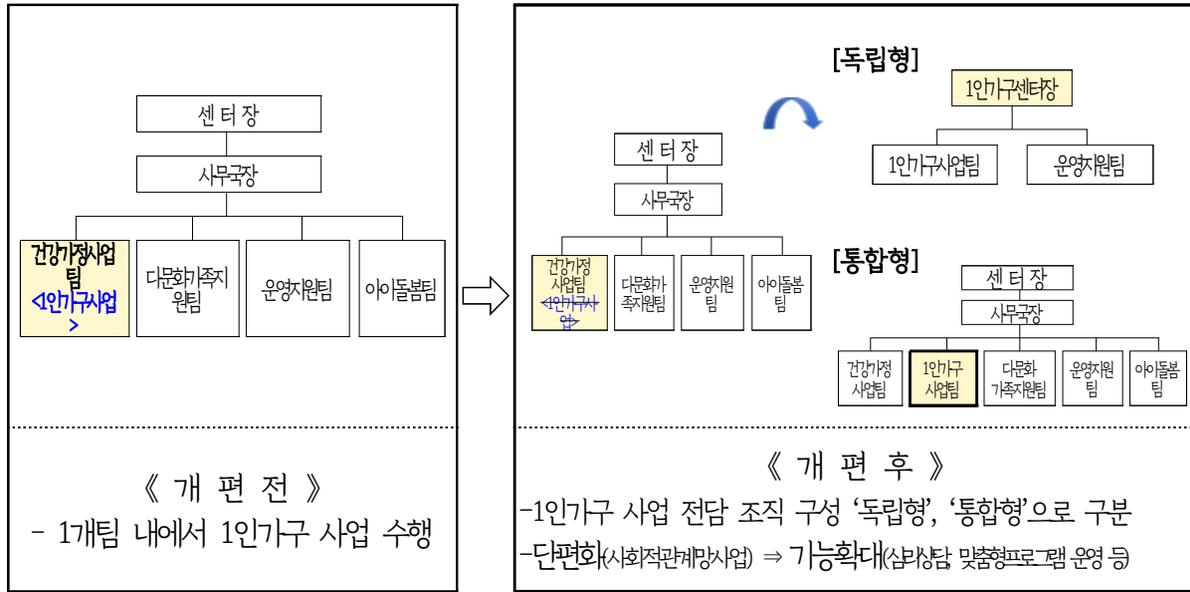
###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현황과 특징

- 서울시는 직접 운영 중인 중구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 모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광진구는 2개소,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각 1개의 센터 운영 중임
-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전담팀으로 운영되는 통합형 센터가 19개소, 독립적인 공간에서 1인가구 사업만 수행하는 독립형 센터가 5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총 79명으로 국비 인력 6명, 시 전담 인력 63명, 구 인력 10명으로 구성됨

그림 3-3 |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 분포



그림 3-4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 전달체계 개편



출처: 서울시(2021), 1인가구 지원 사업 전달체계 개편 및 추진계획

표 3-114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현황

연 번	자치구	운영형태	전담인력		
			통합형/독립형	국	시
	계		6	63	10
1	종로구	통합형	0	2	0
2	용산구	통합형	2	2	0
3	성동구	독립형	0	3	2
4	동대문구	통합형	2	4	0
5	중랑구	통합형	0	2	0
6	성북구	통합형	0	2	0
7	도봉구	통합형	0	3	0
8	노원구	통합형	0	1	0
9	은평구	통합형	0	3	0
10	서대문구	통합형	0	2	0
11	마포구	통합형	0	2	0
12	양천구	통합형	0	2	0
13	강서구	통합형	0	2	0
14	구로구	통합형	0	3	0
15	금천구	통합형	0	3	0
16	영등포구	통합형	2	3	0
17	동작구	통합형	0	3	0
18	관악구	통합형	0	3	0
19	광진구	독립형	0	3	2
20	서초구	독립형	0	3	4
21	강남구	독립형	0	3	1
22	강북구	통합형	0	3	0
23	송파구	통합형	0	3	0
24	강동구	독립형	0	3	1

주: 2023년 12월 기준, 중구는 자체 운영 중

## □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지원,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서초구는 독립형 센터로 자체 사업이 많음. 4개 영역(건강, 안전, 생활, 관계)으로 구성되어 심리상담, 주거 안전 관련 사업,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및 고립·은둔 1인가구 발굴 지원 사업 등 운영 중임
  - 수원시는 자체 사업은 없고,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사업 4개 운영 중임.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리프로그램 제안
  - 송파구는 통합형 센터로 1인가구 사업을 2년째 운영 중이며,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자치구 특화사업 4개를 운영 중임
  - 관악구는 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사회적 관계망 3개 사업 진행 중임

## □ 인력 및 예산

- 독립형 센터를 제외하면 1인가구 담당자는 평균 3명 정도이며, 예산도 자치구별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서초구 총 인력은 9명이고, 이 중 1명은 서울시 지원 인력(마주봄 매니저)임. 서초구는 자체 사업이 많고, 1년 예산은 8억 정도로 서초구와 서울시 집행 예산 비율은 7:1 정도임  
 “저희는 총 9명이긴 한데 1명은 서울시에서 ‘마주봄 매니저’로 중장년층 1인가구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줬어요. 마주봄 매니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지훈 팀장)  
 “1년 전체 예산은 약 8억 정도이고 예산으로 본다면 7:1 정도로 서울시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엄준 센터장)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인력 20명 중 1인가구 사업 담당자는 1명임. 경기도와 수원시 집행 예산 비율을 3:7이며, 총예산은 5,750만원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진행비만 포함되어 있음  
 “총예산은 5,75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 1,8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대비 50만원 올랐어요.”  
 (이혜민 팀원)  
 “사실 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 상황을 보면 인건비 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나 그런 것조차 구입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이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인건비 아니면 사업비 이렇게만 나가야 되니까 사업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 업무에 제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곽은정 팀장)

- 송파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총 인력 5명이고 예산은 인건비 포함 약 2억 3천만원임  
“저희 인력은 교육 문화 담당하는 선생님이라 상담 담당하신 상담 전문가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구에서 지원받은 보조인력 한 분 계시고요 상담 헬퍼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람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받은 분까지 총 5명입니다. 예산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3천 만 원입니다.”

(김하정 팀장)

- 관악구는 가족센터 총 인력 25명 중 1인가구 사업 담당자는 3명이며, 예산은 사업비 3천 8백만 원과 3명의 인건비가 있음

“저희는 1인가구 사업담당자 3명이 있고 그 중 1명은 1인가구 전문상담사입니다. 사업비는 3천 8백만 원이며, 3명의 인건비와 기타 센터 상황에 따른 공간조성비를 지원 받습니다.”

(고선 팀장)

#### □ 공간 구성 및 활용

- 1인가구지원센터는 프로그램실, 교육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형은 1인가구만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통합형 센터는 가족센터 내 다인가구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서초구는 독립형 센터로 1인가구만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저희 센터는 학업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존과 동아리, 자주 모임, 소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 요리 교실에서 만든 음식 등을 함께 나누는 소셜 다이닝 공간인 커뮤니티실과 제과 제빵 요리 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요리 교실, 1인가구의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방문하시는 이용자분들의 휴식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라운지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휴식 제공과 특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시설이 있고, 인바디 스트레스 측정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언제든지 1인가구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팀장)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실 3개와 교육실 1개의 협소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함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실이 1곳 밖에 없어요. 대관이 가능하다면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어렵긴 해요 이동할 때 짐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또 저녁대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센터를 활용하고 있긴 한데, 다른 팀들 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센터 교육실 하나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예약도 치열하고, 그리고 외부에 좀 예쁜 공간 이런 걸 대관을 하려고 하면 시설 업체는 저녁이 되지만 비싸고, 공공기관들은 저녁 대관이 되지 않아요”

(이혜민 팀원)

“1인가구 분들을 위한 좋은 공간에서 하려고 저희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곽은정 팀장)

“건강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중 ‘꿀잠공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실에서 불면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초록초록하고 폭신한 쿠션이 있는 예쁜 공간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강의실을 대관을 했고, 7시에서 9시로 타임을 고정하는 편이에요.

6시에 퇴근을 하고 오시기에 적절한 시간이 그 시간이고, 이제 비전센터가 대관을 해주셨지만 9시에 기관 문을 닫아야 되어서 6시 반에서 8시 반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평점도 조금씩 아쉽고 보시다시피 주방도 없으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위해 주방을 빌리러 엄청 많이 다녀왔어요”

(이혜민 팀원)

- 송파구는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줘 1인가구를 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함

“여기는 지금 송파 커뮤니티 센터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기 지금 23년도 1월 달에 들어왔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담당 주무관님이 있으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설이 6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다 예약을 해 놓고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구청하고 미리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시설은 예약해서 운영을 하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김하정 팀장)

- 관악구는 통합형 센터로 교육실 이외 특별한 공간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교육실이 부족하여 가족센터 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통합형으로 기존 가족센터 2센터 공간에 1인가구지원센터라는 명칭만 들어왔어요 교육실 이외 특별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족센터 1센터에 있는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고선 팀장)

## □ 이용자 특성

○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이용자는 대부분 청년층과 중장년층이며, 프로그램 이용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서초구는 서초동, 반포동은 청년 1인가구가 많고, 양재동은 중장년, 노년층 1인가구가 많으며 서초구는 임대주택 영향으로 청년 1인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센터 이용자는 남성 30%, 여성 70%로 여성 참여율이 2배 이상 높고, 청년 이용자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강남구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아마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별로 살펴보면 서초 1동과 반포 1동, 그리고 방배랑 양재 1,2동 이곳이 서초구에서 1인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서초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는 청년층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 센터가 있는 양재 1동 같은 경우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교대 앞에도 청년주택이 곧 나오고 양재역에도 또 하나 나올 예정인데 그런 주변들에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팀장)

“저희 센터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남성분이 30%, 여성분이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층 비율이 대략 50% 정도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65세 이상으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쪽으로 주로 연계를 하는 편이고 저희 서비스 중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팀장)

- 수원시는 회기별 총 실적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지만 실 참여인원은 청년층이 가장 많음.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율이 높고, 요리프로그램이 참여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3년도 추진 실적 상에 20-30대가 133명, 40-50대가 138명, 60대 이상이 45명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실제와 괴리감이 있는 숫자이긴 해요

결과보고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40-64세 만을 타깃으로 하는 중장년수다살롱이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세대 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20-30대는 7월 8월 이렇게 피업피업 월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장 참여 모집이 어려운 게 중장년이거든요 12월로 다시 통계를 돌려보니 20-30대는 44명, 그리고 40-50대가 21명,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은 사실 작년에 해봤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자원이 많아서 흥미도가 낮았어요”

(이혜민 팀원)

- 송파구는 중장년층 이용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층이 많이 이용함. 대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지만 설문지 만족도 점수는 현장반응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저희는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아요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관, 청년들은 청년센터에 가면 되니까요 제가 가족센터에서 10년 근무했는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 진짜 낮아야지 4.5점 정도예요 그런데 1인가구분들은 프로그램하고 소감을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만족스러웠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실제 만족도 조사는 되게 낮게 나와요 만족도 서류를 받으면서 보면 말과 다르게 다 3점을 주시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분의 기준은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만족도 조사가 이게 이분들의 의미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만족도 조사를 보고는 평가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행복한 밥상이라고 작년에도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설이 그렇게 나쁜 시설은 아니에요 공간이 좁을 뿐이지. 16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한 12명만 들어가도 많아요 근데 공간에 15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만족도가

3.9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때문에 모든 점수가 다 낮게 나타나서 1인가구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분들의 소감을 가지고 내가 만족 평가해야 되는 건가? 그런 혼돈이 지금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운영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이유 없는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자기 방어 호신술 이런 것도 바로바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또 만족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사님이 뭐 누구만 봐줬다면가 아니면 뭐 중장년 분들이 많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끌렸다’ 이런 거에 만족도를 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거의 대부분 4.5점 정도로 다른 대상에 비해 낮게 나와요”

(김하정 팀장)

- 관악구는 청년층 이용자가 70-80%를 차지하며, 중장년 및 노년 1인가구 대상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중장년 및 노년층은 요리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0점 이상으로 나타남

“관악구는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1인가구 밀집지역이라서 청년층이 70-80%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요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관계망 및 상담지원을 점차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대부분 만족도는 평균 4.0점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선 팀장)

#### □ 시설운영의 어려움

- 1인가구 발굴 및 홍보에 대한 어려움과 민원 발생, 야간 운영에 따른 종사자 피로감 증폭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서초구는 1인가구 발굴 및 센터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1인가구 전담 공무원과 연계하고, 현수막, 찾아가는 홍보, 설문조사 등을 수행 중임

“우선은 발굴 이라든가, 저희 센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했던 고립지원센터도 지하철에서 엄청 나오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옆에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도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홍보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이용해 주시거나 저희 센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터즈 포미단이라고 해서 이용자들끼리 좀 바이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완을 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자체를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가장 유용하긴 한데 사실상 알리기 위한 홍보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리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지훈 팀장)

- 수원시는 1인가구 발굴 및 홍보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함. 그리고 요리나 운동 프로그램 진행 시 공간 부재의 어려움이 있고, 중장년 1인가구 참여자 간 갈등상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원시는 학습 모임을 위한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플도 많고 대도시라 주로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수원시 주변에 스타필드 생겼지, 광고 있지, 안양, 주변 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 있고, 모집해서 왔을 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상승되어 있다? 시설이나 퀄리티, 내용 강사의 수준, 다방면에서 기대가 높는데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저희는 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자한테 책임감도 전달해야 돼요. 노쇼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만족도를 높여야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모임 이런 것들은 사실 업체에서 그냥 돈을 받고 가시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와 저희가 같은 대상자를 좀 경쟁을 하는 느낌?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옆 사람과 친해지세요’ 이런 것들을 강요해야 하잖아요. 또 만족도 조사 드리면서 5점으로 높게 요청 드려야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혜민 팀원)

“대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센터 교육실이 협소하다 보니 다른 외부의 공간, 조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1인가구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다거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외부에 대관을 했을 때 그런 게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협조요청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예를 들면 저희 센터에서는 저녁 시간 때 1인가구를 위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대관 협조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장소 대관하려고 하는 기관에서는 6시까지만 근무를 하니까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7시부터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이번에 시청 1인가구 팀이 따로 생기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기관 대 기관으로 조금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던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장소 대관이 어렵습니다.”

(이혜민 팀원)

- 송파구는 민원 발생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함. 송파구 외 다른 자치구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사례, 관심 대상자에 대한 시기, 취약 1인가구인 경우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신청하시는 것부터가 민원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신청했는데 왜 대상자가 안 되냐, ‘내가 왜 탈락했느냐,’ 그런 것부터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저희 센터에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주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바뀌고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뀌시잖아요. 그렇게 신규가 왔다 그러면은 딱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레퍼토리가 ‘강동구는 잘 해주는데 왜 송파구는 잘 안 해주냐, 강동구는 반찬 주는데 송파구는 안 주냐? 나는 송파 시민인데 강동구를 더 많이 이용한다. 송파구도 좀 열심히 일해라.’ 그런 형식으로 막 민원을 넣으시고 꼬투리를 엄청 잡으세요.”

(김하정 팀장)

- 관악구는 1인가구를 증명하는 시스템 부재로 확인하는 어려움과 다양한 기관에서 1인가구 사업을 진행하여 중복 사업에 대한 한계를 언급함

“우선 1인가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교육시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서류 확인 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1인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1인가구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보니 신분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녁 프로그램 시 남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너무 늦게까지 진행하거나 4회기 이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출석부에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노출될 수 있게 신경 쓰며, 실제로 실무자가 여성인 경우 중년 남성이 필요이상의 연락이 몇 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 외로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다회기 프로그램 진행 시 성별 구분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복사업의 한계도 있어요. 1인가구가 증가하며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전국 최초 ‘청년청’이라는 기관도 운영하고 있어 너무 많은 기관에서 청년대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저희 센터는 강점인 ‘상담’과 ‘관계형성’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 대응이 어려워요. 중장년 민원이 많은데 사업의 규칙과 규정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강한데 실무자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초반 여성이라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고선 팀장)

#### □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합형은 가족센터와 같은 전달체계로 지침이나 실적 취합 및 평가방법이 명확하나 독립형 1인가구는 실적, 평가 방법 등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광역 1인가구 센터가 없어서 각 센터별 정보의 취합이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독립형 센터로 통합형과 다르게 지침, 실적 취합 및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타 센터와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을 언급함

“우선은 서울시에서 가족센터와 1인가구지원센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사업을 전달하든, 이 지침을 전달하든, 매뉴얼을 전달하든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전 가족센터 자료를 지자체 센터로 이제 통보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역 가족센터에서 각 자치구 가족센터로 연계하거나 전달 체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적이나 그런 취합이 동일하죠.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같은 카운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가족센터와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 간의 실적 카운팅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카운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지훈 팀장)

- 수원시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사업 영역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수원시 특성 상 정책이 다양하고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틀이 너무 명확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나올 때 사업양과 회기 수 등 다 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산 안에 정해진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요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만한 주방 시설도 없고, 다른 지역 센터와 비교를 하다 보면 확실히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체험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정책적인 기초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혜민 팀원)

- 송파구는 광역센터의 부재로 각 센터별 정보의 취합이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언급함

“서울시가 지금 사업을 밀어 넣고 있는 실정이라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위에서 딱 안정화가 되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안정화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점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중점 기관을 서울시에서 하려니까 업무가 벽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자치구로 내려오는 가족센터랑 비슷한 시스템이었는데. 서울시 광역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을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이게 뭐 중간 다리가 없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김하정 팀장)

- 관악구에서는 여성가족과와 복지정책과로 전달체계가 나뉘어 있어 번거로움이 있고, 통합형의 경우 공간, 인력 등의 같은 조건에 사업만 확장되어 업무의 부담감을 호소함. 또한 독립형과 통합형의 기관 성격에 따라 경력인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종사자 처우의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언급함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는 대부분의 센터가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받고, 1인가구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받음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센터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사업은 민원도 타 사업에 비해 많은 편이라 통합형이라는 조건하에서 1인가구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가족센터의 부담감이 있어요. 센터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독립형으로 추진해야 더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립형은 복지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종사자 경력 인정이 되지 않고 종사자 인건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선 팀장)

## 제4장

#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및 수요 분석

제1절 1인가구 정책 분석

제2절 1인가구 정책수요 분석



# 제4장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및 수요 분석

## 제1절 1인가구 정책 분석

### 1. 수원시 1인가구 정책

- 수원시,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라는 비전하에 3개 영역(연결, 안심, 편의) 정책 추진
  - 수원시는 2023년 3월,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1인가구 지원 사업의 핵심 역할 수행
    - 수원시는 2023년 1인가구 사업을 총괄하는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1인가구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 수행
    - 1인가구 대상 사업 중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크게 3개 영역(안심-편의-연결)에서 사업 추진
    - 2024년 1월에는 1인가구 관련 지원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가구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SSOCC) 개설

표 4-1 | 수원시 1인가구 사업 현황

분야	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안심	과제 1. 생활 안심망 구축	1.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여성정책과
		2.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무인안심택배 보관함 14개소 운영	여성정책과
		3.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여성 1인가구 24시간 방법서비스 제공	여성정책과
		4. 가족여성회관 1인가구 안전 프로그램	집수리 및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	가족여성회관
		5.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독거노인 소화기, 감지기 설치 지원	안전정책과
		6. 청년 월세지원	청년 1인 월 임차료 10만원(최대 50만원)	청년청소년과
		7.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대여	취업 면접 청년 정장 대여	청년청소년과
		8. 수원에 다'잇'다	청년 네트워크 모임 지원	청년지원센터
		9. 청년 고민상담소	청년 1:1 / 집단 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10. 우리동네 공구도서관	공구대여 서비스(13개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
	과제 2. 주거 안심 지원	11. 새빛 청년존(Zone)	LH 청년매입 임대주택 40-50%감면	도시재생과
		12.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CON	보증금&임대료,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도시재생과
		13.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출잔액 이자 1%지원	도시재생과
		14.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주거정보 및 주거복지사업 연계 상담	주거복지센터
		15.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취약계층 주거 클린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센터
		16. 주택 물색·계약 지원	주택 물색·계약 지원 및 공인중개사 연계	주거복지센터
		17.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전월세 계약 안전 여부 상담	토지정보과

분야	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편의	과제 3. 돌봄 체계 확대	18. 수원새빛돌봄	4대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정책과
		19. 초거대 시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활용 고독사 위험 가구 예방 지원	
		2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65세 노인 대상 돌봄 및 서비스 자원 연계	
		2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 노인 모니터링 및 응급 출동 시스템	어르신돌봄과
		22.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능실마을 22단지 수도검침 안부확인	능실종합 사회복지관
		23.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및 연계	4개구 보건소
		24.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자 공영 장례 지원	위생정책과
		25.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	홀몸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확인	4개구 사회복지과
		26.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지원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반려동물센터
	27. 건강가정지원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취약 위기 가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건강가정 지원센터	
	과제 4. 맞춤형 프로그 램 운영	28.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장년 동아리, 요리, 건강, 금융프로그램	건강가정 지원센터
		29. 청년상사(청년상생 사람살이)	청년 관계형성, 미래설계, 지역사회 연계	광고종합 사회복지관
		30. 둘레사람모임	남성 독거노인 모임 활동	우만종합 사회복지관
		31. '온동네돌봄' 서로돌봄마을 조성	월 2회 이웃 안부확인, 정기모임 등	
32. '수원ON청년'		월 1회 관계증진 청년 모임		
33. '뜨개뜨개'(여성독거노인 뜨개질나눔)		여성 독거 노인 주1회 뜨개질 활동	영통종합 사회복지관	
34. '굿 청년! 마을메이커'	청년 1인가구 기술·지식 교육 및 사회 참여			
연결	과제5. 연결& 소통	35. 4구 4색 거점 지원 사업	4개구 거점 공간 발굴 및 지원 사업 운영	여성정책과
		36.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쏘옥 포털,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 홍보	
		37. 쏘옥 패밀리 활성화	시민참여단 운영 및 1인가구 행사 추진	수원시정연구원
		38.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과제	1인가구 실태 및 정책 수요 연구(1,000명)	

출처: 수원시 내부자료

## 2.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분석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은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각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진행 중

○ 수원시 주거 정책은 청년 1인가구에 집중되어 있음

- 수원시 1인가구 8개 사업 중 5건이 청년만 지원하고, 나머지 3건 중 <주택 물색, 계약 지원>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주이용자일 가능성이 높음
- 성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시설 퇴소 청년이나 경제 및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3건 있지만, 이 역시 1인가구의 4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음. 주거 불안정이 심해 정책 지원이 긴요한 유형인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주로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였던 점을 상기하면, 정책의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 존재
- 주거 분야 정책 수단은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 서비스로 구분됨. 수원시 1인가구 주거 지원 사업은 주택 공급 2건(25%), 주거비 보조 2건(25%), 주거 서비스 4건(50%)으로 나뉘는데, 공공 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는 주로 중앙정부가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정책 수단 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하지만 지원 혜택이 큰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는 모두 청년 대상 사업으로,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도 해당하는 사업은 주거 서비스 지원 밖에 없음. 수원시는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지속기간이 길며,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표 4-2 |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정책 수단
	성별	세대	취약	
청년 월세 지원	전체	청년	-	주거비 보조
새빛 청년존	전체	청년	무주택자	주택 공급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전체	청년	시설 퇴소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차지원	전체	청년	-	주거비 보조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전체	청년	-	주거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클린 서비스	전체	전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주거 서비스
주택 물색, 계약 지원	전체	전체	주거취약 계층	주거 서비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전체	전체	-	주거 서비스

○ 수원시 안전 분야 정책은 여성 1인가구, 안전 장비 지원에 편중

- 안전 분야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의 여성을 주로 지원하고, 경제 및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음. 성별은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여성이 주이용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안심택배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5개 사업 중 4건이 여성을 대상으로 함.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를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지원 요건은 없음. 경제 및 주거 취약층만 지원하는 사업이 2건 있지만, 이들이 1인가구 4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안전 분야의 정책 수단은 크게 물리적 장치와 서비스로 구분함. 물리적 장치는 장비(비상벨, 잠금장치, 스마트기기 등), 주택(공용현관문 도어락, 경비시설, 담장 등), 지역환경(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CCTV 등)으로 구분하고, 서비스는 교육, 안심지킴이집(긴급 대피소), 귀가 동행, 순찰대 등이 있음. 이러한 유형 분류에서 봤을 때, 수원시 기존 사업 5건 중 4건은 장비, 1건은 교육으로 정책 수단의 편중 있음.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안전상의 문제를 상기해보면, 장비와 교육 위주의 지원으로는 충분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표 4-3 |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안전 분야 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정책 수단
	성별	세대	취약	
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여성	전체	-	물리적 장치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전체	전체	-	물리적 장치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여성	청/중장년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물리적 장치
가족여성회관 안전 프로그램	여성	전체	-	서비스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전체	전체	화재안전취약층	물리적 장치

○ 수원시 건강 및 관계망 정책은 노년 정책 다수, 서비스 접근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 보임

- 건강 및 관계망 분야 정책은 성별을 특정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룸. 단, 둘레사람모임(남성 독거노인), 뜨개뜨개(여성 독거노인) 제외
- 세대별로는 노년세대 정책이 다수이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건강·안전·재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 및 관계망 분야의 정책 수단은 크게 경제 지원(금전 등 유형 물질 제공), 서비스(정보, 교육, 상담 등), 물리적 장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원시 1인가구 사업은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건강관리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서비스의 접근성,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음

표 4-4 |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건강 및 관계망 분야 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정책 수단
	성별	세대	취약	
청년 고민상담소	전체	청년	-	서비스
초거대 시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체	전체	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수원새빛돌봄 운영	전체	전체	중위소득 75%이하	경제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체	노년	돌봄 필요자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노년	안전취약층	물리적 장치
방문건강관리	전체	노년	건강취약층	서비스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전체	전체	-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지원	전체	노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각지대 홀몸어르신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전체	전체	취약·위기가구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전체	중장년	-	서비스
둘레사람모임	남성	노년	독거노인	서비스
‘온동네돌봄’ 서로돌봄마을 조성	전체	전체	-	서비스
뜨개뜨개	여성	노년	독거노인	서비스

## 제2절 1인가구 정책수요 분석

### □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

○ 1인가구 10명 중 4-5명은 주거 지원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해

-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은 주거 지원정책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정책(29.1%), 건강 지원정책(14.3%) 순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 팔달구는 안전 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와 남성 1인가구, 팔달구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노년 1인가구, 장안구는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 | 시급한 지원정책

(단위: %)

구분	주거 지원정책	안전 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사회 지지체제 지원정책	기타	
전체	45.8	5.8	29.1	14.3	4.1	0.9	
성별	남성	50.2	3.7	26.1	13.0	5.5	1.5
	여성	40.6	8.4	32.6	15.8	2.5	0.2
세대별	청년	56.3	6.9	20.9	10.6	4.8	0.5
	중장년	48.6	4.5	25.2	14.7	5.3	1.7
	노년	20.4	6.6	52.4	20.2	0.4	0.0
지역별	권선구	43.6	3.7	34.0	14.0	3.3	1.4
	영통구	45.0	6.9	28.5	14.3	4.3	1.1
	장안구	35.8	4.7	35.1	18.9	5.4	0.0
	팔달구	59.3	8.2	17.8	10.3	3.6	0.8

### □ 정책지원 대상자

○ 1인가구 정책지원은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

- 1인가구 정책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소득(66.9%)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연령대(24.9%), 성별(8.2%) 순임

표 4-6 | 정책적 지원 우선 순위

(단위: %)

구분		소득	성별	연령대
전체		66.9	8.2	24.9
성별	남성	67.3	7.4	25.2
	여성	66.5	9.0	24.5
세대별	청년	69.8	10.0	20.2
	중장년	65.8	6.9	27.3
	노년	63.9	7.5	28.7

- 1인가구 정책 지원은 저소득층 우선, 성별과 무관하게, 연령대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저소득층 우선, 성별과 무관하게, 연령대와 무관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 모두 동성에게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청년 1인가구는 청년에게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장년과 노년 1인가구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 | 정책적 지원 우선 순위(세부사항별)

(단위: %)

구분	소득		성별			연령대				
	저소득층 우선	소득 무관	남성 우선	여성 우선	성별 무관	청년 우선	중장년 우선	노년 우선	연령 무관	
전체	54.9	45.1	5.8	14.3	80.0	21.2	8.8	25.4	44.6	
성별	남성	57.6	42.4	8.5	5.5	86.0	20.1	9.8	23.6	46.5
	여성	51.7	48.3	2.5	24.7	72.8	22.6	7.5	27.7	42.2
세대별	청년	53.4	46.6	6.8	17.5	75.7	45.3	5.0	15.6	34.1
	중장년	57.1	42.9	4.9	10.4	84.6	8.1	13.5	28.1	50.2
	노년	53.2	46.8	5.6	16.4	78.1	4.0	5.9	38.0	52.0

#### □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

- 수원시 1인가구 생활안심 지원 사업 중 인지율은 청년 월세지원이 가장 높고, 이용률은 가족여성

회관 1인가구 생활안전 프로그램이 가장 높아

- 생활안심 사업 항목별 인지도는 청년 월세 지원(42.0%)이 가장 높고 청년 면접 정장 대여(33.7%),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29.6%) 순으로 나타남
- 생활안심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목별 이용(신청)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족 여성회관 1인가구 생활안전 프로그램(37.2%), 화재 안전 취약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우리 동네 공구도서관(각 26.9%) 순으로 나타남
- 생활 안심 사업 이용자가 평가한 만족도는 우먼하우스케어 방법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81.8%), 우리동네공구도서관(76.0%) 순임
- 향후 생활안심 사업을 신청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우리동네공구도서관' (41.7%), '화재 안전 취약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33.1%),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30.2%) 순으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8 |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생활안심)

(단위: %)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신청		
	인지	비인지	있음	없음	불만족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14.5	85.5	11.5	88.5	18.2	81.8	24.8	17.5	57.7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	29.6	70.4	20.9	79.1	30.3	69.7	30.2	44.6	25.2
우먼하우스케어 방법 서비스	7.5	92.5	3.4	96.6	0.0	100.0	18.5	23.3	58.2
가족여성회관 1인가구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6.9	93.1	37.2	62.8	38.4	61.6	22.8	35.1	42.1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13.3	86.7	26.9	73.1	38.7	61.3	33.1	46.2	20.7
청년 월세지원	42.0	58.0	12.4	87.6	44.9	55.1	21.8	8.1	70.1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대여	33.7	66.3	11.7	88.3	25.2	74.8	13.8	15.2	71.0
수원에 다'잇'다	9.5	90.5	14.6	85.4	35.7	64.3	14.4	17.4	68.2
청년 고민상담소	16.6	83.4	10.9	89.1	41.6	58.4	13.1	19.1	67.8
우리동네공구도서관	19.1	80.9	26.9	73.1	24.0	76.0	41.7	42.8	15.5

- 수원시 1인가구 주거안심 지원 사업 중 인지율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가 가장 높고, 이용률은 새빛 청년존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주거안심 사업 항목별 인지도는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16.0%), 주거 취약계층 클린 서비스(10.9%), 청년/신혼 보증금 이자 지원(10.7%) 순으로 나타남
  - 주거안심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목별 이용(신청) 경험을 살펴본 결과, 새빛 청년존(23.2%), 주택 물색, 계약 지원 사업(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안심 사업 이용자가 평가한 만족도는 자립준비 청년 쉼어하우스 CON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92.6%),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 지원(81.2%)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주거안심 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42.4%), 주택 물색, 계약 지원 사업(34.6%), 주거 취약계층 클린 서비스(32.6%) 순으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9 |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주거안심)

(단위: %)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신청		
	인지	비인지	있음	없음	불만족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새빛 청년존	9.1	90.9	23.2	76.8	33.8	66.2	20.0	11.5	68.5
자립준비청년 쉼어하우스 CON	7.3	92.7	7.8	92.2	0.0	100.0	10.0	19.0	71.0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 지원	10.7	89.3	20.6	79.4	18.8	81.2	29.9	20.3	49.9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8.5	91.5	13.6	86.4	25.1	74.9	16.7	14.7	68.5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10.9	89.1	19.6	80.4	33.3	66.7	32.6	37.8	29.6
주택물색계약 지원 사업	8.5	91.5	22.8	77.2	41.6	58.4	34.6	39.9	25.5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16.0	84.0	11.8	88.2	7.4	92.6	42.4	38.5	19.2

- 수원시 1인가구 돌봄 사업 중 인지율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가장 높고, 이용의향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가장 높아
  - 돌봄 사업 항목별 인지도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27.7%), 방문 건강관리(17.4%),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돌봄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목별 이용(신청) 경험을 살펴본 결과, AI 활용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38.7%), 수원 새빛돌봄 시범사업(3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돌봄 사업 이용자가 평가한 만족도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90.4%)가 가장 높았고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89.9%),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87.3%)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돌봄 사업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35.6%), 방문 건강관리(32.7%) 등의 순으로 이용 의향 있다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4-10 |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돌봄)

(단위: %)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신청		
	인지	비인지	있음	없음	불만족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수원 새빛돌봄 시범사업	11.1	88.9	30.2	69.8	43.6	56.4	20.4	40.5	39.1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7.7	72.3	9.9	90.1	9.6	90.4	29.2	24.7	46.1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15.3	84.7	19.1	80.9	12.7	87.3	35.6	27.7	36.7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8.9	91.1	11.0	89.0	21.0	79.0	28.3	32.9	38.8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14.2	85.8	21.0	79.0	27.1	72.9	24.7	30.6	44.7
방문 건강관리사업	17.4	82.6	16.1	83.9	15.6	84.4	32.7	31.1	36.3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7.3	92.7	20.8	79.2	24.1	75.9	18.4	30.2	51.4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	15.1	84.9	5.3	94.7	10.1	89.9	25.0	32.2	42.8
AI 활용 위기가구 발굴, 지원	5.7	94.3	38.7	61.3	24.1	75.9	22.3	40.6	37.1

- 수원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 중 인지율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이 가장 높고, 이용경험과 이용의향 모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높게 나타나

- 맞춤형 사업 항목별 인지도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10.7%), 수원ON청년(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맞춤형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목별 이용(신청) 경험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29.0%), 온 동네 돌봄(26.7%), 청년상사(22.4%), 수원ON청년(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맞춤형 사업 이용자가 평가한 만족도는 온동네 돌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원ON청년, 청년상사 순임
- 향후 맞춤형 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36.2%) 이용 의향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1 |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사업(맞춤형 사업)

(단위: %)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신청		
	인지	비인지	있음	없음	불만족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지원 사업	10.7	89.3	29.0	71.0	43.1	56.9	36.2	40.8	23.1
청년상사	4.5	95.5	22.4	77.6	42.7	57.3	12.3	17.3	70.4
둘레사람모임	4.0	96.0	6.2	93.8	67.4	32.6	15.6	47.3	37.1
온동네돌봄	4.0	96.0	26.7	73.3	25.1	74.9	14.5	49.9	35.7
수원ON청년	6.4	93.6	21.3	78.7	32.6	67.4	18.3	33.2	48.5
뜨개뜨개	4.5	95.5	0.0	100.0	-	-	11.2	51.0	37.7

- 수원시 1인가구 전체 사업 중 청년 월세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우먼하우스케어 방법 서비스 사업, 자립준비청년 쉼어하우스 CON의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인지도는 청년월세지원,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 순
  -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이용자 만족도는 우먼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자립준비 청년 쉼어하우스 CON 순

그림 4-1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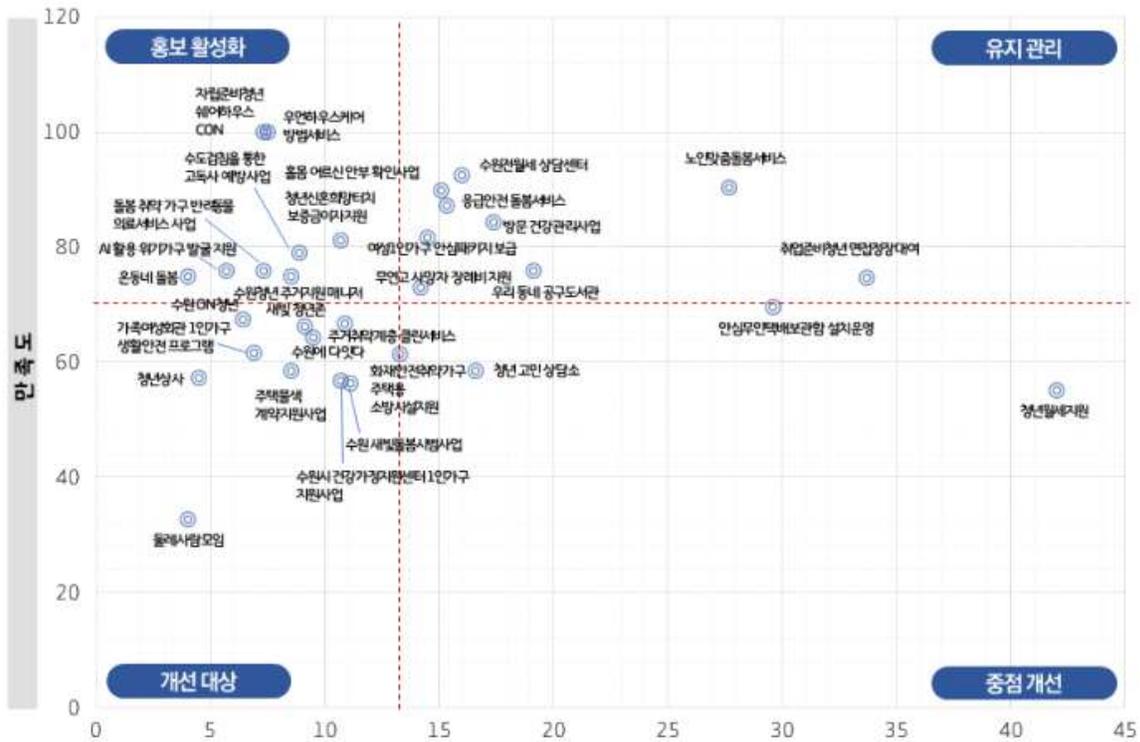


□ IPA<sup>1)</sup>를 활용한 수원시 1인가구의 정책인지도와 만족도 분석

- 총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IPA를 분석하여 유지관리, 홍보활성화, 개선대상, 중점 개선 4개 영역 구분
  - 인지도 高, 만족도 高: 지속 유지관리
  - 인지도 低, 만족도 高: 홍보 활성화
  - 인지도 高, 만족도 低: 중점 개선(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문제점 개선 등)
  - 인지도 低, 만족도 低: 개선 대상(정책 목표와 내용 재설정, 실질적 혜택 제공 여부 파악 등)

1) IPA(Important-Performance Analysis)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방법임(소순창 외, 2019)

그림 4-2 | IPA를 활용한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 1인가구 포털 이용 경험과 이용의향

- 1인가구의 3.1%는 온라인 포털 쏘옥 이용 경험 있으며, 61.7%가 이용 의향 있어
  - 1인가구의 96.9%는 수원시 1인가구 온라인 포털 쏘옥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나, 61.7%가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에서 향후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4-12 | 1인가구 포털 이용 경험과 이용의향

(단위: %)

구분	이용경험		이용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3.1	96.9	61.7	38.3	
성별	남성	4.8	95.2	63.1	36.9
	여성	1.0	99.0	60.1	39.9
세대별	청년	3.9	96.1	66.2	33.8
	중장년	3.3	96.7	68.4	31.6
	노년	0.9	99.1	40.2	59.8

□ 1인가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1인가구는 관련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획득해

- 1인가구의 39.3%는 1인가구 관련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획득하며, 다음으로 개인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17.8%, 주변 지인(16.7%)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는 개인 SNS를 통해 1인가구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년 1인가구는 주변지인과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함

표 4-13 | 1인가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주변 지인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수원시 관계기관	수원시 및 구청 홈페이지 및 SNS	온오프라인 신문기사	기타
전체		39.3	17.8	16.7	10.0	5.8	5.0	3.5	1.8
성별	남성	41.7	19.6	12.6	8.9	5.1	5.7	4.9	1.5
	여성	36.5	15.6	21.7	11.4	6.7	4.2	1.8	2.2
세대별	청년	41.3	29.5	13.3	2.7	1.3	5.2	4.9	1.8
	중장년	47.9	14.3	12.7	9.6	3.8	5.9	3.2	2.4
	노년	17.8	3.3	31.4	24.5	18.4	2.8	1.4	0.5

## 제5장

# 결론

제1절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방향과 제언

제2절 향후 연구 제안



# 제5장 결론

## 제1절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방향과 제언

### 1.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설계의 주요 가치

#### □ 이행기 정책 지향

- 생애주기상에서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기반할 때 1인가구는 이행기 정책

- 어떤 이들은 1인가구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생애사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경험을 함.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이 생애주기의 일시적 과도기적 단계인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윤희유를 공급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것 임. 청년1인가구 지원정책은 이런 점에서 보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변미리, 2019)

- 수원시 1인가구는 비자발적 요인(36.3%) 보다 자발적 요인(62.5%)으로 형성되고 있음. 다만,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들은 자발적 요인으로 1인가구로 생활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자발적 요인으로 생활하는 비율 높음. 비자발적 요인으로 1인가구로 생활하는 고령 1인가구는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장점,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세대보다 낮게 나타남. 생애주기상에서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기반할 때 1인가구는 이행기 정책이어야 함

#### □ 맞춤 정책 지향

-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사회경제적 조건별) 맞춤 정책 지향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가 하나의 특성을 가진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별로 다양한 1인가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 가령, 같은 1인가구여도 청년은 주거비가 저렴하고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노년은 주거비가 비싸더라도 큰 주택을 원하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 차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청년은 독립생활 기간이 짧고 주거 이동이 잦으며,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주택 면적과 수준에 덜 민감한 반면에, 중노년은 원가족과 오래 살아 온 경험이 있거나

개인 살림이 많고 주택 내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주택 면적과 수준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안전에서도 절도, 강도, 주거침입 등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음. 노인은 보이스피싱 등 취약한 정보역량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많음. 따라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제안되어야 함(안현찬, 2024).

- 또한 생애주기의 전반기에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생애사 중, 후반기에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요는 다르기에 각 집단의 인구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은 세대별 특성에 따른 문제와 사회적 위험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설계 필요.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주거 안정을, 중장년층에게는 만성질환 관리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노인 1인가구에게는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

#### □ 통합 정책 지향

-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측면의 통합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중요
  -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1인가구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음. 수원시도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임. 1인가구 증가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인구 고령화, 비혼, 만혼, 이혼과 별거 등), 도시화와 개인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존의 정책설계는 4인가구 중심임(주거 공간 설계, 가족 정책 등). 따라서, 1인가구를 포괄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1인가구 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닌, 연계성과 통합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지속가능한 정책 지향

-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가령, 정기적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관리 교육 및 일자리 연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됨

- 접근성 향상(Accessibility) 측면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건강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2.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방향

### □ [정책방향 1]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1인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 필요
  - 청년 1인가구는 주거 안정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년 1인가구는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노인 1인가구는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지원,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원스톱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함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 일본, 영국은 1인가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1인가구의 주거, 심리상담, 커뮤니티 형성,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중임. 영국은 Solo Living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보를 제공중
-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1인가구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현재 도쿄의 지역포괄센터에서는 장애인(신체, 정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
  - 사회적 어려움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따라서 센터를 방문하여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있음
-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현재 수원시는 일본 도쿄와 같이 히키코모리를 위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사업을 특화시켜 접근하는 것이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
  -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주된 서비스 제공 방법이기 때문에 수원지역에서 거점기관을 설정하고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것 필요. 특히 수원시는 행정복지센터를 게이트웨이로 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정책방향 2]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예방적 조치 필요

### ○ 장기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의 한계이기도 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1인가구의 자립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예컨대, 청년 1인가구는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사업과 자기개발을 연결해주고,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재정 관리와 만성질환예방 사업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노인 1인가구에게는 만성질환 관리, 우울관리,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 잠재적 1인가구인 4050을 위한 예방 조치 필요

- 현재 일본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4050문제는 현재 한국에서도 발생중인 문제임.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중 부모의 은퇴나 사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1인가구를 위한 예방적 조치 필요

## □ [정책방향 3]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통합 서비스 제공

### ○ 다양한 채널을 통한 1인가구의 정보 접근성 확대

-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청년 1인가구에게 제공 중인 SNS 기반의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개입을 중장년과 노인층에게도 적용필요. 특히 한국 노인들은 SNS 이용률이 매우 높음. 이와 함께, 중장년층과 노인층에게는 지역 커뮤니티와 방문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 적용 고민

- 주택의 새로운 지역형 모델로 미국의 컴온(Common)과 일본의 '캉캉모리'의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 청년1인가구를 위한 신주거문화, 코리빙(Coliving): 청년 1인가구는 주거 안정성이 낮게 나타남. 수원시 청년 1인가구도 주거안전성(자가, 전세 비율)이 40% 정도이고 세입자일수록 주거비 부담과 거주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거 선택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경험함.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적 공간을 지키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코리빙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셰어하우스가 개인공간이 있고 주방과 거실 등 필수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코리빙하우스는 그 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카페, 운동 공간, 테라스, 미팅룸, 루프탑 등 다양한 특별 공유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임
- 일본 캄캄모리가 수원시에 시사하는 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함과 더불어 사회와 개인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에서는 안산의 노인케어안심주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과 국내 사례를 접목하여 수원시가 현재 임대주택에 방향성을 단순하게 주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꼭 1인가구만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속에서 삶의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주거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캄캄모리는 1층에 보육원, 2-3층에 일본의 임대주택, 4층 이상에 노인 양로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되면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점 있음.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높지 않고 대상별로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주민들이 한 시설 내에서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화 공간에 대한 고민 필요

□ [정책방향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1인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 AI 스피커나 스마트 워치 등을 통해 일상에서의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필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은 취약 1인가구 FGI에서 AI를 활용한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년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정책방향 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 및 상호 지원 연계
  - 청년에게는 직업과 주거, 결혼 등을 포함하여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연결시켜주어야 하며,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하여 보다 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 필요

- (학교와 연계한 청년 1인가구 지원) 수원시는 학교,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에서 이주한 청년이 많은 도시임. 따라서 학업, 취업 등으로 수원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 특히 청년 1인가구는 학교와 직장과의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자립, 청년의 주거 안전, 청년의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가능

□ [정책방향 6] 정기적인 사업 평가와 피드백 체계 마련

-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의 목적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는 주기성을 가져야 함. 이를 통해 평가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속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예컨대, 청년 1인가구의 월세 지원의 효과, 고민상담소의 효과성, 노인 1인가구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개선 효과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 있음

□ [정책방향 7] 1인가구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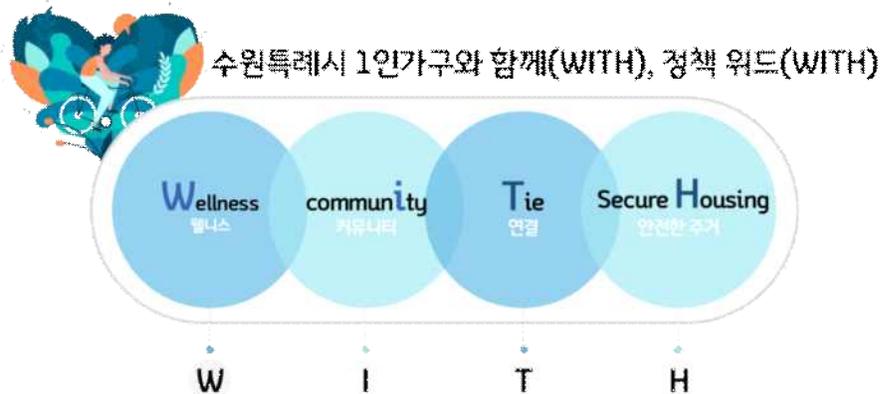
-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 특성이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 이외의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예: 간호사, 심리상담사, 교육 전문가 등) 확보가 중요
-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현재의 복지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강화 또한 중요

### 3. 수원시 1인가구 정책 키워드와 신규 사업 제안

□ 수원시 1인가구의 공통, 이질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키워드 WITH

- 수원시는 1인가구 비전을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로 설정하고 사업 추진 중
- 1인가구 비전 달성을 위한 수원시 정책 키워드 [수원특례시 1인가구와 함께(WITH), 정책 워드(WITH)]
  - 웰니스(Wellness): 수원시 1인가구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정책
  - 커뮤니티(Community): 수원시 1인가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
  - 연결(Tie): 1인가구를 하나로 연결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정책
  - 안전한 주거(Secure Housing): 1인가구의 거주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그림 5-1 | 수원시 1인가구 정책 키워드



## □ 수원시 1인가구 신규 사업 제안<sup>1)</sup>

- 앞서 기술한 수원시 1인가구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신규 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1] '몸, 마음 건강' 사업

<b>정책키워드</b>	웰니스
<b>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수원 청년 1인가구의 14.1%는 사회적 고립, 6.5%는 은둔 경험이 있으며, 24.0%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음. 즉, 청년 1인가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큼. 또한 사회적 지지와 건강문해력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등이 큰 건강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이에, 정신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웰빙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높음.</li> </ul>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심리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 형성하도록 함</li> <li>◦ 개인 심리지원의 경우, 자기이해, 대인관계, 자기성장,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li> <li>◦ 주 1회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혼자서 건강한 음식을 해먹는 방법 교육, 금연 및 금주 교육 및 상담</li> <li>◦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활용한 청년의 건강데이터 수집, 상담 및 피드백</li> <li>◦ 연 1회 이상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시</li> <li>◦ SNS를 통한 모바일 상담 지원 프로그램 병행 실시</li> <li>◦ 청년 건강검진 지원</li> </ul>
<b>정책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1인가구</li> </ul>
<b>담당부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지원센터 / 청년 고민상담소와 연계하여 추진</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1인가구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 감소</li> <li>◦ 청년 시기에 간과하기 쉬운 건강 위해 행동에 대한 개입을 통해 미래의 만성질환 예방</li> <li>◦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을 통한 웰빙과 삶의 질 향상</li> </ul>

### [정책2] 숲체험, '숲에서 나와 우리를 찾다'

<b>정책키워드</b>	웰니스, 커뮤니티, 연결
<b>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립감, 스트레스, 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도시 생활 속에서 숲과 같은 자연 환경과의 접촉이 부족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숲체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li> </ul>

1) 수원시 1인가구 신규 사업 제안은 서울연구원 안현찬 연구위원(주거 및 안전 분야)과 인제대학교 손창우 교수(건강 분야)의 제안을 기반으로 작성함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체험 워크숍: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자연 산책, 명상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연계, 자기 탐색 등</li> <li>◦ 1:1 심리상담 및 그룹 상담: 숲체험 전후 심리 전문가와의 1:1 상담, 경험 공유 및 피드백</li> <li>◦ 1인가구 청년간 네트워킹과 소모임 활동</li> <l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li> <li>◦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없이 하루 살기</li> </ul>
<b>정책 대상지</b>	◦ 광고 삼림욕장, 영흥숲공원
<b>정책대상</b>	◦ 청년 1인가구
<b>담당부서</b>	◦ 청년지원센터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li> <li>◦ 숲체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li> </ul>

**[정책3] '건강한 한 끼, 건강한 하루'(소셜 다이닝과 건강)**

<b>정책키워드</b>	웰니스, 커뮤니티, 연결
<b>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중장년층은 요리와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에 노출될 위험이 큼.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16.0%는 먹거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식사 해결을 위해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한다는 비율과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li> <li>◦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닌 간편식이나 외식에 의존하는 경우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li> <li>◦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뷰에서 필요 프로그램으로 '요리 프로그램' 제안</li> </ul>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가가 보장되어 있는 간편식 요리 수업(전문가 교육)</li> <li>◦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되, 저염식, 저칼로리 한끼 메뉴 교육</li> <li>◦ 올바른 요리법 습득 및 식습관 형성</li> <li>◦ 질병 예방,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흡연 및 음주 등 개인 맞춤형 건강행동 교육 제공</li> <li>◦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li> </ul>
<b>정책대상</b>	◦ 중장년 1인가구
<b>담당부서</b>	◦ 건강가정지원센터 / 중장년 동아리, 요리, 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1인가구의 영양 상태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li> <li>◦ 건강한 요리방법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li> <li>◦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지지망 형성</li> </ul>

**[정책4] '디지털 건강관리 교육'**

<b>정책키워드</b>	웰니스, 커뮤니티
<b>배경 및 필요성</b>	◦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해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비용-효율성이 높은 개입 방식임</li> <li>◦ 또한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li> </ul>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초 교육, 스마트폰 및 태블릿 활용법 교육</li> <li>◦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앱 활용법 (예: 걷기, 식습관, 의료기관 정보, 약물정보 및 복약 순응 안내 등)</li> <li>◦ 디지털 건강 정보 탐색 및 활용</li> <li>◦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사이트 소개</li> <li>◦ 건강관리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적 건강관리 실습</li> <li>◦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디지털 교육 봉사 활동과 연계</li> </ul>
<b>정책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li> </ul>
<b>담당부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지원팀</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및 건강관리 능력 강화</li> <li>◦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 정보 탐색 및 활용으로 건강관리 역량 증진</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소속감 증진</li> <li>◦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li> </ul>

<b>[정책5]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의 인지저하 및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b>	
<b>정책키워드</b>	웰니스, 커뮤니티
<b>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시의 고령화 추세와 이에 기반한 인지저하 및 치매 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이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됨.</li> <li>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AI 로봇 등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인지기능 평가 및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li> <li>이를 위하여, 민간기업, 의료기관, 지역사회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 치매 노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과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한 인지 기능 자가 진단 앱 사용 교육 및 검진 실시</li> <li>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 퍼즐, 퀴즈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li> <li>대상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른 월 1회-연 1회 전문가와의 인지기능상태 평가 및 피드백</li> <li>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치매 위험군으로 판정된 대상자에게 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정밀 검진 및 상담 제공</li> <li>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워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치매 대상자의 생활습관, 약복용 상태, Q&amp;A 등을 가족 및 돌봄제공자와 소통하도록 함.</li> <li>인공지능(AI) 스피커 또는 로봇을 활용하여 운동, 식사, 의약품 복용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대화를 통한 고립감 탈피</li> <li>치매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치매 대응 방안 교육</li> <li>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정보 제공</li> <li>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및 개선을 위한 피드백 채널 운영</li> </ul>
<b>정책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 및 노년 1인가구</li> </ul>
<b>담당부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센터 / 수원시 경력이음일자리사업(치매길벗)과 연계</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 및 고령층의 인지 건강 개선 및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치매 유병률 감소와 중증화 억제</li> <li>인지저하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부담 경감</li> <li>지역사회 내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li> </ul>

**[정책6] 커뮤니티 일자리 결합형 매입임대 주택 공급**

<p><b>정책키워드</b></p>	<p>안전한 주거, 연결</p>
<p><b>배경 및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는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에 속한 취약 남성이 유력<sup>2)</sup></li> <li>◦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연계하고, 임대료를 소득과 연동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유사사업 현황과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는 주거취약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lt;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gt;을 시행, 이 사업은 취약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몇 가지 한계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부 사업은 쪽방촌, 고시원 밀집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에 집중함에 따라 중장년 1인가구가 밀집한 일반 연립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대상에서 제외</li> <li>2) 국토부 사업은 현재 거주지와 먼 지역의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이주를 주로 지원해서 △현재 지역에 계속 거주를 원하는 수요와 괴리가 있고, △건설원가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의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재고 물량을 제공해 수요자 불만족이 발생</li> <li>3) 국토부 사업도 일자리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지역 민관단체를 통해 추진하다보니 실행력이 낮고 주택 공급에 비해 부차적으로 다루어짐</li> </ol> </li> </ul> </div>
<p><b>정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지 발굴은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에 속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파악해 사업 수요와 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li> <li>◦ 시범사업은 수원시가 직접 또는 경기도나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해 실시</li> <li>◦ 사업 효과가 확인된다면, 국토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대상과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수원시는 개선된 국토부 사업을 활용</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통합공공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및 시세 연동으로 밀집지역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주거비 부담에 적합</li> <li>임대보증금: 임대시세*소득구간계수*0.3%</li> <li>임대료: 임대시세*소득구간계수*0.65*시장전환율</li> <li>• 최근 서울시는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 방안 검토 중</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10px;">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막거리 관련 공유공간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1인가구 비율 수요가 높은 막거리 관련 시설 저층부 유치</li> <li>1인가구 식자재점(지역상권 활성, 일자리 창출 가능)</li> <li>성공방문사업(소셜다이닝, 상담 서비스 결합 가능)</li> <li>• 입주자들이 주거와 공유공간 이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웃관계 형성 및 생활 협력</li> </ul> </div> </div>
<p><b>정책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1인가구</li> </ul>
<p><b>담당부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과</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은 소득 및 시세를 연동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현재 거주지에 소규모로 공급해 입주자의 거주지 선호와 주거비 부담을 충족</li> <li>◦ 주택의 저층부에는 1인가구 식자재점과 같이 입주자의 수요가 높은 시설을 배치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li> </ul>

2) 안현찬 외(2021)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이혼, 별거 등으로 1인가구가 되어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도 취약하고, 공적 급여나 불안정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음. 이들은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해당 지역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월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기도 함

**[정책기] 1인가구 주택 개조 지원**

<p><b>정책키워드</b></p>	<p>안전한 주거</p>
<p><b>배경 및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노인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보장하려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 입소가 아닌 “원래 살던 곳에서 늙어”(ageing in place)갈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지원이 필요</li> <li>◦ 강은나(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대부분 민간주택에 거주하고(자가 68%, 임차 20%), 수원도 자가와 전세 비율이 66.1%로 비슷한 수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유사사업 현황과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노인 대상 주택개조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이거나 주택성능 개선만 지원하고 있어서 중소득층 허약노인을 위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지원이 부재</li> <li>•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의 &lt;수선유지급여&gt;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만 해당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은 &lt;희망의 집수리&gt;와 같이 단열, 방수, 위생 등 주택성능 개선만 지원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고영호(2021)에 따르면 기존 사업에서 배제된 허약한 중소득 노인은 2020년 67만 명에서 2040년 118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li> </ul> </div>
<p><b>정책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득층 노인 1인가구를 위한 고령친화 주택 개조 지원은 수원시 1인가구 중 잠재위험형에 특화된 사업</li> <li>◦ 지원 대상: 주택성능이 양호한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자가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45-100%에 해당하며, 일상생활능력(ADL)이 양호하거나 점차 약화되고 있어 보조시설이 필요한 사람</li> <li>◦ 지원 내용: 주택 내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와 가드레일 설치, 고령자용 변기 및 싱크대 교체 등 고령친화 시설 설치로 단열, 위생, 방수, 도배 등 일반적인 주택성능 개조와 구분</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 style="font-size: small;">출처: 안현찬 외(2019)</p>
<p><b>정책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년 1인가구</li> </ul>
<p><b>담당부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과</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통해 안전한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li> </ul>

## [정책8] 민간협력형 공유주택 공급

정책키워드	안전한 주거, 커뮤니티, 연결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시 1인가구 중 다중결핍형은 공유주택 거주 의향이 높음. 하지만 사회주택이나 민간쉐어하우스는 대부분 청년 세대를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유형에 속한 장년 남성, 노년 남성 및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다중결핍형은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비 부담 능력상 민간 공유주택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공유주택 공급이 필요</li> </ul>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중고령 1인가구(공공 공유주택처럼 임대료 할인의 근거로 소득기준 설정 필요)</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료는 사회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공간은 중고령자의 주거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li> <li>-개별 주호는 개인 살림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긴 점을 감안해 청년 1인가구보다는 넓은 면적과 수납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li>-주택 내 입주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 부엌, 식당, 거실, 운동시설, 작업장 등을 설치하고 공동 식사와 운동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li> </ul> </li> </ul>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령 1인가구</li> <li>여성 1인가구</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과</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비 경감 및 공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li> <li>거주공간에서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사회적 외로움, 고립감 해소</li> </ul>

## [정책9]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원

정책키워드	주거, 커뮤니티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시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갖는 안전 우려는 귀갓길, 방치된 공간 등에서 폭력 범죄에 노출된 경우임</li> <li>이러한 장소는 아파트에 비해 공동현관 출입카드, 경비원, 옥외 감시카메라 등이 부족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건물 입구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필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유사사업 현황과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2019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소급 설치 의무가 없음</li> <li>1인가구 안전 분야 지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비 지원은 주택 내부와 같은 개인 영역 방법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은 대중교통 정류장, 변화가, 골목길 등 공공 영역에 집중해 개인과 공공 영역의 중간지대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외부공간 개선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li> </ul> </div>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대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19.7.31) 이전에 지어졌고, 입주자의 50% 이상이 1인가구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li> <li>지원내용: 신청한 주택에는 완공 이후에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연접한 골목길 안전성 제고에도 효과적인 담장 사각지대 해소, 1층 주차장 조명 및 CCTV 설치 등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방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 개정 추진, 수원시 조례를 신설할 필요</li> </ul>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및 방법 취약 1인가구</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과</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법 취약 주택을 개선 및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의 안전성 제고</li> </ul>

**[정책10] 배달라이더와 연계한 안심살피미 운영**

정책키워드	주거, 커뮤니티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밤시간에 골목길 곳곳을 자주 방문하는 민간 서비스와 협력하여 방법 범위와 빈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 가장 적합한 대상 중 하나는 배달 라이더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유사사업 현황과 한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0px;">•</td> <td>2022년 7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오토바이 배달원 단체인 '스파이더 울주본부'와 '지역 배달원 연계 치안 협력체계(마을방법활동)'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배달원 순찰대 시범사업을 실시<sup>3)</sup></td> </tr> <tr> <td>•</td> <td>협약을 맺기 전 울산에서는 심야 시간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하려다 이를 보고 달려온 배달라이더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스파이더 울주본부는 △배달 라이더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교육 지원, △지역 내 범죄 예방 참여 및 안전 캠페인 전개 협력, △지역 공동체 방법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등을 내용으로 협약 체결</td> </tr> </tbody> </table>	유사사업 현황과 한계		•	2022년 7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오토바이 배달원 단체인 '스파이더 울주본부'와 '지역 배달원 연계 치안 협력체계(마을방법활동)'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배달원 순찰대 시범사업을 실시 <sup>3)</sup>	•	협약을 맺기 전 울산에서는 심야 시간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하려다 이를 보고 달려온 배달라이더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스파이더 울주본부는 △배달 라이더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교육 지원, △지역 내 범죄 예방 참여 및 안전 캠페인 전개 협력, △지역 공동체 방법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등을 내용으로 협약 체결
유사사업 현황과 한계							
•	2022년 7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오토바이 배달원 단체인 '스파이더 울주본부'와 '지역 배달원 연계 치안 협력체계(마을방법활동)'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배달원 순찰대 시범사업을 실시 <sup>3)</sup>						
•	협약을 맺기 전 울산에서는 심야 시간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하려다 이를 보고 달려온 배달라이더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스파이더 울주본부는 △배달 라이더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교육 지원, △지역 내 범죄 예방 참여 및 안전 캠페인 전개 협력, △지역 공동체 방법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등을 내용으로 협약 체결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지자체 또는 경찰과 협약을 맺은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를 대상으로 안심돌보미 활동 신청 받음. 행정당국은 배달 라이더가 안심돌보미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시간대와 지역을 설정하고, 이 시간과 장소에 배달을 하는 라이더는 골목길, 방치된 공간, 공사장, 주차장 등 범죄 발생 두려움이 큰 장소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 신고를 받은 행정당국은 상황에 따라 안심보안관, 경찰 등 적절한 인력에게 연계해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함. 행정당국은 배달 라이더가 서행을 하면서 안심 돌보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배달비 일부 보조</li> </ul>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및 방법 취약 1인가구</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과</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법 취약 지역의 골목길 안전성 제고</li> </ul>						

3) 파이낸셜뉴스, “배달 오토바이 방법활동에 투입된다... 울산시 시범 사업 시행”(2022.07.21.)  
<https://www.fnnews.com/news/2022072111053090715>

## 제2절 향후 연구 제안

### □ 정기적인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필요

- 2024년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첫조사, 주기성을 가지고 수원시 1인가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 필요

-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처음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원시는 수도권내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이며, 향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인가구 증가는 사회구조, 경제, 주거환경, 복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정기 조사를 통해 1인가구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 있음

- 현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 중임

###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수원시 1인가구의 정책방향과 주요 가치 제안함. 이에 근거하여 다음의 연구 추진될 필요 있음

#### [과제1] 수원시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자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내용 보완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1인가구를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함. 그중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이 높은 잠재위기형임. 정책 우선순위인 잠재위기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반영할 필요 있음

#### [과제2] 수원시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 중요
  - 현재 수원시 1인가구팀이 다루는 정책 범위 넓음. 전달체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 연구 필요

#### [과제3] 1인가구의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에 관한 연구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에 취약, 1인가구의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비만, 면역 체계 악화, 불안, 우울증, 인지 저하

및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한 위험이 높음. 1인가구는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측면에서 취약 집단에 해당함. 따라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병익, 고승연, 채은동. (2023). **나를 위한 행복, 모두를 위한 나라**. 민주연구원.
- 강소량, 정혜윤, 송창용, 최일선, 유선치, 임승연. (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강은나. (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영호. (2021). **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 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 권진희, 이영민, 이지혜, 채재은, 조규형, 김정현, 양현경. (2018). **50+교육 체계 수립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김영범, 석재은, 유지영, 임연옥. (2022). **강원도 장년층(50세-64세) 1인가구 정책 연구**. 강원도.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 김현미. (2017). **독거노인 사회적관계 활성화 방안-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중심으로**, 한국노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김현희. (2012).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 노현주, 강지원. (2022).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정책: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1, 100-111.
- 마쓰시타 마나. (2022).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1, 120-124.
-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 Brief**, 627, 1-8.
- 박선미, 김수범. (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 변미리, 김석호, 박민진, 구서정. (2019). **성남시 1인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시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소순창, 이창섭, 한형서. (2019).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3(1), 119-144.
- 신현진. (2018).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및 주거상품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지역개발·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현찬, 김승연, 변금선, 김성아, 남원석, 박은숙, 최현임, 박민진, 문진영, 박지선.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서울연구원
-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 이민주, 박민진. (2022). **서울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의 적용**, IDI 도시연구 제2호, 227-271.
-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 이상아, 박지영, 이석미, 고은새, 이원지. (2022).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자활사업 모델개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석환, 최조순. (2015). **경기도 1인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선인. (2021).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에게 빈집·빈방 공급. **세계도시동향**, 507, 10-11.
- 이지연. (2015). 미국의 고령자 복지 법제 및 프로그램. **글로벌 현안분석**, 3, 68-83.
- 임정미. (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5, 67-77.
-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가구 관련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1, 37-49.

정진호, 이재용, 이재천. (2022). 해외 주거정책 동향. **글로벌정보**, 489, 92-99.

조규형, 강소량, 한창근, 강시은. (2019).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허철희, 정민영, 이유리, 임선미, (2021), **구리시 1인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사회경제연구원.

황재영. (2015). **지역노인 돌봄을 위한 포괄케어체계 구축방안**. 부산복지개발원.

---

## 해외자료

---

山縣 然太朗, 田宮 菜奈子, 武藤 香織, 篠原 亮次, 橋本 有生. (2019). 身寄りがない人の入院及び医療に係る意思決定が困難な人への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平成30年度厚生労働行政推進調査事業費補助金.

Snell, K. D. M. (2017). The rise of living alone and loneliness in history. *Social History*, 42(1), 2-28. <https://doi.org/10.1080/03071022.2017.1256093>.

##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2023.10.31.)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2024.04.05.)

경기도 1인가구포털(<https://www.gg.go.kr>)

동경시 홈페이지(<https://www.metro.tokyo.lg.jp>)

미국은퇴자협회(AARP) connect2affect 사회적 관계망 플랫폼 웹사이트(<https://connect2affect.org>)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census.gov>)

미국 코리빙 하우스 common 홈페이지(<https://www.common.com>)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홈페이지(<http://seongnam1in.kr>)

수원시 쏘옥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쌍글빙글 서울 홈페이지(<https://1in.seoul.go.kr>)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oe.cd/fdb-asia>)

유럽 통계청 홈페이지(<https://ec.europa.eu/eurostat>)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ons.gov.uk>)

일본 국세자료 조사([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e-stat.go.jp>)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고독·고립대책추진법(孤独·孤立対策推進法) 웹사이트. <https://www.cas.go.jp>.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업무(<https://www.mhlw.go.jp>).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통계청(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C:/Users/CSJSRI/AppData/Local/Temp/MicrosoftEdgeDownloads/4d3789b6-784e-4381-a3ca-22e6ad99c09b/2022+%ED%86%B5%EA%B3%84%EB%A1%9C+%EB%B3%B4%EB%8A%94+1%EC%9D%B8%EA%B0%80%EA%B5%AC.pdf)

금민.(2017.01.21.). 1인가구 정책, '맞춤형'보다 '보편'과 '기본'.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1211722001>

이슬아. (2020.5.26.) 독일 40% 1인가구...주택보조금 '본겔트' 무엇? 1코노미뉴스.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4>

배규민, 이소은(2023.06.25.) 혼자 살고 싶은데..."외로운 건 싫어" 1인가구 몰려가 사는 곳. 머니투데이.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414574251173>.

지역청년서포터센터 웹사이트 <https://saposute-net.mhlw.go.jp/about.html>

Grahns, A. (2019.1.14.). TAX RISE How to pay less Council Tax before bills rise by £100 in April. The Sun. from <https://www.thesun.co.uk/money/8187790/council-tax-bills-rise-2019-how-pay-less/>

Richard O.(2015.12.20.). Home alone nation: how the Danes fell in love with the idea of solitary living. fr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dec/20/city-of-borgen-key-to-happiness-own-front-door>.

World Economic Forum. (2020.1.8.). Why humans are increasingly choosing to live alone.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1/living-alone>

Men's Shed Program(<https://menshed.com>)

Men's Shed Program (<https://usmenssheds.org>)

PNA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 웹페이지. <https://www.phinneycenter.org/seniors/social-connections-project/>

## 부록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 수원특례시 1인가구 실태조사

ID

\* 통계법 제33조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리서치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수원특례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원특례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1인가구를 위한 수원특례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03월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

### A. 일반사항

A1.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출생연도	(            )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지역	① 권선구    ② 영통구    ③ 장안구    ④ 팔달구
가구 구성	① 1인가구    ② 다인 가구 ( - 조사중단 ) *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의미합니다.
혼인상태	① 기혼(거주지 분리 포함)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졸업상태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발주기관		실사대행기관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 연락처 : 031-220-8042	 수원특례시 1인가구지원팀 연락처 : 031-228-3706	 최선아 수석 연락처 : 02-3014-1025 이승찬 프로 연락처 : 02-3014-0054	

### B. 1인가구의 삶과 인식

B1. 귀하께서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최근 경험을 기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년		개월
--	---	--	----

B2. 귀하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3. 귀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내용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1) 나의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3)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4)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5) 나의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6) 나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7)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미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9)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0) 지역사회 환경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1)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2) 내가 하는 일 ※ 직업이 없는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3) 나의 경제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B4.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 ② 시험, 자격증, 취업준비를 위해
- ③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 ④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 ⑤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분가 때문에
- ⑥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 ⑦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 ⑧ 개인적인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 ⑨ 기타 ( )

B5.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B15.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 ② 별로 의향이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의향이 있다
- ⑤ 매우 의향이 있다





C8. 귀하께서는 노후를 대비해 현재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미 은퇴하신 경우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감안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 (☞ C8-2로 이동으로 이동)
- ② 전반적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편이다 (☞ C8-2로 이동으로 이동)
- ③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편이다 (☞ C8-1로 이동)
- ④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C8-1로 이동)

C8-1. 노후준비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이미 은퇴하신 경우 본인의 노후준비 항목을 고려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① 보험, 저축 등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 ②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유지
- ③ 직업이나 일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와 자기관리
- ④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
- ⑤ 활동적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 ⑥ 기타 ( )

C8-2. 귀하께서 현재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이미 은퇴하신 경우 본인이 노후준비를 못했던 이유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①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 ② 결혼자금(예식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③ 재산 상속이 기대되어서
- ④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므로
- ⑤ 지금부터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되어서
- ⑥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
- ⑦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⑧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전반적인 비용 때문에(양육, 교육, 결혼 지원 등)
- ⑨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 ⑩ 기타 ( )

C9. 최근 3개월을 고려했을 때, 귀하가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을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구분	해당사항	2024년 월평균 소득 (세후 소득 기준, 없으면 '0' 기입)	
		월평균	만 원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써, 상시근로자소득(3개월 이상 지속고용), 일용근로자 소득, 지월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월평균	만 원
2)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상시자속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월평균	만 원
3) 재산소득	• 개인 또는 법인의 자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월평균	만 원
4)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공적연금 및 퇴직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월평균	만 원
5)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금품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월평균	만 원
6) 기타소득	• 증여·상속액, 경조금, 부동산매매차익, 민간보험금 등 1)~5)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월평균	만 원
총합		월평균	만 원

C10. 귀하가 수원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만 원
-----	--	-----

C11. 귀하가 수원에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만 원
-----	--	-----

C12. 최근 3개월(올해)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였습니까?

※ 월평균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만을 의미하며,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재산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제외한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가족 돌봄비(사적 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월평균		만 원
-----	--	-----

C13.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 중 다음의 항목별 지출 비중을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해당사항	비율
1) 식비	가정내 식료품비	( )%
	외식비, 배달음식 및 음식 포장 등에 지출 비용	( )%
2) 주거비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공과금	( )%
3) 의류/잡화비	옷, 신발 등 의류 구매 및 세탁비, 수선비용 등	( )%
4) 교통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등	( )%
5)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등 요금	( )%
6)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자기계발, 교재구입비 등	( )%
7) 보건 의료비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용 등	( )%
8) 문화·여가비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교양문화비, 여행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에 지출 비용	( )%
9) 사적 이전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물품 지원 등)	( )%
10) 기타	가구·가사용품비, 이미용, 보험료, 주류 및 담배, 경조비 등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 )%
합계		100%

## D. 복지

D1. 귀하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돌봄이란**,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타인으로부터 돌봄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목욕이나 식사 돕기, 병원 모시고 가기,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보기, 말동무하기 등이 모두 돌봄에 해당합니다.

- 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 ②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 ⇨ D2로 이동

D1-1. **(D1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가사활동 등)      ② 일상생활(옷입기, 씻기, 이동 등)지원
- ③ 전문서비스(요양서비스 등)                      ④ 필요하지 않다 ⇨ D2로 이동

D1-2.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된 돌봄제공자	보조 돌봄제공자
-------------	-------------

- ① 없음                                                      ② 배우자                                                      ③ 부모 또는 자녀
- ④ 사위 또는 며느리                                      ⑤ 형제, 자매나 손자녀
- ⑥ 친척, 이웃, 친구, 지인(종교기관 등)      ⑦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민간)
- ⑧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원과 같은 공공서비스 인력
- ⑨ 복지관 등의 생활지원(도시락, 반찬, 청소 또는 관련 바우처) 도움인력      ⑩ 기타 (                                                      )

D1-3. 귀하가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돌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D1-4로 이동
- ② 부족하다      ⇨ D1-4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D1-4. 일상생활 돌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어서
- ②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 ③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④ 돌봄서비스 외의 돌봄(가사서비스 등)이 더 필요해서
- ⑤ 기타 (                                                      )

D2. 귀하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D2-1로 이동
- ② 아니요 ⇨ D3으로 이동

D2-1. **(D2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가 돌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돌보고 있는 가족이 여러명인 경

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모(아버지, 어머니)
- ②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③ 형제자매
- ④ 손주
- ⑤ 친척
- ⑥ 자녀
- ⑦ 기타 (                                                      )



D6. 귀하는 최근 1년간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㉓ 비해당'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2)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다. ※ 현재 신용유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1년간 신용유자였던 적이 있으시면 '① 있다'에 응답해주시시오.	①	②	
3)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와 관련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을 지불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의원을 가지 못한적이 있다	①	②	



⑱ 국외

E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다가구)
- ② 단독주택(영업겸용)
- ③ 아파트
- ④ 연립/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 ⑥ 오피스텔
- ⑦ 고시원
- ⑧ 기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포함)

E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⑥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 ⑧ 기타 ()

E3-1.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월세, 사글세)는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①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부담된다
- ⑤ 매우 부담된다

E4. 세입자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경험이 있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집 주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 ② 내가 여성(혹은 남성)이라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③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렵다
- 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 ⑥ 아무 것도 경험한 적 없음

E5. 귀하께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거주 경험이 있는 곳
- ②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 ③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 ④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 ⑤ 주택 상태가 좋은 곳(면적, 방음, 냉난방, 층수 등)
- ⑥ 주택에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
- ⑦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CCTV, 가로등, 파출소 등)
- ⑧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편의시설, 공원 등)
- ⑨ 서울로 접근이 용이한 곳
- ⑩ 기타 ( )

E6. 귀하께서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 ② 주택 구입 또는 임차비용 마련
- ③ 주택 성능(단열, 방음, 환기, 누수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부족
- ④ 법적 문제(불법 건축물 여부, 근저당 설정 등)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 ⑤ 부동산 계약(절차, 수수료, 잔금 처리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⑥ 기타 ( )
- ⑦ 어려운 점 없었음

E7. 귀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안감을 더 크게 경험한 사유를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 ②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 ③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취약계층, 유아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 ④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 ⑤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 ⑥ 주택 노후화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안전·건강문제 발생(위험)
- ⑦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 ⑧ 보증금 반환 위험
- ⑨ 추가보증금이나 추가 임대료
- ⑩ 기타 ( )
- ⑪ 경험 없음

E8.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안하다 ② 약간 불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E8-1. 현재의 거주지가 불안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불안한 원인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 ② 주택 관리인의 부재
- ③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 ④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 ⑥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 ⑦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 ⑧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 ⑨ 비상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
- ⑩ 기타 ( )

E9. 현재 주거지의 점유유형, 주거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낀 경험 있습니까? 다음 중 경험한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 ② 거주지의 점유형태(월세, 사글세 등)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 ③ 상·하수도 등 주거내부 시설이 낙후되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됨
- ④ 아무 것도 경험한 적 없음

E10. 귀하는 공유주택에 대해 아십니까?

※ 공유주택이란? 셰어하우스, 코리빙,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으로 고시원과는 다르게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 공간 중 개인 공간인 침실은 독립하여 사용하고 주방,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 일부 공간은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종류, 주거형태, 신청방법, 비용 등)
- ② 대체로 알고 있다(주거형태, 비용 등)
- ③ 들어본 적만 있다
- ④ 모른다

E10-1. 귀하는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 공유주택이란? 셰어하우스, 코리빙,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으로 고시원과는 다르게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 공간 중 개인 공간인 침실은 독립하여 사용하고 주방,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 일부 공간은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

- ① 거주할 의향이 있다
- ② 거주할 의향이 없다 ☞ F1으로 이동
- ③ 잘 모르겠다 ☞ F1으로 이동

E10-2. 귀하가 공유주택에 거주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분	응답		
1) 성별	① 동성	② 여성	③ 상관 없음
2) 연령(세대)	① 청년(만 40세 이하)	② 중장년(만 41~64세)	③ 노년(만 65세 이상)
3) 가구 유형	① 1인가구	② 다인가구(미성년 자녀 없음)	③ 다인가구(미성년 자녀 있음)
4) 반려동물	①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	② 반려동물이 없는 가구	③ 상관 없음

E10-3. 귀하가 공유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낮은 주거비용(월세, 보증금 등)
- ②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 ③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 ④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 ⑤ 교통이 편리한 위치
- ⑥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
- ⑦ 편의시설(편의점, 빨래방, PC방)과 근접한 위치
- ⑧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 ⑨ 기타 ( )





G5.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 ② 별로 건강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건강하다
- ⑤ 매우 건강하다

G6.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 등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구분	극히 드물다 (하루 미만)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항상 (5-7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잤다	①	②	③	④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었다	①	②	③	④
5)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었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7) 신문이나 TV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반대로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하려는 충동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G7.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G8-1로 이동
- ② 아니오 ☞ G9로 이동

G8-1. 귀하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때문에(사업이나 투자실패, 실직, 생활고 등)
- ②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 ③ 가족 내 불화나 관계 단절 때문에
- ④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의 갈등이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⑤ 진로나 직장 문제 때문에(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취업 실패 등)
- ⑥ 학업,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 ⑦ 삶의 의미 또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 ⑧ 기타( )

G8-2. 최근 1년간 죽고싶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① 가족들의 도움을 극복
- ②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극복
- ③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
- ④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
- ⑤ 기타( )
- ⑥ 비해당

G9.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현재 귀하께서 느끼시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내용	항상 그렇다	가끔 그런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G10. 귀하는 외롭다고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게임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오락활동
- ② 취미활동(독서, 영화감상, 여행 등)
- ③ 헬스,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 ④ 친목모임
- ⑤ 혼식, 혼주(먹고 마시는 행동)
- ⑥ 종교활동
- ⑦ 외부기관 요청(상담 등)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G11.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G12로 이동
- ②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 G11-1로 이동
- ③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 G11-2로 이동
- ④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 G11-2로 이동

G11-1. **(G11번 문항의 2번 응답자만)**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 ③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 ④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 ⑤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혹은 음식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 ⑥ 식료품점(혹은 음식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식료품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 ⑦ 조리공간과 조리기구(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프라이팬 등)가 없어서
- ⑧ 음식 조리방법을 몰라서
- ⑨ 질환, 장애 등 때문에 조리를 할 수 없어서
- ⑩ 질환, 체중조절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 ⑪ 기타 ( )

G11-2. **(G11번 문항의 3~4번 응답자만)**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고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 ③ 주변 식료품점 혹은 음식점에 1인용(소량) 식재료/음식 메뉴가 없어서
- ④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 ⑤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혹은 음식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 ⑥ 식료품점(혹은 음식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식료품점에 가서 식품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 ⑦ 조리공간과 조리기구(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프라이팬 등)가 없어서
- ⑧ 음식 조리방법을 몰라서
- ⑨ 질환, 장애 등 때문에 조리를 할 수 없어서
- ⑩ 질환, 체중조절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 ⑪ 기타 ( )

G12. 귀하께서는 혼자 식사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① 직접 음식을 조리 한다
- ② 가정간편식(HMR) 이용
- ③ 빵, 샌드위치
- ④ 편의점 음식(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등)
- ⑤ 배달음식
- ⑥ 포장 후 집에서
- ⑦ 음식점 방문 식사
- ⑧ 직장, 학교 식당
- ⑨ 기타 ( )
- ⑩ 식사를 거른다

G13. 귀하가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 ② 혼자 먹기 싫어서
- ③ 장을 보는 것이 번거로워서
- ④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⑤ 경제적 이유로
- ⑥ 음식 조리할 시간이 없어서
- ⑦ 음식 조리 방법을 몰라서
- ⑧ 습관적으로
- ⑨ 다이어트(체중조절)를 위해서
- ⑩ 기타 ( )
- ⑪ 거른 적 없음

## H.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H1. 귀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만나 소통하십니까?

- ① 하루에 한번
- ② 2-3일에 한번
- ③ 일주일에 한번
- ④ 이주일에 한번
- ⑤ 한달에 한번
- ⑥ 월 1회 미만(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H1-1. 귀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비대면(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소통하십니까?

- ① 하루에 한번
- ② 2-3일에 한번
- ③ 일주일에 한번
- ④ 이주일에 한번
- ⑤ 한달에 한번
- ⑥ 월 1회 미만(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H2.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안부(건강) 확인 및 담소를 나눈다
- ② 경제적 도움(주거나 받음)
- ③ 일상생활 도움(가사일, 반찬, 약먹기 등)
- ④ 돌봄(손자녀, 자녀 등을 맡김)
- ⑤ 주거환경 개선(시설보수, 전구갈기, 청소 등)
- ⑥ 취미, 여가활동(게임, 운동, 동호회 참여 등)을 함께 즐긴다
- ⑦ 사회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을 함께한다
- ⑧ 기타 ( )

H3. 다음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①	②
2)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①	②
3)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①	②

H4. 귀하는 최근 6개월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H4-1. 최근 6개월간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취업 실패
- ② 실직
- ③ 대인관계 어려움
- ④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 ⑤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갈등
- ⑥ 임신, 육아, 출산 등
- ⑦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장애
- ⑧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 ⑨ 기타( )

H5.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
-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 ④ 운동경기 관람
-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활동
- ⑥ 여행, 캠핑
- ⑦ 컴퓨터 게임
- ⑧ 유튜브, 블로그, SNS, 인터넷 검색 등
- ⑨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 ⑩ 종교 활동
- ⑪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⑬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H7로 이동)

H6. 문화·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서
- ② 가족(친척 포함)
- ③ 친구(연인 포함)
- ④ 직장동료
-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H7. 귀하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H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모임 또는 단체 활동이 무엇입니까? 주로 활동하는 모임 및 단체를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 ② 동창회/동창모임
- ③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동호회
- ④ 자원봉사단체
- ⑤ 시민운동단체
- ⑥ 노조 및 직능 단체
- ⑦ 정당
- ⑧ 종교단체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⑩ 없음

H9. 귀하께서 참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모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친목회/친목계/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 ② 동창회/동창모임
- ③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동호회
- ④ 자원봉사단체
- ⑤ 시민운동단체
- ⑥ 노조 및 직능 단체
- ⑦ 정당
- ⑧ 종교단체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⑩ 없음



4) 가족여성화관1인가구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5)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6) 청년 월세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7)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대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8) 수원에 다잇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9) 청년 고민상담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10) 우리동네공구도서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 생활안심 사업	
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 보급	여성1인가구 및 범죄취약계층 대상 홈카메라,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설치운영	빌라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대상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
우먼하우스케어 방범 서비스	민간 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서비스
가족여성화관1인가구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여성 및 남성 1인가구 대상 신중년 남성 요리교실, 1인가구 주거환경 교육 등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지원	화재 안전 취약가구 대상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
청년 월세지원	생애 1회, 청년 월세(임차료) 지원(월 10만원, 최대 5개월)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대여	취업 면접 예정인 청년 대상 면접 정장 대여서비스
수원에 다잇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매개로 한 수원시 청년층 사회적 커뮤니티 조성
청년 고민상담소	수원 거주 또는 활동 청년 대상 고민상담 서비스
우리동네공구도서관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가정용 공구 대여서비스(전동드릴, 사다리 등)

13-2. 다음은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심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신청) 의향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있다	없다	비해당
1) 새빛 청년존(Zone)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2) 자립준비청년 쉼터하우스 CON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3)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4)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5)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6)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7)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 주거안심 사업

새빛 청년존(Zone)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LH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자립준비청년 쉼어하우스 CON	자립준비청년 대상 쉼어하우스 입주 및 자립프로그램 연계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잔액의 연 1%(최대 청년 50만원/신혼부부 100만원) 지원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대상 주거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 대상 클린서비스(청소, 정리·수납, 방역 등) 지원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주거 취약 계층 및 청년 대상 주택물색·계약 지원 기초상담 및 공인중개사 연계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주택 구입 등의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상담 및 권리분석을 통하여 전·월세 계약 안전 여부 상담

13-3. 다음은 1인가구를 위한 돌봄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인지도		이용(신청)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신청) 의향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있다	없다	비해당
1) 수원 새빛돌봄 시범사업 운영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2)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4)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5)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	-	③
6) 방문건강관리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7)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8)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9) 생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 돌봄사업

수원 새빛돌봄 시범사업 운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대상 유료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노인 가구에 응급안전장비 설치로 비상 시 대처 및 상시안전 모니터링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능실마을 22단지 대상 수도검침 사업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검침 및 부재자 안전안부 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대상 공영장례 시행 및 비용 지급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 동물 의료(중성화 수술비 등)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음료배달원을 통한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등 위기 상황 관리
생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고독사 위험가구 등을 대상의 AI전화상담 및 모니터링



연구책임자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재이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정보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신예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성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순)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창우 (인제대학교 교수)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양소남 (경기대학교 교수)  
이정용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

SRI-전략-2024-02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Single-person households survey and policy agenda in Suwon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10월 30일

발행 2024년 10월 30일

ISBN 979-11-6819-168-6(93330)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박민진. 2024.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